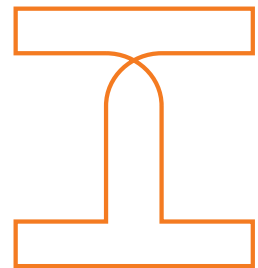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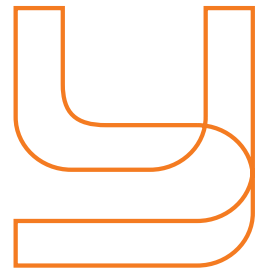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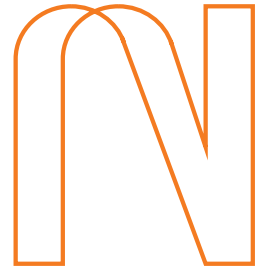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하형석 신인철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신인철(성균관대학교 · 연구교수)
- ▶ 연구보조원 :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손원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인턴)

국 문 초 록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 영역은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 ③ 경제,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의 총 7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인구와 가족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 독립/결혼/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 가장 먼저 확대해야하는 출산/육아 대책, 2025년 출산율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교육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대학교육에 대한 생각, 2025년 입시 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경제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2025년 청년 취업 경쟁에 대한 생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17년 최저임금,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주거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집에 대한 생각,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건강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평일 하루 수면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째, 문화와 가치관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지난 1년간 독서 여부,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가치 관련 선호 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반대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 한국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생각,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2017년부터 4년 동안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인 ① 청년 니트(NEET)와 사회부적응, ② 학교 신규 졸업(예정)자, ③ 청년 근로빈곤층, ④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추가 조사항목을 개발해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연구 요약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현재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음

2) 조사 목적

-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함

2. 조사 시기

- 2016년 6월 ~ 8월

3. 조사 기관

- 조사 주관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실사 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4.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의 일반국민
-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조사 항목

1) 조사표 구성

- 만15-18세용 설문지
- 만19-39세용 설문지

2) 주요 조사 항목

- 총 7개 영역(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구 분	분 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 청년 연령규정 등
교육	대학등록금, 대학졸업 소요기간, 졸업 유예 등
경제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소득, 선호 일자리, 직무 불일치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 청년 주거 빈곤, 부모 동거, 공동주거 등
건강	비만율,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등
문화와 가치관	여가생활, 여가활동 대상, 계층의식, 생활 만족도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 세대갈등, 의견 표명 행동, 정치 성향 등

6. 표본설계

1) 목표 모집단

- 2016년 조사시점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의 일반국민 17,537,012명

2) 표본추출 단위 및 표본추출틀

- 기본 조사단위 :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의 일반국민
- 표본추출틀 : 통계청 집계구¹⁾

1) 집계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유사하게 공간통계의 기본단위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별도의 블록(block)이다. 집계구는 평균 1.1km²의 면적에 평균적으로 200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구(평균 60가구)에 비해 약 3.3배의 크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표본크기 결정

- 목표 표본크기 : 2,500명

4) 모집단 층화

- 17개 시/도, 성별, 연령(5세 단위)의 총 3개의 층으로 구분

5) 표본의 배분

- 각 층별 안정적인 표본크기 확보를 위해 각각의 세부 층에 2개 표본을 우선 할당 후 모집단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설계함
- 집계구 기준 표본 배분은 각 집계구 당 15명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위의 표에서 시/도별로 배분된 표본을 15명으로 나누어 표본 집계구 수를 산정함
- 시/도별로 할당된 168개 집계구는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로 비례배분법을 이용하여 집계구를 구분

6) 표본추출

- 1차 집계구 추출 :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자체가중설계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집계구 특성(아파트, 일반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계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함
- 2차 집계구 내 가구 추출 : 집계구 내 15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으로 추출함
- 3차 가구 내 개인 추출 : 방문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39세인 모든 가구원을 조사함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 개요	3
2. 조사 내용	3
3. 조사표	5
4. 표본설계 및 가중치	7
II.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15
III. 부 록	165
1. FGI 참여 대상자	167
2. FGI 질문표	168
3. 조사 참여 안내문	176
4. 조사 동의서	178
5. 설문지	180

표 목 차

〈표 Ⅰ-1〉	조사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	4
〈표 Ⅰ-2〉	가구 방문 및 조사 진행	6
〈표 Ⅰ-3〉	조사일정	7
〈표 Ⅰ-4〉	시/도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분포	8
〈표 Ⅰ-5〉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결과	9
〈표 Ⅰ-6〉	시/도별, 주택유형별 집계구의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10
〈표 Ⅰ-7〉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주택유형별 집계구 표본배분 결과	11
〈표 Ⅰ-8〉	시/도별, 성별, 연령별 조사 결과	14
〈표 Ⅱ-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17
〈표 Ⅱ-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18
〈표 Ⅱ-3〉	결혼의 필요성	19
〈표 Ⅱ-4〉	자녀를 가질 필요성	20
〈표 Ⅱ-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21
〈표 Ⅱ-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22
〈표 Ⅱ-7〉	2025년 출산율 전망	23
〈표 Ⅱ-8〉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24
〈표 Ⅱ-9〉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25
〈표 Ⅱ-10〉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	26
〈표 Ⅱ-11〉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27
〈표 Ⅱ-12〉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	28
〈표 Ⅱ-13〉	현재 혼인 상태	29
〈표 Ⅱ-14〉	맞벌이 여부	30
〈표 Ⅱ-15〉	자녀 여부	31
〈표 Ⅱ-16〉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32
〈표 Ⅱ-17〉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역할 정도	33

〈표 II-18〉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졸업 후 구직에의 도움 정도	34
〈표 II-19〉	2025년 입시경쟁 전망	35
〈표 II-2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36
〈표 II-21〉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37
〈표 II-22〉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	38
〈표 II-23〉	대학 시절 휴학 경험	39
〈표 II-24〉	휴학 사유	40
〈표 II-25〉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41
〈표 II-26〉	대학 전공 계열	42
〈표 II-27〉	대학 학점 평균	43
〈표 II-28〉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44
〈표 II-29〉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45
〈표 II-30〉	실제 해외유학 경험	46
〈표 II-31〉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47
〈표 II-32〉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48
〈표 II-33〉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49
〈표 II-34〉	대학 시절 인턴 경험	50
〈표 II-35〉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경험	51
〈표 II-36〉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	52
〈표 II-37〉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53
〈표 II-38〉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54
〈표 II-39〉	대학원 진학 여부	55
〈표 II-40〉	대학원 진학 사유	56
〈표 II-41〉	대학원 진학 의향	57
〈표 II-42〉	대학 미진학 사유	58

〈표 II-4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59
〈표 II-4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60
〈표 II-45〉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61
〈표 II-46〉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62
〈표 II-47〉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63
〈표 II-48〉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64
〈표 II-49〉	소비생활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	65
〈표 II-50〉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66
〈표 II-51〉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67
〈표 II-52〉	소득 및 주변 여건 고려 시, 계획적인 소비 정도	68
〈표 II-53〉	갚아야 할 채무 여부	69
〈표 II-54〉	중소기업 취업 의향	70
〈표 II-55〉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71
〈표 II-56〉	창업 고려 여부	72
〈표 II-57〉	창업을 생각한 이유	73
〈표 II-58〉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	74
〈표 II-59〉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75
〈표 II-60〉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종류	76
〈표 II-61〉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	77
〈표 II-6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78
〈표 II-6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79
〈표 II-6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80
〈표 II-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81
〈표 II-66〉	지난 주 무급가족종사 여부	82
〈표 II-67〉	지난 주 일시 휴직 여부	83

〈표 II-68〉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84
〈표 II-69〉	구직 시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여부	85
〈표 II-70〉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86
〈표 II-71〉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87
〈표 II-7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88
〈표 II-7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89
〈표 II-7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90
〈표 II-75〉	근로형태(임금근로자)	91
〈표 II-76〉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92
〈표 II-77〉	일하는 곳	93
〈표 II-78〉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94
〈표 II-79〉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95
〈표 II-8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96
〈표 II-8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97
〈표 II-8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적정 학력 수준	98
〈표 II-83〉	이직 의향	99
〈표 II-84〉	이직 희망 사유	100
〈표 II-85〉	직업 훈련 경험 여부	101
〈표 II-86〉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	102
〈표 II-87〉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03
〈표 II-8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104
〈표 II-89〉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105
〈표 II-90〉	현재 취업 준비 여부	106
〈표 II-91〉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	107
〈표 II-92〉	면접을 본 경험	108

〈표 II-93〉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109
〈표 II-94〉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110
〈표 II-95〉	집에 대한 생각1_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111
〈표 II-96〉	집에 대한 생각2_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112
〈표 II-97〉	집에 대한 생각3_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13
〈표 II-98〉	집에 대한 생각4_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4
〈표 II-99〉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115
〈표 II-10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116
〈표 II-101〉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117
〈표 II-102〉	현재 주거 형태	118
〈표 II-103〉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여부	119
〈표 II-104〉	키 및 몸무게(남성)	120
〈표 II-105〉	키 및 몸무게(여성)	121
〈표 II-10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122
〈표 II-107〉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	123
〈표 II-108〉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124
〈표 II-109〉	평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및 규칙적인 운동 여부	125
〈표 II-110〉	규칙적인 운동 빈도	126
〈표 II-11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127
〈표 II-112〉	성형수술 경험	128
〈표 II-113〉	성형수술 목적	129
〈표 II-114〉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130
〈표 II-115〉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131

〈표 II-116〉 지난 1년간 독서 여부	132
〈표 II-117〉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133
〈표 II-118〉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134
〈표 II-119〉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순위)	135
〈표 II-120〉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2순위)	136
〈표 II-12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137
〈표 II-12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138
〈표 II-12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139
〈표 II-12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140
〈표 II-125〉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1. 즐거운	141
〈표 II-126〉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2. 행복한	142
〈표 II-127〉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3. 짜증나는	143
〈표 II-128〉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4. 무기력한	144
〈표 II-12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45
〈표 II-13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46
〈표 II-13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147
〈표 II-132〉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148
〈표 II-133〉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49
〈표 II-134〉 본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	150
〈표 II-135〉 친한 친구	151
〈표 II-136〉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152
〈표 II-137〉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153
〈표 II-138〉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154
〈표 II-139〉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155
〈표 II-140〉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156

〈표 II-141〉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157
〈표 II-142〉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158
〈표 II-14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159
〈표 II-14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60
〈표 II-14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3. 서명에 참여하기	161
〈표 II-146〉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62
〈표 II-147〉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163
〈표 II-148〉 정치적 성향	164
〈부록표 1-1〉 FGI 참여 대상자	167

그림 목 차

【그림 1-1】 조사표 설계 시 고려 요인	5
-------------------------------	---

제 I 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조사표
4.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 I 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2013년과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선행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 불필요한 문항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토대로 신규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 영역은 총 7개의 영역(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 -1 조사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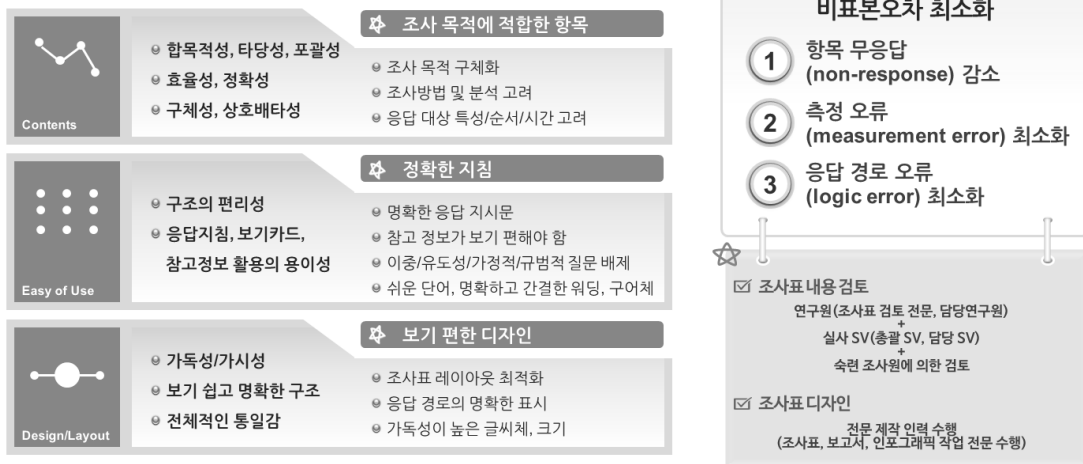
조사 영역	주요 조사 항목
1. 인구와 가족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 독립/결혼/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대책 가정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2025년 출산율에 대한 생각 등
2. 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생각 2025년 입시 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최종 학력 등
3. 경제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2025년 청년 취업 경쟁에 대한 생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17년 최저임금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등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집에 대한 생각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5. 건강	키/몸무게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평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등
6. 문화와 가치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지난 1년 간 독서 여부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가치 관련 선호 정도 등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반대의견 제시 방법에의 참여 의향 한국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생각 정치적 성향 등

3. 조사표

1) 조사표 설계

조사표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목 무응답이 감소하여야하고, 측정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응답 경로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먼저, 항목 무응답(non-response) 감소를 위하여 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및 분석을 고려하며, 응답 대상 특성/순서/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의 최소화를 위해 응답 지시문을 명확히 하고, 이중/유도성/가정적/규범적 질문을 배제하고, 쉬운 단어 및 명확하고 간결한 설문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경로 오류(logic error) 최소화를 위해 조사표 레이아웃을 최적화 하였고, 응답 경로의 명확한 표시 및 가독성이 높은 글씨체와 크기를 사용하여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 조사표 설계 시 고려 요인



【그림 I -1】 조사표 설계 시 고려 요인

2) Focus Group Interview(FGI, 집단심층면접)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사과정 중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사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 또는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FGI의 주요 내용은 조사항목 이해도, 응답 용이성, 조사표 형태 등 검토이다. 본 조사는 설문지를 만 15-18세용과 만 19-39세용으로 나누어 조사하기 때문에 FGI를 위해 필요한 조사대상자를 A그룹(만 15-18세)과 B그룹(만 19-39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A그룹은 중학생 1명(여1)과 고등학생 2명(남1, 여1)로 구성하였고, B그룹은 20대 3명(초반, 여/중반, 남/후반, 여)과 30대 3명(초반, 남/중반, 여/후반, 남)의 총 6명(남3, 여3)으로 구성하였다. FGI의 절차는 예상 쟁점 파악 -> 면접 지침 작성 -> 조사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면접 진행 순으로 진행하였고, 면접과정 혹은 면접 직후 조사항목 이해과정을 말하도록 하여 이해 정도를 파악하였다.

3) 조사 방법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I -2 가구 방문 및 조사 진행

구분	내용
1. 가구 접촉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 목적 등에 대해 설명 후 조사 협조를 얻음
	가구 방문 전 필요시 동/반장, 이장, 관리소장 등에 협조 요청 및 문의
2. 조사 대상자 선정	가구 내 조사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원 확인
	적격 조사 가구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3. 조사 진행	가구원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조사 대상 가구원이 부재 중인 경우, 재방문을 통한 조사 진행 필요
	유치를 의망하는 경우, 조사표 유치 후 회수 날짜 약속 필요
4. 조사 종료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
	유치를 한 경우, 회수 날짜에 맞추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
	→ 현장 에디팅
5. 감사의 인사, 답례품 전달	조사 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 전달 및 답례품 제공

4) 조사일정

본 조사의 상세 일정은 <표 I-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설계와 FGI를 거쳐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고, 실사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10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I-3 조사일정

항목	일정	비고
표본설계	~ 5월 23일	
FGI	5월 26일	2그룹
조사표 최종 확정	6월 17일	2종
실사 준비	~ 6월 22일	
조사원 교육	6월 23일 ~ 6월 27일	총 5개 지점
본조사 진행	6월 23일 ~ 8월 28일	
자료 입력/편칭 검수	8월 1일 ~ 9월 3일	25, 26일 편칭 검수

4. 표본설계 및 가중치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의 일한국민이다. 표본추출틀로는 통계청 집계구²⁾를 사용하였고, 표본크기는 2,500명으로 산정하였다.

모집단의 층화는 17개 시/도, 성별, 연령(5세 단위)의 총 3개의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층별 모집단 인구수는 <표 I-4>와 같다.

각 층별 안정적인 표본크기 확보를 위해 각각의 세부 층에 2개 표본을 우선 할당 후 모집단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는 <표 I-5>와 같다.

집계구 기준 표본 배분은 각 집계구 당 15명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아래의 <표 I-5>에서 시/도별로 배분된 표본을 15명으로 나누어 표본 집계구 수를 산정하였다. <표 I-6>을 살펴보면, 전국의 집계구 수는 168개로 구성되었다.

2) 집계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유사하게 공간통계의 기본단위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별도의 블록(block)이다. 집계구는 평균 1.1km²의 면적에 평균적으로 200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구(평균 60가구)에 비해 약 3.3배의 크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I -4 시/도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명)

구분		만15-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합계
서울	남	227,284	417,531	368,892	420,654	408,251	1,842,612
	여	210,957	409,053	376,212	418,052	404,560	1,818,834
부산	남	81,811	153,163	110,167	120,699	129,915	595,755
	여	73,385	134,342	101,813	115,136	124,237	548,913
대구	남	69,101	118,649	79,779	81,212	89,719	438,460
	여	61,108	98,419	65,946	77,856	90,035	393,364
인천	남	74,380	132,166	98,212	111,927	121,028	537,713
	여	69,111	119,861	91,775	105,815	114,310	500,872
광주	남	46,092	71,448	44,457	52,300	57,496	271,793
	여	42,657	64,535	42,085	50,799	57,921	257,997
대전	남	42,673	71,593	52,101	55,671	58,397	280,435
	여	39,141	64,219	45,687	53,208	58,484	260,739
울산	남	33,381	57,505	40,815	45,189	48,961	225,851
	여	29,669	45,123	31,982	40,643	44,487	191,904
세종	남	4,834	7,463	6,166	9,292	11,526	39,281
	여	4,595	6,684	6,358	10,065	11,867	39,569
경기	남	336,925	548,014	404,084	468,612	525,285	2,282,920
	여	313,788	498,723	373,753	449,883	513,315	2,149,462
강원	남	40,320	69,615	44,735	46,241	50,834	251,745
	여	36,401	54,556	34,795	41,656	48,698	216,106
충북	남	41,687	70,541	48,275	54,272	57,421	272,196
	여	38,477	58,546	40,722	49,161	53,130	240,036
충남	남	52,870	82,437	62,421	75,863	81,876	355,467
	여	48,301	71,684	52,903	65,563	71,375	309,826
전북	남	50,614	79,610	49,918	55,628	63,267	299,037
	여	46,894	69,892	43,683	51,375	59,184	271,028
전남	남	49,930	77,149	46,648	55,104	62,454	291,285
	여	45,646	65,509	40,258	49,427	55,653	256,493
경북	남	66,463	111,016	78,294	86,971	93,968	436,712
	여	58,462	90,170	62,545	77,790	85,330	374,297
경남	남	90,185	145,784	96,094	115,593	129,990	577,646
	여	81,031	117,709	80,224	105,495	120,863	505,322
제주	남	17,701	27,049	16,712	20,212	23,712	105,386
	여	16,276	23,991	15,322	19,449	22,918	97,956
전국	남	1,326,251	2,240,733	1,647,770	1,875,440	2,014,100	9,104,294
	여	1,215,899	1,993,016	1,506,063	1,781,373	1,936,367	8,432,718
합계	합계	2,542,150	4,233,749	3,153,833	3,656,813	3,950,467	17,537,012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월말 기준)

표 I -5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구분		만15-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합계
서울	남	30	53	47	54	52	236
	여	28	52	48	53	52	233
부산	남	12	21	16	17	18	84
	여	11	18	15	16	17	77
대구	남	11	17	12	12	13	65
	여	10	14	10	12	13	59
인천	남	11	18	14	16	17	76
	여	11	17	13	15	16	72
광주	남	8	11	7	8	9	43
	여	7	10	7	8	9	41
대전	남	7	11	8	9	9	44
	여	7	10	8	9	9	43
울산	남	6	9	7	8	8	38
	여	6	8	6	7	7	34
세종	남	3	3	3	3	3	15
	여	3	3	3	3	3	15
경기	남	43	69	52	60	66	290
	여	41	63	48	57	65	274
강원	남	7	11	8	8	8	42
	여	6	9	6	7	8	36
충북	남	7	11	8	9	9	44
	여	7	9	7	8	9	40
충남	남	9	12	10	11	12	54
	여	8	11	9	10	11	49
전북	남	8	12	8	9	10	47
	여	8	11	7	8	9	43
전남	남	8	12	8	9	10	47
	여	8	10	7	8	9	42
경북	남	10	16	12	13	13	64
	여	9	13	10	12	12	56
경남	남	13	20	14	16	18	81
	여	12	16	12	15	17	72
제주	남	4	5	4	4	5	22
	여	4	5	4	4	5	22
전국	남	197	311	238	266	280	1,292
	여	186	279	220	252	271	1,208
합계	합계	383	590	458	518	551	2,500

표 I -6 시/도별, 주택유형별 집계구의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배분 표본인원	집계구 배분
	아파트	일반주택				
전국	49,097	20,094	13,475	82,666	2,500	168
서울	10,479	5,602	—	16,081	469	31
부산	4,252	1,645	—	5,897	161	11
대구	2,926	1,369	—	4,295	124	8
인천	3,112	1,447	—	4,559	148	10
광주	1,997	495	—	2,492	84	6
대전	1,823	679	—	2,502	87	6
울산	1,459	414	—	1,873	72	5
세종	86	63	—	149	30	2
경기	11,741	4,816	3,202	19,759	564	38
강원	1,198	397	943	2,538	78	5
충북	1,189	372	973	2,534	84	6
충남	1,120	249	1,794	3,163	103	7
전북	1,671	444	896	3,011	90	6
전남	1,080	260	1,619	2,959	89	6
경북	1,781	594	2,058	4,433	120	8
경남	2,695	852	1,990	5,537	153	10
제주	488	396	—	884	44	3

<표 I-6>에서 시/도별로 할당된 168개 집계구는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로 비례배분법을 이용하여 집계구를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 <표 I-7>과 같다.

표 I -7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주택유형별 집계구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배분 표본인원	모집단 집계구 합계
	아파트	일반주택				
전국	99	43	26	168	2,500	82,662
서울	20	11	—	31	469	16,081
부산	8	3	—	11	161	5,897
대구	5	3	—	8	124	4,295
인천	7	3	—	10	148	4,559
광주	5	1	—	6	84	2,492
대전	4	2	—	6	87	2,502
울산	4	1	—	5	72	1,873
세종	1	1	—	2	30	149
경기	23	9	6	38	564	19,759
강원	2	1	2	5	78	2,538
충북	3	1	2	6	84	2,534
충남	2	1	4	7	103	3,163
전북	3	1	2	6	90	3,011
전남	2	1	3	6	89	2,959
경북	3	1	4	8	120	4,433
경남	5	2	3	10	153	5,537
제주	2	1	—	3	44	884

1)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의 1차 추출단위는 집계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집계구 내 가구, 3차 추출 단위는 가구 내 개인으로 표본 추출이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 표본 추출방법은 먼저 1차 집계구 추출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자체가중설계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집계구 특성(아파트, 일반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계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시/도별 동부(주택유형)과 읍면부 층에서 하나라도 표본 집계구가 할당된 층은 42개이고, 이들 각 층에서 집계구의 특성(아파트, 일반주택)과 집계구의 코드번호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집계구를 추출하였다. 계통추출법 적용 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먼저 정렬 후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2차 집계구 내 가구 추출에서는 집계구 내 15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는 집계구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추출간격에 따라 계통추출법으로 산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합한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추출한 표본가구를 면접원이 정해진 순서대로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 가운데 만15세-39세인 사람이 1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조사대상 가구로 판정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적격 가구로 판정 후 다음 표본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다만, 추출된 표본집계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집계구 전체가 유고되어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표본집계구 특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가구 내 개인 추출에서는 방문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39세인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만15세-39세의 인구는 0.97명으로 파악되었다.

2) 가중치 산정

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정은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정하며,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계산할 수 있으나 가중치 적용으로 인한 분산을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① 표본추출과정에 의한 설계가중치, ② 실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무응답에 대한 보정 가중치, ③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을 일치시키는 사후층화보정 가중치의 세 종류 가중치들을 결합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정한다.

먼저, 설계 가중치는 각 표본 집계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n_h 은 층 h 의 표본 집계구 수를 의미하고, S_{hi} 는 층 h 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집계구의 총 가구 수)를 $S_h = \sum_{i=1}^{N_h} S_{hi}$ 는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을 의미한다.

또한, M_{hi} 과 m_{hi} 는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를 각각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각 표본 집계구에서는 15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5$ 이고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15}$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은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으나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집계구 단위로 진행된다. 따라서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여기서 r_{hi} 는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를 의미한다.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중치를 적용한 조사 데이터의 시/도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와 <표 III-16>에 주어진 시/도별, 성별, 연령대별 조사 모집단의 인구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시/도별, 성별, 연령대별에 대한 가중치들의 합계를 계산하고, 이 값과 <표 III-16>의 주민등록인구의 비를 이용하여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를 계산한다. 최종 가중치의 산출은 전술한 3가지의 가중치들의 곱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사후층화보정 가중치}$$

3) 실사 결과

전국 만15세-39세의 2,500명을 목표로 진행된 조사는 결과적으로 2,534명이 조사되었고, 지역별, 성별 목표 표본에 대한 조사완료 비율은 <표 I-8>과 같다. 목표 표본에 대한 조사 완료 비율은 101.4%(2,534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102.5%, 여자가 100.2%로 조사되었다.

표 I-8 시/도별, 성별, 연령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만15-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합계
서울	남	103.3	100	106.4	100	100	101.7
	여	100	101.9	97.9	100	98.1	99.6
부산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대구	남	100	105.9	100	91.7	100	100
	여	100	92.9	100	108.3	100	100
인천	남	100	105.6	114.3	106.3	100	105.3
	여	109.1	105.9	107.7	100	93.8	102.8
광주	남	100	100	114.3	100	100	102.3
	여	100	100	85.7	100	100	97.6
대전	남	100	100	125	111.1	111.1	109.1
	여	100	100	100	111.1	122.2	107
울산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세종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경기	남	100	98.6	113.5	96.7	101.5	101.7
	여	102.4	104.8	91.7	98.2	98.5	99.3
강원	남	128.6	90.9	100	100	100	102.4
	여	83.3	100	116.7	85.7	100	97.2
충북	남	114.3	118.2	100	133.3	100	113.6
	여	100	100	100	112.5	100	102.5
충남	남	111.1	116.7	100	109.1	108.3	109.3
	여	100	100	100	120	109.1	106.1
전북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전남	남	112.5	100	100	100	100	102.1
	여	87.5	100	100	100	100	97.6
경북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경남	남	100	95.0	107.1	106.3	100	101.2
	여	100	100	100	93.3	100	98.6
제주	남	100	100	125	75.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전국	남	103	101	107.1	101.1	101.1	102.5
	여	100	101.4	98.2	100.8	100	100.2
	합계	101.6	101.2	102.8	101	100.5	101.4

제 Ⅱ 장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제 II 장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은 아동의 경우 하한 52세, 상한 115세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하한 12.6세 상한 18.4세, 청년은 하한 19.3세, 상한 29.5세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청년' 상한 연령이 여성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의 상한 연령도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광주/전라/제주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청소년		청년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전	체	2,534	5.2	11.5	12.6	18.4	19.3	29.5
성별	남 자	1,315	5.2	11.6	12.7	18.4	19.4	29.7
	여 자	1,219	5.2	11.5	12.6	18.4	19.3	29.3
연령	만 15 ~ 18 세	363	5.2	11.5	12.7	18.4	19.4	29.5
	만 19 ~ 29 세	1,073	5.2	11.4	12.5	18.4	19.4	29.2
	만 30 ~ 39 세	1,098	5.1	11.6	12.7	18.4	19.3	29.8
지역	서울	527	5.2	11.9	13.0	18.3	19.2	29.2
	인천 / 경기	794	5.2	11.6	12.6	18.4	19.2	28.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4.7	11.1	12.3	18.5	19.5	30.4
	광주 / 전라 / 제주	267	4.4	11.2	12.4	18.4	19.4	30.7
	부산 / 울산 / 경남	382	5.7	11.5	12.6	18.6	19.6	29.7
	대구 / 경북	237	5.6	11.3	12.7	18.5	19.5	3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2	11.5	12.7	18.4	19.4	29.5
	대학생 / 대학원생	458	5.2	11.5	12.6	18.5	19.4	29.1
	고 졸 이 하	799	5.2	11.6	12.7	18.3	19.2	29.1
	대 졸 이 상	935	5.1	11.5	12.6	18.5	19.4	30.0
주거 형태	동 거	1,525	5.2	11.5	12.6	18.4	19.3	29.4
	비 동 거 / 독 립	1,009	5.1	11.6	12.6	18.4	19.3	29.6

문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은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이 52.4%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6.2세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의견이 가장 높았음(반대로 서울지역의 의견은 가장 낮은 37.7%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현재 중/고등학생의 경우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독립연령도 가장 낮게 나타남. 반면 고졸이하에서는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534	52.4	26.2	44.2	3.5
성별	남	자 1,315	54.6	26.2	42.1	3.3
	여	자 1,219	50.0	26.3	46.4	3.6
연령	만 15 ~ 18 세	363	54.3	24.6	41.7	4.0
	만 19 ~ 29 세	1,073	52.2	26.2	44.0	3.8
	만 30 ~ 39 세	1,098	52.0	26.9	45.1	2.9
지역	서울	527	37.7	27.7	59.0	3.3
	인천 / 경기	794	50.0	26.6	45.4	4.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3.0	25.9	36.0	1.0
	광주 / 전라 / 제주	267	58.9	24.7	40.6	0.6
	부산 / 울산 / 경남	382	55.6	26.2	39.5	4.9
	대구 / 경북	237	65.5	25.5	30.0	4.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6.4	24.5	39.3	4.2
	대학생/대학원생	458	51.7	26.2	44.8	3.6
	고 졸 이 하	799	49.8	26.1	46.0	4.2
	대 졸 이 상	935	53.5	27.1	44.1	2.5
주거 형태	동	거 1,525	51.6	26.2	44.5	4.0
	비 동 거 / 독 립	1,009	53.6	26.3	43.7	2.7

문3) 결혼의 필요성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56.0%가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평균 결혼연령은 30.1세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57.9%)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동의를 보여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여주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 계층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나타남.

표 II-3 결혼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534	56.0	30.1	40.1	4.0
성별	남	자 1,315	57.9	30.5	38.8	3.2
	여	자 1,219	53.8	29.7	41.4	4.8
연령	만 15 ~ 18 세	363	57.3	29.4	35.8	7.0
	만 19 ~ 29 세	1,073	54.3	30.1	42.7	3.0
	만 30 ~ 39 세	1,098	57.2	30.4	38.9	4.0
지역	서 울	527	52.1	29.9	44.6	3.3
	인 천 / 경 기	794	50.8	30.6	42.8	6.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59.6	30.0	37.5	3.0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49.5	29.6	49.1	1.4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67.8	30.0	28.8	3.4
	대 구 / 경 북	237	65.0	30.0	32.2	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7.8	29.4	34.8	7.4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56.3	30.0	41.7	2.0
	고 졸 이 하	799	53.0	29.9	42.7	4.3
	대 졸 이 상	935	57.6	30.6	38.9	3.5
주거 형태	동 거	1,525	54.0	30.2	41.4	4.6
	비 동 거 / 독 립	1,009	58.9	30.1	37.9	3.1

문4) 자녀를 가질 필요성

-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대해 54.0%가 동의했으며, 평균 31.2세에 가져야 한다고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했으며(55.1%),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만 30~39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했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을 보임.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534	54.0	31.2	42.4	3.6
성별	남 자	1,315	55.1	31.7	42.3	2.6
	여 자	1,219	52.9	30.6	42.5	4.7
연령	만 15 ~ 18 세	363	54.1	30.9	41.2	4.7
	만 19 ~ 29 세	1,073	51.4	31.3	44.7	3.9
	만 30 ~ 39 세	1,098	56.6	31.3	40.5	2.9
지역	서 울	527	50.1	30.9	46.9	3.0
	인 천 / 경 기	794	47.8	31.8	46.7	5.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58.1	31.1	39.2	2.7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50.5	30.4	47.7	1.7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65.2	31.3	31.7	3.1
	대 구 / 경 북	237	63.9	30.8	33.3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4.6	30.9	40.4	5.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51.1	31.2	43.6	5.3
	고 졸 이 하	799	51.5	30.9	45.4	3.1
	대 졸 이 상	935	57.4	31.6	39.9	2.7
주거 형태	동 거	1,525	50.8	31.4	44.7	4.5
	비 동 거 / 독 립	1,009	58.8	31.0	38.8	2.3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출산정책에 대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확대’가 17.4%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가구의 소득증대’라는 응답이, 여성은 ‘출산휴가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확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가구의 소득증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가구의 소득증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출산 장려금 확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192	22.1	17.4	16.5	16.4	12.0	10.9	4.7	0.2
성별	남 자	1,134	21.9	15.3	18.7	16.7	14.0	10.4	2.8	0.1
	여 자	1,059	22.2	19.6	14.1	15.9	9.8	11.4	6.7	0.2
연령	만 15 ~ 18 세	21	27.4	19.0	3.4	40.1	6.2	4.0	—	—
	만 19 ~ 29 세	1,073	21.4	18.4	15.3	16.2	13.0	10.1	5.2	0.3
	만 30 ~ 39 세	1,098	22.6	16.4	17.8	16.1	11.1	11.7	4.3	0.1
지역	서 울	467	14.2	15.7	19.9	17.5	16.6	9.8	5.9	0.4
	인 천 / 경 기	689	24.2	12.8	13.5	18.1	14.4	8.8	7.9	0.2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4.0	18.5	15.5	17.4	9.6	12.5	2.5	—
	광 주 / 전 라 / 제 주	222	25.4	21.2	13.9	17.0	8.6	10.8	2.8	0.2
	부 산 / 울 산 / 경 남	329	21.1	22.8	20.5	11.6	8.9	13.9	1.3	—
	대 구 / 경 북	201	28.0	22.3	16.5	13.3	4.9	13.4	1.3	0.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20.3	21.1	14.4	15.6	10.8	10.8	6.3	0.7
	고 졸 이 하	799	22.8	14.8	16.1	18.9	11.2	11.2	5.1	—
	대 졸 이 상	935	22.3	17.8	17.9	14.6	13.2	10.6	3.6	0.1
주거 형태	동 거	1,185	22.2	16.6	16.8	17.2	12.2	10.1	4.8	0.1
	비 동 거 / 독 립	1,007	21.9	18.3	16.1	15.3	11.8	11.8	4.5	0.2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에 대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장려 및 급여확대’가 21.6%로 뒤를 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장려 및 급여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무상보육 교육비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방과후 서비스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아동 수당 신설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192	23.8	21.6	20.3	14.6	8.8	5.0	3.2	2.2	0.4	0.1	
성별	남	자	1,134	23.9	20.2	20.1	17.2	9.1	4.2	1.8	2.7	0.6	0.3
	여	자	1,059	23.7	23.1	20.4	11.8	8.5	5.8	4.7	1.7	0.3	-
연령	만 1 5 ~ 1 8 세	21	27.7	38.7	23.2	4.7	5.7	-	-	-	-	-	-
	만 1 9 ~ 2 9 세	1,073	25.4	22.3	19.0	14.3	9.0	4.5	3.5	1.8	0.3	-	-
	만 3 0 ~ 3 9 세	1,098	22.2	20.6	21.5	15.0	8.7	5.5	2.9	2.7	0.5	0.3	0.3
지역	서	울	467	12.5	21.8	17.0	22.4	15.0	4.6	3.2	2.6	0.9	-
	인 천 / 경 기	689	36.2	15.4	18.7	10.8	7.4	3.9	4.3	2.9	0.4	-	-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7.1	23.5	18.9	12.4	8.1	6.2	2.0	0.9	0.1	1.0	-
	광주 / 전라 / 제주	222	23.8	17.6	29.3	10.3	5.7	8.5	2.0	2.4	0.5	-	-
	부 산 / 울 산 / 경남	329	14.6	33.3	19.0	16.2	7.4	4.7	3.5	1.3	-	-	-
	대 구 / 경 북	201	17.9	24.9	27.5	14.1	6.1	4.2	2.0	2.4	0.8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23.5	23.8	19.1	13.2	8.5	5.1	4.5	2.1	0.3	-	-
	고 졸 이 하	799	23.1	20.5	20.5	15.3	9.5	5.1	2.7	2.6	0.6	-	-
	대 졸 이 상	935	24.5	21.5	20.7	14.6	8.4	4.8	2.9	2.0	0.3	0.3	-
주거 형태	동	거	1,185	25.8	21.9	17.6	14.9	9.7	4.5	3.2	1.9	0.3	0.2
	비 동 거 / 독 립	1,007	21.4	21.3	23.4	14.2	7.8	5.5	3.2	2.6	0.6	-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7) 2025년 출산율 전망

- 2025년 출산율 전망에 대해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7 2025년 출산율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2,534	5.9	21.2	72.9	0.0
성별	남 자	1,315	5.7	22.0	72.3	-
	여 자	1,219	6.1	20.4	73.5	0.0
연령	만 15 ~ 18 세	363	5.3	20.1	74.6	-
	만 19 ~ 29 세	1,073	6.3	21.7	72.0	-
	만 30 ~ 39 세	1,098	5.7	21.1	73.1	0.0
지역	서 울	527	6.8	23.9	69.2	-
	인 천 / 경 기	794	7.9	23.7	68.4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6	17.2	79.1	0.1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4.1	11.5	84.4	-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5.4	25.5	69.1	-
	대 구 / 경 북	237	3.1	16.6	80.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5	19.3	75.2	-
	대학생/대학원생	458	4.8	19.3	75.9	-
	고 졸 이 하	799	8.5	21.9	69.6	0.0
	대 졸 이 상	935	4.4	22.3	73.3	-
주거 형태	동 거	1,525	6.0	21.3	72.7	-
	비 동 거 / 독 립	1,009	5.8	21.0	73.2	0.0

문8)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도 해외이주를 고려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8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2,534	22.2	77.7	0.0
성별	남 자	1,315	22.2	77.7	0.1
	여 자	1,219	22.3	77.7	-
연령	만 15 ~ 18 세	363	22.1	77.9	-
	만 19 ~ 29 세	1,073	26.5	73.4	0.1
	만 30 ~ 39 세	1,098	18.1	81.9	-
지역	서울	527	26.5	73.3	0.2
	인천 / 경기	794	20.3	79.7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2.2	77.8	-
	광주/전라/제주	267	33.8	66.2	-
	부산/울산/경남	382	11.9	88.1	-
	대구 / 경북	237	23.1	76.9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2.7	77.3	-
	대학생/대학원생	458	29.9	70.1	-
	고 졸 이 하	799	17.3	82.7	-
	대 졸 이 상	935	22.5	77.4	0.1
주거 형태	동 거	1,525	24.3	75.7	-
	비 동 거 / 독 립	1,009	19.1	80.8	0.1

문8-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에 대해 '행복한 삶은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의 경우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만 30~39세의 경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행복한 삶은 위해서', 비동거/독립에서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취업이 어려워워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64	27.8	18.5	12.8	12.6	8.4	7.8	6.8	2.5	1.7	1.2	0.0
	자	292	27.2	19.4	16.0	10.3	6.1	9.9	5.4	1.7	2.4	1.4	0.1
성별	여	271	28.4	17.6	9.3	15.0	10.9	5.5	8.2	3.3	0.9	0.9	-
연령	만 15 ~ 18 세	80	29.7	20.3	22.8	10.5	1.8	2.2	4.1	2.9	3.6	2.3	-
	만 19 ~ 29 세	284	27.2	18.1	15.8	8.6	6.5	7.6	11.9	1.9	1.5	0.9	0.1
	만 30 ~ 39 세	199	27.9	18.5	4.5	19.1	13.8	10.3	0.6	3.1	1.1	1.1	-
지역	서울	139	24.7	17.2	13.8	14.7	10.8	5.3	6.1	2.0	5.0	0.4	-
	인천 / 경기	161	22.0	27.9	10.7	17.3	5.7	5.4	6.4	3.6	-	0.9	0.1
	대전/충청/세종/강원	73	32.0	15.4	14.6	4.9	11.1	9.8	7.0	0.9	3.3	1.1	-
	광주/전라/제주	90	34.8	7.2	8.4	11.1	12.0	11.5	8.3	3.8	-	3.0	-
	부산/울산/경남	45	26.5	11.8	24.8	7.7	1.1	13.1	13.0	1.0	-	0.9	-
	대구 / 경북	55	36.7	23.0	11.4	10.2	6.7	7.9	1.3	1.4	-	1.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78	30.2	20.0	23.1	10.8	1.9	2.3	4.2	3.0	2.1	2.3	-
	대학생/대학원생	137	26.8	19.2	16.5	6.0	5.9	5.4	16.7	1.5	0.9	1.0	-
	고 졸 이 하	138	22.9	21.7	8.7	12.4	7.7	14.9	5.0	3.1	3.3	0.4	-
	대 졸 이 상	211	30.8	15.5	9.2	17.7	12.9	6.6	2.4	2.5	0.9	1.4	0.1
주거 형태	동 거	371	28.9	20.1	14.3	9.7	5.7	6.3	9.6	2.1	2.1	1.2	0.1
	비 동 거 / 독 립	193	25.6	15.6	9.8	18.2	13.6	10.7	1.3	3.2	0.8	1.2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9)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

-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에 대해 76.5%가 아니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망설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30~39세) 아니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77.9%)에서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0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192	23.5	76.5
	자			
성별	남	1,134	29.5	70.5
	여	1,059	17.0	83.0
연령	만 15 ~ 18 세	21	9.7	90.3
	만 19 ~ 29 세	1,073	18.4	81.6
	만 30 ~ 39 세	1,098	28.7	71.3
지역	서울	467	26.1	73.9
	인천 / 경기	689	19.4	80.6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2.3	77.7
	광주 / 전라 / 제주	222	29.3	70.7
	부산 / 울산 / 경남	329	23.4	76.6
	대구 / 경북	201	26.4	73.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15.7	84.3
	고 졸 이 하	799	18.7	81.3
	대 졸 이 상	935	31.3	68.7
주거 형태	동 거	1,185	22.1	77.9
	비 동 거 / 독 립	1,007	25.1	74.9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10)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에 대해 58.0%가 준비경험이 없다고 응답.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만 30~39세)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192	42.0	58.0
성별	남 자	1,134	36.4	63.6
	여 자	1,059	47.9	52.1
연령	만 15 ~ 18 세	21	-	100.0
	만 19 ~ 29 세	1,073	9.2	90.8
	만 30 ~ 39 세	1,098	74.8	25.2
지역	서 울	467	43.7	56.3
	인 천 / 경 기	689	42.3	57.7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35.8	64.2
	광 주 / 전 라 / 제 주	222	45.8	54.2
	부 산 / 울 산 / 경 남	329	38.0	62.0
	대 구 / 경 북	201	47.7	5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1.2	98.8
	고 졸 이 하	799	53.2	46.8
	대 졸 이 상	935	52.4	47.6
주거 형태	동 거	1,185	8.1	91.9
	비 동 거 / 독 립	1,007	81.8	18.2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10-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

-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에 대해 52.3%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아니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아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아니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920	41.4	52.3	6.3
	자	413	46.3	46.8	6.9
성별	여	507	37.5	56.7	5.7
연령	만 15 ~ 18 세	-	-	-	-
	만 19 ~ 29 세	98	49.7	46.5	3.8
	만 30 ~ 39 세	822	40.5	53.0	6.6
지역	서울	204	41.6	54.7	3.7
	인천 / 경기	292	46.8	44.2	9.1
	대전/충청/세종/강원	102	40.3	51.1	8.6
	광주 / 전라 / 제주	102	40.1	50.9	9.0
	부산 / 울산 / 경남	125	35.8	61.4	2.8
	대구 / 경북	96	34.8	62.7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5	39.2	36.1	24.7
	고 졸 이 하	425	40.0	52.0	8.0
	대 졸 이 상	490	42.7	52.7	4.6
주거 형태	동 거	96	53.3	40.8	6.0
	비 동 거 / 독 립	824	40.1	53.6	6.3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문11) 현재 혼인 상태

- 현재 혼인상태에 대해 결혼한 적이 있는 응답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38.9%이며, 이들의 평균 혼인연령은 29.1세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평균혼인연령이 30.4세로 여성 28.2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평균 혼인연령은 29.5세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혼인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으로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는 평균혼인연령이 28.6세. 대졸이하에서는 평균혼인연령이 29.7세로 나타남.

표 II-13 현재 혼인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한 적 있음			결혼하지 않음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	혼인연령 평균(세)	
전	체	2,192	38.9	0.7	29.1	60.4
성별	남 자	1,134	32.7	0.5	30.4	66.8
	여 자	1,059	45.6	0.9	28.2	53.5
연령	만 15 ~ 18 세	21	—	—	—	100.0
	만 19 ~ 29 세	1,073	7.5	0.0	25.6	92.4
	만 30 ~ 39 세	1,098	70.3	1.4	29.5	28.3
지역	서 울	467	39.4	0.3	29.2	60.3
	인 천 / 경 기	689	38.6	1.0	29.0	60.3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32.3	0.4	28.8	67.3
	광 주 / 전 라 / 제 주	222	42.1	1.8	29.1	56.1
	부 산 / 울 산 / 경남	329	38.2	0.5	29.9	61.3
	대 구 / 경 북	201	45.9	—	28.7	54.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0.3	—	24.1	99.7
	고 졸 이 하	799	50.2	1.7	28.6	48.1
	대 졸 이 상	935	48.3	0.2	29.7	51.6
주거 형태	동 거	1,185	4.4	0.5	28.7	95.2
	비 동 거 / 독 립	1,007	79.6	0.9	29.2	19.5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12) 맞벌이 여부

- 맞벌이 여부에 대해 52.3%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외벌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외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외벌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외벌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외벌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52.8%)에서 외벌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4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	체	853	47.7	52.3
	남 자	370	49.3	50.7
	여 자	483	46.5	53.5
연령	만 15 ~ 18 세	-	-	-
	만 19 ~ 29 세	81	49.5	50.5
	만 30 ~ 39 세	772	47.5	52.5
지역	서 울	184	33.4	66.6
	인 천 / 경 기	266	54.3	45.7
	대전/충청/세종/강원	91	61.3	38.7
	광 주 / 전 라 / 제 주	93	47.1	52.9
	부 산 / 울 산 / 경 남	126	44.0	56.0
	대 구 / 경 북	92	49.4	50.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1	40.6	59.4
	고 졸 이 하	401	41.5	58.5
	대 졸 이 상	452	53.2	46.8
주거 형태	동 거	52	54.9	45.1
	비 동 거 / 독 립	802	47.2	52.8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13) 자녀 여부

- 자녀 여부에 대해 31.7%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명수는 1.6명 정도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정보다 여성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 수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자녀는 평균 1.6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의 자녀 평균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5 자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2,192	31.7	1.6	68.3
성별	남 자	1,134	25.2	1.5	74.8
	여 자	1,059	38.8	1.7	61.2
연령	만 15 ~ 18 세	21	—	—	100.0
	만 19 ~ 29 세	1,073	4.8	1.2	95.2
	만 30 ~ 39 세	1,098	58.7	1.6	41.3
지역	서 울	467	33.4	1.6	66.6
	인 천 / 경 기	689	30.6	1.6	69.4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6.6	1.8	73.4
	광 주 / 전 라 / 제 주	222	35.0	1.7	65.0
	부 산 / 울 산 / 경 남	329	30.2	1.5	69.8
	대 구 / 경 북	201	38.1	1.6	61.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0.3	1.6	99.7
	고 졸 이 하	799	42.9	1.7	57.1
	대 졸 이 상	935	37.6	1.6	62.4
주거 형태	동 거	1,185	3.5	1.6	96.5
	비 동 거 / 독 립	1,007	64.9	1.6	35.1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14)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대해 59.5%가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66.2%)의 경우 향후 자녀를 가지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만 30~39세) 향후 자녀를 가지겠다는 응답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향후 자녀를 가지겠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6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192	59.5	40.5
	남 자	1,134	66.2	33.8
	여 자	1,059	52.2	47.8
연령	만 15 ~ 18 세	21	77.7	22.3
	만 19 ~ 29 세	1,073	75.5	24.5
	만 30 ~ 39 세	1,098	43.5	56.5
지역	서울	467	61.6	38.4
	인천 / 경기	689	57.6	42.4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50.4	49.6
	광주 / 전라 / 제주	222	56.2	43.8
	부산 / 울산 / 경남	329	69.6	30.4
	대구 / 경북	201	60.7	39.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74.0	26.0
	고 졸 이 하	799	52.0	48.0
	대 졸 이 상	935	58.8	41.2
주거 형태	동 거	1,185	73.3	26.7
	비 동 거 / 독 립	1,007	43.1	56.9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15)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역할 정도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역할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교육의 역할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교육의 역할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7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역할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레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6.0	30.6	36.2	26.3	1.0
성별	남 자	1,315	6.7	29.2	38.0	24.8	1.3
	여 자	1,219	5.1	32.1	34.3	27.9	0.5
연령	만 15 ~ 18 세	363	4.0	31.9	35.3	27.8	0.9
	만 19 ~ 29 세	1,073	6.9	28.5	36.4	27.0	1.3
	만 30 ~ 39 세	1,098	5.7	32.2	36.3	25.1	0.7
지역	서 울	527	3.3	24.8	37.4	34.5	-
	인 천 / 경 기	794	4.0	30.0	37.8	26.3	1.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6	44.4	37.2	11.3	0.5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8.0	37.0	31.5	13.4	0.2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2.5	25.1	32.8	38.3	1.3
	대 구 / 경 북	237	9.7	27.7	37.4	24.0	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2	30.3	35.4	29.2	1.0
	대학생/대학원생	458	6.9	28.3	34.0	28.5	2.3
	고 졸 이 하	799	6.2	30.6	43.1	19.6	0.6
	대 졸 이 상	935	6.0	31.8	31.7	29.9	0.6
주거 형태	동 거	1,525	6.3	31.2	35.2	26.2	1.0
	비 동 거 / 독 립	1,009	5.4	29.6	37.6	26.5	0.8

문16)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졸업 후 구직에의 도움 정도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졸업 후 구직에의 도움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만 30~39세) 그렇다는 응답이 낮아지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광주/전라/제주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8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졸업 후 구직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4.0	19.3	35.3	38.7	2.7
성별	남 자	1,315	4.6	19.5	35.4	38.0	2.5
	여 자	1,219	3.4	19.0	35.2	39.5	2.9
연령	만 15 ~ 18 세	363	2.0	20.1	29.5	44.8	3.5
	만 19 ~ 29 세	1,073	4.5	18.8	35.6	38.3	2.7
	만 30 ~ 39 세	1,098	4.2	19.4	36.9	37.1	2.3
지역	서 울	527	2.9	12.0	32.9	50.1	2.0
	인 천 / 경 기	794	2.3	18.3	39.0	36.3	4.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4.0	23.7	44.7	26.7	0.8
	광주/전라/제주	267	12.0	32.2	28.4	26.0	1.4
	부산/울산/경남	382	1.1	15.9	31.3	48.7	2.9
	대구 / 경 북	237	7.8	23.3	29.8	36.1	2.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2	20.6	27.3	46.3	3.7
	대학생/대학원생	458	3.5	18.8	33.9	40.4	3.2
	고 졸 이 하	799	5.3	17.7	43.0	31.6	2.3
	대 졸 이 상	935	3.8	20.3	32.4	41.1	2.3
주거 형태	동 거	1,525	3.6	19.5	34.5	39.5	2.9
	비 동 거 / 독 립	1,009	4.6	18.9	36.6	37.6	2.3

문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2025년 입시경쟁 전망에 대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6.2%, ‘강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5.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현재 학생(중/고등학생)들에게서 입시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9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약화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전 체		2,534	28.3	36.2	35.5
성별	남 자	1,315	30.4	34.7	34.9
	여 자	1,219	26.0	37.8	36.2
연령	만 1 5 ~ 1 8 세	363	24.4	36.1	39.5
	만 1 9 ~ 2 9 세	1,073	25.8	36.7	37.6
	만 3 0 ~ 3 9 세	1,098	32.1	35.6	32.3
지역	서 울	527	35.1	44.1	20.8
	인 천 / 경 기	794	25.9	36.4	37.7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9.5	31.9	48.6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5.5	31.4	43.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30.3	38.1	31.5
	대 구 / 경 북	237	33.1	25.6	4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5.3	35.6	39.1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28.9	32.4	38.7
	고 졸 이 하	799	26.7	41.2	32.1
	대 졸 이 상	935	30.5	33.9	35.6
주거 형태	동 거	1,525	26.3	36.1	37.6
	비 동 거 / 독 립	1,009	31.3	36.3	32.4

문18-1)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2.7%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그렇다’라는 의견에 상대적으로 많은 동의를 보여줌.
-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생들(만 15~18세)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3.8	22.4	31.1	36.9	5.8
성별	남 자	1,315	4.7	22.9	31.4	35.0	6.0
	여 자	1,219	2.8	22.0	30.7	38.9	5.6
연령	만 15 ~ 18 세	363	4.3	22.2	22.1	43.6	7.8
	만 19 ~ 29 세	1,073	4.2	21.7	35.7	33.0	5.5
	만 30 ~ 39 세	1,098	3.2	23.3	29.6	38.4	5.5
지역	서울	527	1.6	16.7	38.1	42.1	1.6
	인천 / 경기	794	2.8	20.0	32.2	38.7	6.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8.6	26.5	30.4	29.5	5.0
	광주/전라/제주	267	9.7	34.0	20.4	30.4	5.5
	부산/울산/경남	382	1.1	17.7	29.5	42.0	9.8
	대구 / 경북	237	3.2	32.6	27.4	28.4	8.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6	22.3	21.9	43.0	8.2
	대학생/대학원생	458	3.1	22.0	31.1	38.6	5.2
	고 졸 이 하	799	5.9	27.6	35.8	27.6	3.2
	대 졸 이 상	935	2.0	18.3	30.5	41.7	7.5
주거 형태	동 거	1,525	3.8	23.0	31.8	35.2	6.2
	비 동 거 / 독 립	1,009	3.8	21.6	30.1	39.3	5.2

문18-2)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67.9%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의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서 더 높은 동의를 보여줌.
- 반면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1.0	8.1	22.9	49.9	18.0
성별	남 자	1,315	1.2	9.5	22.8	49.7	16.8
	여 자	1,219	0.8	6.6	23.0	50.2	19.3
연령	만 15 ~ 18 세	363	0.9	8.8	18.0	50.1	22.2
	만 19 ~ 29 세	1,073	1.1	8.8	23.7	48.8	17.5
	만 30 ~ 39 세	1,098	1.0	7.3	23.7	51.0	17.0
지역	서 울	527	0.4	4.0	21.9	60.6	13.1
	인 천 / 경 기	794	0.6	9.7	28.4	44.7	16.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2	7.5	18.6	55.1	17.6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9	11.9	19.5	46.3	19.4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3	7.0	21.8	47.1	23.8
	대 구 / 경 북	237	2.5	10.5	18.3	45.3	23.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9	9.4	18.5	49.3	21.9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0.1	7.4	18.1	55.8	18.7
	고 졸 이 하	799	2.2	11.0	28.3	45.1	13.4
	대 졸 이 상	935	0.5	5.6	22.3	51.5	20.1
주거 형태	동 거	1,525	0.5	8.4	22.2	50.0	18.9
	비 동 거 / 독 립	1,009	1.8	7.7	24.0	49.9	16.6

문18-3)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68.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 및 대졸이상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2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1.3	7.6	22.6	47.5	21.0
성별	남 자	1,315	1.7	8.6	21.1	47.7	20.9
	여 자	1,219	1.0	6.5	24.2	47.2	21.2
연령	만 15 ~ 18 세	363	1.3	8.6	20.8	45.0	24.3
	만 19 ~ 29 세	1,073	1.5	8.6	22.5	46.7	20.7
	만 30 ~ 39 세	1,098	1.2	6.2	23.3	49.0	20.3
지역	서 울	527	0.4	3.2	24.2	49.0	23.2
	인 천 / 경 기	794	0.8	9.1	23.6	47.3	19.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4	6.9	17.8	53.5	20.4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4.6	11.8	19.8	40.4	23.4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3	5.5	26.5	49.5	18.1
	대 구 / 경 북	237	3.0	11.3	19.3	41.0	25.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4	8.5	21.4	44.8	23.9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0.3	6.1	17.9	51.2	24.4
	고 졸 이 하	799	2.5	9.7	30.1	40.3	17.3
	대 졸 이 상	935	0.8	6.1	18.9	52.7	21.5
주거 형태	동 거	1,525	0.8	7.7	21.9	47.7	21.8
	비 동 거 / 독 립	1,009	2.1	7.3	23.6	47.2	19.8

문19) 대학 시절 휴학 경험

- 대학 시절 휴학경험에 대해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6%로 나타남. 휴학을 한 경우 평균 3.5학기에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휴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휴학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II-23 대학 시절 휴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학기)	
전 체		1,455	41.4	3.5	58.6
성별	남 자	791	57.9	4.0	42.1
	여 자	665	21.7	2.0	78.3
연령	만 1 5 ~ 1 8 세	13	—	—	100.0
	만 1 9 ~ 2 9 세	811	39.4	3.4	60.6
	만 3 0 ~ 3 9 세	632	44.8	3.7	55.2
지역	서 울	317	39.7	3.5	60.3
	인 천 / 경 기	395	37.3	3.0	62.7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46.5	3.6	53.5
	광 주 / 전 라 / 제 주	146	34.2	2.9	65.8
	부 산 / 울 산 / 경 남	239	50.0	4.3	50.0
	대 구 / 경 북	155	41.8	3.8	58.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41.7	3.4	58.3
	고 졸 이 하	62	44.7	2.5	55.3
	대 졸 이 상	935	41.0	3.7	59.0
주거 형태	동 거	879	42.5	3.5	57.5
	비 동 거 / 독 립	576	39.7	3.6	60.3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19-1) 휴학 사유

- 휴학 사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군입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군입대를 제외하면 ‘어학연수/해외여행’(7.5%) 및 ‘취업 및 취업준비’(6.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군입대’를 제외하면, ‘취업 및 취업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어학연수/해외여행’ 및 ‘아르바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어학연수/해외여행’이, 만 30~39세에서는 ‘취업 및 취업준비’의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취업 및 취업준비’라는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4 휴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군입대	어학연수/해외여행	취업 및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경제적인 이유로	편입학 및 재수 준비	자격증 및 고시 준비	인턴 등 대외 활동	건강상의 이유로	대학원(유학) 준비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602	56.3	7.5	6.8	5.9	5.5	4.3	3.6	2.2	2.0	0.0	1.6	4.3
성별	남	자 458	74.0	3.4	6.1	1.5	3.2	1.9	2.1	0.4	0.8	0.1	1.1	5.4
	여	자 144	-	20.4	9.0	19.9	12.7	12.1	8.2	7.6	6.0	-	3.1	0.9
연령	만 15 ~ 18 세	-	-	-	-	-	-	-	-	-	-	-	-	-
	만 19 ~ 29 세	319	51.4	9.5	5.6	6.9	7.3	3.7	3.7	3.3	3.2	0.1	2.1	3.2
	만 30 ~ 39 세	283	61.8	5.1	8.2	4.8	3.4	4.9	3.5	0.9	0.8	-	1.0	5.5
지역	서울	126	54.4	15.0	2.8	1.9	3.4	8.0	1.8	2.3	3.0	-	-	7.3
	인천 / 경기	147	53.2	6.2	5.6	10.8	5.9	3.5	3.0	4.1	3.7	-	2.2	1.9
	대전/충청/세종/강원	95	43.3	4.3	10.7	4.3	8.5	6.3	5.0	3.9	2.7	-	1.6	9.4
	광주/전라/제주	50	39.6	7.3	20.7	2.9	5.0	8.2	5.5	1.0	-	-	-	10.0
	부산/울산/경남	119	79.4	3.9	2.9	6.8	4.7	-	2.3	-	-	-	-	-
	대구 / 경북	65	56.2	7.1	8.1	5.9	6.0	0.9	7.0	-	0.8	0.4	7.5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191	50.2	9.3	5.3	9.4	7.4	6.1	3.1	1.7	1.6	-	3.2	2.8
	고 졸 이 하	28	27.9	-	18.8	-	12.2	22.4	-	2.0	9.7	-	5.0	2.2
	대 졸 이 상	383	61.4	7.1	6.7	4.6	4.1	2.1	4.1	2.4	1.7	0.1	0.5	5.2
주거 형태	동 거	373	53.7	9.0	5.2	6.6	6.3	4.8	4.4	2.0	2.7	-	1.8	3.5
	비 동 거 / 독 립	229	60.6	4.9	9.4	4.8	4.1	3.5	2.3	2.5	1.0	0.1	1.2	5.7

주) 대학 시절 휴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졸업 유예 경험에 대해 93.2%가 졸업 유예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에 대해서도 97.7%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에서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5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음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	체	1,455	5.3	93.2	1.5	2.2	97.7	0.0
성별	남 자	791	5.8	93.0	1.2	2.7	97.3	0.1
	여 자	665	4.7	93.4	1.9	1.7	98.3	-
연령	만 15 ~ 18 세	13	-	100.0	-	4.2	95.8	-
	만 19 ~ 29 세	811	5.5	92.8	1.6	1.6	98.3	0.1
	만 30 ~ 39 세	632	5.2	93.4	1.4	3.0	97.0	-
지역	서울	317	2.6	95.7	1.7	1.1	98.9	-
	인천 / 경기	395	7.9	90.2	1.8	2.7	97.2	0.1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6.0	92.9	1.0	3.4	96.6	-
	광주/전라/제주	146	7.3	89.1	3.6	3.1	96.9	-
	부산/울산/경남	239	2.4	96.7	0.9	2.0	98.0	-
	대구 / 경북	155	5.8	94.2	-	1.4	98.6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3.9	94.4	1.7	1.2	98.7	0.1
	고 졸 이 하	62	5.2	84.5	10.4	5.2	94.8	-
	대 졸 이 상	935	6.0	93.1	0.8	2.6	97.4	-
주거 형태	동 거	879	4.7	93.9	1.4	1.9	98.0	0.1
	비 동 거 / 독 립	576	6.3	92.0	1.7	2.7	97.3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1) 대학 전공 계열

- 응답자의 대학 전공 계열에 대해 27.8%가 인문계열이고, 21.5%가 공학계열이었으며, 사회계열, 자연계열 등이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및 교육계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인문계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대전/충청/세종/제주,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학계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6 대학 전공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경상계열 제외)	자연계열	경상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의/약학계열	사관학교, 경찰대	기타	무응답
전체		1,455	27.8	21.5	12.5	12.4	9.5	7.2	4.9	3.9	0.0	0.3	0.0
성별	남자	791	20.8	33.0	12.1	14.4	11.3	4.0	1.6	2.3	0.0	0.4	0.1
	여자	665	36.0	7.7	12.9	9.9	7.3	11.1	8.9	5.7	-	0.3	-
연령	만 15 ~ 18세	13	28.4	-	1.2	10.8	2.4	23.7	33.5	-	-	-	-
	만 19 ~ 29세	811	26.3	21.2	11.8	12.3	9.9	7.9	5.1	5.2	0.0	0.2	0.1
	만 30 ~ 39세	632	29.7	22.3	13.6	12.4	9.1	6.0	4.1	2.3	-	0.5	-
지역	서울	317	36.4	12.8	11.4	13.1	14.0	7.7	2.1	2.6	-	-	-
	인천 / 경기	395	23.9	18.7	11.7	10.2	9.6	10.2	11.2	4.5	0.0	-	-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24.4	23.9	11.5	14.9	10.4	5.6	3.5	5.2	-	0.6	-
	광주/전라/제주	146	20.3	21.3	18.8	7.8	7.8	12.6	3.3	6.4	-	1.2	0.5
	부산/울산/경남	239	27.7	31.4	14.9	14.2	6.5	2.0	1.4	1.6	-	0.2	-
	대구 / 경북	155	31.6	28.0	8.6	14.4	4.9	3.6	3.7	4.2	-	1.0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24.2	22.8	10.5	13.9	10.6	8.3	6.1	3.3	0.0	0.1	0.2
	고 졸 이 하	62	30.5	29.4	9.3	10.3	6.2	7.1	4.6	1.7	-	0.9	-
	대 졸 이 상	935	29.3	20.3	13.7	11.7	9.2	6.7	4.4	4.3	-	0.4	-
주거 형태	동거	879	26.0	22.0	12.4	12.5	9.8	7.3	5.4	4.1	0.0	0.4	0.1
	비 동 거 / 독 립	576	30.4	20.7	12.6	12.1	9.0	7.1	4.2	3.6	-	0.3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2) 대학 학점 평균

- 응답자의 대학 학점 평균에 대해 상위 40% 이내라는 응답이 49.6%, 상위 60% 이내라는 응답이 37.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정보다는 여성의 경우 상위 20% 이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성적이 상위 20% 이내라는 응답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7 대학 학점 평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위 2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60% 이내	하위 40% 이내	하위 20% 이내
전		체 1,455	8.0	49.6	37.2	4.5	0.7
성별	남 자	791	6.0	49.4	38.7	5.3	0.6
	여 자	665	10.4	49.8	35.5	3.6	0.7
연령	만 15 ~ 18 세	13	-	25.5	73.3	1.2	-
	만 19 ~ 29 세	811	6.8	50.4	38.0	4.0	0.9
	만 30 ~ 39 세	632	9.7	49.0	35.6	5.3	0.4
지역	서울	317	5.9	56.6	33.4	3.5	0.6
	인천 / 경기	395	6.6	51.6	34.9	6.0	0.9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10.8	44.1	42.3	2.1	0.6
	광주/전라/제주	146	9.3	39.6	40.6	10.3	0.2
	부산/울산/경남	239	7.3	50.6	38.7	3.2	0.2
	대구 / 경북	155	12.0	45.0	38.9	2.7	1.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5.2	49.5	39.2	5.2	0.8
	고 졸 이 하	62	-	10.3	55.1	29.1	5.5
	대 졸 이 상	935	9.9	52.2	35.1	2.6	0.2
주거 형태	동 거	879	7.7	49.8	37.1	4.6	0.9
	비 동 거 / 독 립	576	8.5	49.2	37.5	4.5	0.3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3)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에 대해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관련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16.9%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영어 및 전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 및 전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전공의 경우 인천/경기 지역에서 사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8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공 공부 (받음 %)	영어 (받음 %)	제2외국어 (영어 제외) (받음 %)	여타 취업 준비 (받음 %)
전	체	1,455	16.9	34.7	11.5	13.5
	남	791	15.2	33.2	10.2	13.0
	여	665	18.9	36.4	12.9	14.0
연령	만 15 ~ 18세	13	28.1	53.9	9.9	9.9
	만 19 ~ 29세	811	17.5	35.8	12.3	12.0
	만 30 ~ 39세	632	15.9	32.8	10.4	15.4
지역	서울	317	13.5	34.2	12.4	6.2
	인천 / 경기	395	24.4	37.4	18.8	18.2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14.8	42.1	2.0	11.9
	광주 / 전라 / 제주	146	17.2	27.8	11.7	17.6
	부산 / 울산 / 경남	239	15.5	35.7	9.9	13.7
	대구 / 경북	155	9.2	23.9	5.6	1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대학생 / 대학원생	458	14.5	36.5	10.1	9.6
	고 졸 이 하	62	8.5	18.6	12.4	3.6
	대 졸 이 상	935	18.6	34.8	12.1	16.0
주거 형태	동 거	879	15.7	37.8	12.3	13.5
	비 동 거 / 독 립	576	18.7	30.0	10.2	13.4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4)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92.1%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해외 유학 준비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4%로 특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의 해외 유학 준비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해외 유학 준비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9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455	7.9	92.1
	자			
성별	남	791	7.6	92.4
	여	665	8.3	91.7
연령	만 15 ~ 18 세	13	-	100.0
	만 19 ~ 29 세	811	8.8	91.2
	만 30 ~ 39 세	632	6.9	93.1
지역	서 울	317	13.4	86.6
	인 천 / 경 기	395	6.6	93.4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6.0	94.0
	광주/전라/제주	146	4.3	95.7
	부산/울산/경남	239	8.5	91.5
	대구 / 경 북	155	5.0	95.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7.8	92.2
	고 졸 이 하	62	2.2	97.8
	대 졸 이 상	935	8.3	91.7
주거 형태	동 거	879	8.5	91.5
	비 동 거 / 독 립	576	7.0	93.0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4-1) 실제 해외유학 경험

- 실제 해외유학 경험에 대해 52.2%가 유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유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해외유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의 해외유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해외유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0 실제 해외유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15	52.2	47.8
	자	60	46.9	53.1
성별	여	55	58.0	42.0
연령	만 15 ~ 18 세	-	-	-
	만 19 ~ 29 세	71	46.8	53.2
	만 30 ~ 39 세	44	61.1	38.9
지역	서울	43	38.9	61.1
	인천 / 경기	26	71.1	28.9
	대전/충청/세종/강원	12	59.6	40.4
	광주/전라/제주	6	38.1	61.9
	부산/울산/경남	20	50.5	49.5
	대구 / 경북	8	65.6	34.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36	43.7	56.3
	고 졸 이 하	1	100.0	-
	대 졸 이 상	78	55.3	44.7
주거 형태	동 거	75	57.6	42.4
	비 동 거 / 독 립	40	42.2	57.8

주) 해외유학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5)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에 대해 51.5%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48.5%가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능력시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영어능력시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1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1,455	48.5	51.5
성별	남	791	49.6	50.4
	여	665	47.3	52.7
연령	만 15 ~ 18 세	13	9.8	90.2
	만 19 ~ 29 세	811	47.5	52.5
	만 30 ~ 39 세	632	50.7	49.3
지역	서울	317	61.3	38.7
	인천 / 경기	395	57.9	42.1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42.4	57.6
	광주/전라/제주	146	24.6	75.4
	부산/울산/경남	239	39.9	60.1
	대구 / 경북	155	42.4	57.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41.9	58.1
	고 졸 이 하	62	25.7	74.3
	대 졸 이 상	935	53.3	46.7
주거 형태	동	879	48.7	51.3
	비 동 거 / 독 립	576	48.3	51.7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5-1)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에 대해 상위 40% 이내라는 응답이 41.6%, 상위 60% 이내라는 응답이 42.1%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영어 실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상대적으로 영어실력이 높게 나타남.

표 II-32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위 2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60% 이내	하위 40% 이내	하위 20% 이내
전	체	706	8.2	41.6	42.1	6.6	1.4
	남 자	392	6.9	38.6	46.0	6.5	1.9
	여 자	314	9.8	45.4	37.2	6.8	0.8
연령	만 15 ~ 18 세	1	-	-	56.6	43.4	-
	만 19 ~ 29 세	385	8.1	40.5	43.2	6.2	2.0
	만 30 ~ 39 세	320	8.4	43.1	40.7	7.0	0.7
지역	서 울	194	9.6	41.4	42.3	5.5	1.3
	인 천 / 경 기	229	8.2	49.5	33.0	8.4	0.9
	대전/충청/세종/강원	86	4.7	43.1	43.7	6.5	1.9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4.4	22.5	67.2	2.2	3.6
	부 산 / 울 산 / 경 남	95	6.2	39.2	48.4	4.3	1.8
	대 구 / 경 북	66	13.9	26.6	48.5	9.7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92	7.7	35.8	46.7	7.4	2.3
	고 졸 이 하	16	-	14.9	55.8	21.2	8.1
	대 졸 이 상	498	8.6	44.7	39.9	5.9	0.9
주거 형태	동 거	428	9.1	41.8	41.5	5.7	1.8
	비 동 거 / 독 립	279	6.8	41.4	43.0	8.0	0.8

주) 영어능력시험을 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6)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56.2%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43.8%가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봉사활동 경험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 비동거/독립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3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455	56.2	43.8
	남 자	791	53.3	46.7
	여 자	665	59.6	40.4
연령	만 15 ~ 18 세	13	34.5	65.5
	만 19 ~ 29 세	811	52.9	47.1
	만 30 ~ 39 세	632	60.7	39.3
지역	서 울	317	55.4	44.6
	인 천 / 경 기	395	58.8	41.2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53.6	46.4
	광주/전라/제주	146	42.4	57.6
	부산/울산/경남	239	61.1	38.9
	대구 / 경 북	155	59.6	4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49.2	50.8
	고 졸 이 하	62	33.6	66.4
	대 졸 이 상	935	61.1	38.9
주거 형태	동 거	879	52.9	47.1
	비 동 거 / 독 립	576	61.2	38.8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7) 대학 시절 인턴 경험

- 대학 시절 인턴 경험에 대해 82.8%가 인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인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인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에서 인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대학 시절 인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455	17.2	82.8
	자	791	16.6	83.4
성별	여	665	17.8	82.2
연령	만 15 ~ 18 세	13	-	100.0
	만 19 ~ 29 세	811	15.3	84.7
	만 30 ~ 39 세	632	20.0	80.0
지역	서울	317	13.5	86.5
	인천 / 경기	395	24.0	76.0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16.4	83.6
	광주/전라/제주	146	12.2	87.8
	부산/울산/경남	239	10.8	89.2
	대구 / 경북	155	22.7	77.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9.5	90.5
	고 졸 이 하	62	18.2	81.8
	대 졸 이 상	935	20.8	79.2
주거 형태	동 거	879	15.6	84.4
	비 동 거 / 독 립	576	19.6	80.4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8)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경험

-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경험에 대해 69.7%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30.3%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출경험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에서 대출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5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대출 받았음	학자금 대출 받지 않음
전	체	1,455	30.3	69.7
	자			
성별	남	791	32.7	67.3
	여	665	27.5	72.5
연령	만 15 ~ 18 세	13	-	100.0
	만 19 ~ 29 세	811	29.7	70.3
	만 30 ~ 39 세	632	31.7	68.3
지역	서 울	317	42.2	57.8
	인 천 / 경 기	395	31.5	68.5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19.5	80.5
	광 주 / 전 라 / 제 주	146	24.4	75.6
	부 산 / 울 산 / 경 남	239	22.7	77.3
	대 구 / 경 북	155	34.6	65.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25.8	74.2
	고 졸 이 하	62	25.1	74.9
	대 졸 이 상	935	32.9	67.1
주거 형태	동 거	879	29.0	71.0
	비 동 거 / 독 립	576	32.3	67.7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8-1)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

-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에 대해 63.3%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응답했으며, ‘제1금융권’이 24.3%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부모 또는 친지/직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제1금융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제1금융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6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한국장학 재단	제1금융 권 (은행, 농협 등)	부모 또는 친지 직장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3 금융권 (사채업 등)	본인 직장	모름/ 무응답
전	체	441	63.3	24.3	10.7	1.0	0.3	0.2	0.2
	남 자	258	66.8	23.4	8.5	1.1	—	0.1	—
	여 자	183	58.4	25.5	13.8	0.7	0.8	0.3	0.4
연령	만 15 ~ 18 세	—	—	—	—	—	—	—	—
	만 19 ~ 29 세	241	68.9	18.4	12.0	0.4	—	—	0.3
	만 30 ~ 39 세	200	56.6	31.4	9.2	1.6	0.8	0.5	—
지역	서울	134	77.4	13.8	8.1	0.7	—	—	—
	인천 / 경기	124	46.7	33.1	18.6	1.6	—	—	—
	대전/충청/세종/강원	40	72.9	12.6	11.1	1.9	—	1.5	—
	광주/전라/제주	36	44.4	39.9	6.8	1.6	4.3	0.9	2.2
	부산/울산/경남	54	62.2	35.0	2.8	—	—	—	—
	대구 / 경북	53	73.3	17.4	9.3	—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118	77.4	12.9	9.1	—	—	—	0.6
	고 졸 이 하	16	53.6	31.1	9.5	5.8	—	—	—
	대 졸 이 상	307	58.4	28.3	11.4	1.1	0.5	0.3	—
주거 형태	동 거	255	66.7	21.4	11.1	0.4	—	0.1	0.3
	비 동 거 / 독 립	186	58.7	28.2	10.2	1.8	0.8	0.3	—

주)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9)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 78.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7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455	78.5	21.5
	자	791	80.3	19.7
성별	여	665	76.3	23.7
	자			
연령	만 15 ~ 18 세	13	17.4	82.6
	만 19 ~ 29 세	811	78.2	21.8
	만 30 ~ 39 세	632	80.1	19.9
지역	서 울	317	81.7	18.3
	인 천 / 경 기	395	82.8	17.2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77.3	22.7
	광 주 / 전 라 / 제 주	146	70.0	30.0
	부 산 / 울 산 / 경 남	239	75.8	24.2
	대 구 / 경 북	155	74.6	25.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74.3	25.7
	고 졸 이 하	62	71.2	28.8
	대 졸 이 상	935	81.0	19.0
주거 형태	동 거	879	77.0	23.0
	비 동 거 / 독 립	576	80.7	19.3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9-1)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에 대해 62.9%는 '생활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으며, '학비를 벌려고'(20.7%)가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학비를 벌려고'라는 이유가, 여성은 '사회경험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비를 벌려고'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학비를 벌려고'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남.

표 II-38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활비 (용돈)가 필요 해서	학비를 벌려고	사회 경험을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주위 친구 들이 하니까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독립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 려고	주위 (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전		체 1,142	62.9	20.7	8.0	3.4	1.7	1.6	1.2	0.6
성별	남 자	635	63.1	23.0	6.0	1.9	1.2	2.7	1.0	1.0
	여 자	507	62.5	17.7	10.6	5.2	2.3	0.2	1.6	-
연령	만 15 ~ 18 세	2	54.9	31.9	-	13.2	-	-	-	-
	만 19 ~ 29 세	634	66.7	15.5	8.3	3.4	2.2	2.1	1.4	0.5
	만 30 ~ 39 세	506	58.1	27.2	7.7	3.2	1.2	0.9	1.1	0.7
지역	서 울	259	63.3	17.6	14.4	1.2	1.2	0.5	1.4	0.4
	인 천 / 경 기	327	57.1	19.7	6.2	8.0	4.0	1.3	2.4	1.4
	대전/충청/세종/강원	158	74.4	16.3	5.6	2.8	-	-	0.1	0.7
	광 주 / 전 라 / 제 주	102	64.3	22.4	7.8	3.3	0.3	0.8	1.2	-
	부 산 / 울 산 / 경 남	181	64.9	27.6	5.3	0.2	0.9	0.7	0.3	-
	대 구 / 경 북	115	57.8	23.8	6.7	0.9	1.3	8.7	0.7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341	71.7	12.9	8.5	1.7	2.3	1.8	0.2	1.0
	고 졸 이 하	44	46.3	18.4	11.5	-	-	17.5	6.3	-
	대 졸 이 상	758	59.8	24.3	7.6	4.3	1.5	0.5	1.4	0.4
주거 형태	동 거	677	66.5	17.9	7.4	3.3	2.0	1.2	1.4	0.5
	비 동 거 / 독 립	465	57.6	24.7	9.0	3.5	1.3	2.0	1.1	0.7

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30) 대학원 진학 여부

- 대학원 진학여부에 대해 97.6%가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9 대학원 진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455	2.4	97.6
	남 자	791	2.8	97.2
	여 자	665	1.9	98.1
연령	만 15 ~ 18 세	13	-	100.0
	만 19 ~ 29 세	811	2.0	98.0
	만 30 ~ 39 세	632	2.9	97.1
지역	서 울	317	3.0	97.0
	인 천 / 경 기	395	3.0	97.0
	대전/충청/세종/강원	204	2.3	97.7
	광 주 / 전 라 / 제 주	146	2.3	97.7
	부 산 / 울 산 / 경 남	239	2.2	97.8
	대 구 / 경 북	155	0.2	99.8
	중 / 고 등 학 생	-	-	-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58	2.8	97.2
	고 졸 이 하	62	-	100.0
	대 졸 이 상	935	2.3	97.7
주거 형태	동 거	879	2.1	97.9
	비 동 거 / 독 립	576	2.8	97.2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30-1) 대학원 진학 사유

- 대학원 진학 사유에 대해 ‘학력 상승을 위해’라는 응답이 37.3%,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1.4%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학력 상승을 위해’라는 응답이, 여성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는 ‘학력 상승을 위해’라는 응답이, 만 30~39세는 ‘학력 상승을 위해’ 및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0 대학원 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력 상승을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학벌 상승을 위해 (지명도 있는 대학)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취업이 안 돼서
전		체 35	37.3	21.4	18.6	16.5	3.1	1.7	1.4
성별	남	자 22	48.8	18.0	7.4	16.2	4.8	2.7	2.2
	여	자 13	17.0	27.4	38.5	17.0	—	—	—
연령	만 15 ~ 18 세	—	—	—	—	—	—	—	—
	만 19 ~ 29 세	16	39.6	9.8	26.1	23.8	0.7	—	—
	만 30 ~ 39 세	19	35.3	31.6	12.0	10.0	5.2	3.2	2.6
지역	서 울	10	38.2	32.1	13.4	—	10.0	6.2	—
	인 천 / 경 기	12	42.1	13.4	9.9	33.7	0.9	—	—
	대전/충청/세종/강원	5	19.6	45.8	26.2	8.4	—	—	—
	광 주 / 전 라 / 제 주	3	65.0	20.0	—	—	—	—	15.0
	부 산 / 울 산 / 경 남	5	20.2	—	53.9	25.9	—	—	—
	대 구 / 경 북	—	100.0	—	—	—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13	50.7	1.9	27.9	19.5	—	—	—
	고 졸 이 하	—	—	—	—	—	—	—	—
	대 졸 이 상	22	29.4	32.9	13.2	14.7	4.9	2.7	2.2
주거 형태	동 거	19	23.9	19.7	26.0	30.5	—	—	—
	비 동 거 / 독 립	16	53.2	23.4	10.0	—	6.7	3.7	3.1

주)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30-2) 대학원 진학 의향

- 대학원 진학 의향에 대해 92.6%는 진학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학원 진학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대학원 진학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대학원 진학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대학원 진학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1 대학원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420	7.4	92.6
성별	남 자	768	6.5	93.5
	여 자	652	8.5	91.5
연령	만 15 ~ 18 세	13	9.9	90.1
	만 19 ~ 29 세	794	10.9	89.1
	만 30 ~ 39 세	613	2.7	97.3
지역	서 울	307	7.8	92.2
	인 천 / 경 기	383	10.4	89.6
	대전/충청/세종/강원	199	7.2	92.8
	광 주 / 전 라 / 제 주	142	6.8	93.2
	부 산 / 울 산 / 경 남	233	3.0	97.0
	대 구 / 경 북	155	6.4	93.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445	15.2	84.8
	고 졸 이 하	62	-	100.0
	대 졸 이 상	913	4.1	95.9
주거 형태	동 거	860	9.4	90.6
	비 동 거 / 독 립	560	4.3	95.7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학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문31) 대학 미진학 사유

- 대학 미진학 사유에 대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II-42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기타
전	체	737	31.3	24.4	22.6	17.4	2.8	0.6	1.0
	남 자	343	30.9	25.9	16.1	22.2	3.4	1.2	0.2
	여 자	394	31.6	23.0	28.2	13.2	2.3	—	1.7
연령	만 15 ~ 18 세	8	67.1	—	—	32.9	—	—	—
	만 19 ~ 29 세	262	29.1	28.7	15.7	21.7	2.9	0.6	1.3
	만 30 ~ 39 세	467	31.9	22.3	26.8	14.7	2.8	0.5	0.9
지역	서울	150	36.9	21.5	20.7	20.5	0.5	—	—
	인천 / 경기	294	26.8	24.3	20.2	22.4	5.5	—	0.9
	대전/충청/세종/강원	79	41.7	21.1	22.6	9.0	1.8	3.2	0.8
	광주/전라/제주	76	27.6	39.1	21.9	6.1	0.5	2.1	2.8
	부산/울산/경남	91	34.9	16.0	32.0	14.9	0.9	—	1.3
	대구 / 경북	46	23.4	31.6	26.8	13.2	2.7	—	2.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	—	—	—	—	—	—	—
	고 졸 이 하	737	31.3	24.4	22.6	17.4	2.8	0.6	1.0
	대 졸 이 상	—	—	—	—	—	—	—	—
주거 형태	동 거	306	29.9	26.9	15.2	23.8	2.5	1.2	0.4
	비 동 거 / 독 립	431	32.3	22.6	27.8	12.8	3.0	0.1	1.5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현재 중/고생인 경우는 응답하지 않음)

문32)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대해 63.4%는 진학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36.6%는 진학하겠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진학 의향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진학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광주/전라/제주에서 진학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보다는 동거에서 진학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4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79	36.6	63.4
	자	525	38.8	61.2
성별	여	554	34.6	65.4
연령	만 15 ~ 18 세	350	90.4	9.6
	만 19 ~ 29 세	262	22.0	78.0
	만 30 ~ 39 세	467	4.5	95.5
지역	서울	210	33.3	66.7
	인천 / 경기	399	31.0	69.0
	대전/충청/세종/강원	124	46.1	53.9
	광주 / 전라 / 제주	121	42.5	57.5
	부산 / 울산 / 경남	143	38.1	61.9
	대구 / 경북	82	46.6	53.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91.8	8.2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	-	-
	고 졸 이 하	737	11.0	89.0
	대 졸 이 상	-	-	-
주거 형태	동 거	646	56.7	43.3
	비 동 거 / 독 립	433	6.6	93.4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문33)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급여가 높은 회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라는 응답이만 30~39세에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 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안정적인 회사’와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간 응답차이가 크지 않으나, 비동거/독립에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정 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발전 가능성 이 높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31.0	25.6	18.3	10.5	8.8	2.9	2.7	0.1	0.0	
성별	남	자 1,315	30.5	24.3	20.3	11.5	8.6	2.6	2.2	0.1	0.0	
	여	자 1,219	31.4	27.1	16.2	9.5	9.1	3.2	3.2	0.2	-	
연령	만 1 5 ~ 1 8 세		363	30.5	27.0	16.9	10.0	7.9	5.3	2.2	0.2	-
	만 1 9 ~ 2 9 세		1,073	26.5	28.4	17.9	11.0	10.6	2.9	2.8	0.1	-
	만 3 0 ~ 3 9 세		1,098	35.5	22.5	19.3	10.3	7.4	2.1	2.8	0.2	0.0
지역	서 울		527	27.8	29.5	17.1	10.0	7.3	4.7	3.3	0.3	-
	인 천 / 경 기		794	25.6	28.1	20.1	13.5	7.1	2.2	3.3	0.1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6.5	30.9	15.6	6.4	16.5	1.6	2.3	0.2	-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9.6	33.1	15.2	9.8	8.9	0.6	2.7	-	0.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45.8	11.4	24.3	7.7	6.2	3.6	1.1	-	-
	대 구 / 경 북		237	39.8	16.1	12.8	13.0	11.4	4.3	2.3	0.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30.1	26.1	17.8	9.7	8.4	5.2	2.4	0.2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26.3	28.3	18.1	12.6	8.8	3.8	2.0	-	-	
고 졸 이 하		799	31.9	23.6	21.1	8.0	9.6	2.3	3.3	0.2	-	
대 졸 이 상		935	32.7	25.8	16.3	12.0	8.3	2.0	2.6	0.1	0.0	
주거 형태	동 거		1,525	28.6	27.2	18.3	10.4	8.9	3.4	3.0	0.1	-
	비 동 거 / 독 립		1,009	34.5	23.2	18.4	10.8	8.7	2.1	2.2	0.2	0.0

문34)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개인능력’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이 20.2%로 뒤를 이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개인능력’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도 ‘개인능력’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개인능력’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45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개인 능력	전공	학벌 (출신 학교 의 명성)	자격 증	인성	외모	어학 점수	가족 배경	인턴 (아르 바이트) 경험	수상 경력	기타	모름 / 무응 답
전	체	2,534	39.3	20.2	12.6	11.0	10.0	2.6	1.3	1.2	1.0	0.6	0.1	0.1
	남	1,315	39.0	20.9	13.5	11.6	9.9	1.3	1.5	0.8	0.6	0.7	0.1	0.1
	여	1,219	39.6	19.5	11.6	10.4	10.2	3.9	1.1	1.5	1.5	0.5	0.1	-
연령	만 15 ~ 18 세	363	33.8	29.8	12.8	10.1	7.6	1.8	1.9	0.3	1.4	0.4	0.2	-
	만 19 ~ 29 세	1,073	37.1	21.7	11.9	11.4	10.5	2.3	1.7	0.9	1.5	0.8	0.1	0.2
	만 30 ~ 39 세	1,098	43.1	15.6	13.2	11.0	10.4	3.1	0.8	1.7	0.5	0.5	0.1	-
지역	서울	527	40.8	26.9	10.2	10.2	6.9	1.7	1.5	1.1	0.4	0.3	-	-
	인천 / 경기	794	37.1	20.5	14.4	15.8	4.9	2.6	0.9	1.3	1.2	1.0	0.0	0.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9.0	18.3	12.1	8.0	18.6	1.3	0.8	0.4	0.5	0.7	0.3	-
	광주/전라/제주	267	48.6	13.3	5.8	8.0	15.0	3.4	2.6	0.5	2.3	-	0.5	-
	부산/울산/경남	382	35.1	17.7	17.3	10.6	10.6	4.3	0.1	2.7	0.8	0.7	-	-
	대구 / 경북	237	39.5	19.0	12.6	4.9	15.9	2.8	3.5	0.3	1.4	0.2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34.5	29.4	13.4	8.7	7.7	1.9	2.1	0.3	1.5	0.4	0.2	-
	대학생/대학원생	458	31.4	25.8	15.9	9.2	10.4	1.6	2.7	0.5	1.6	0.9	-	-
	고 졸 이 하	799	48.1	6.5	10.5	14.4	12.0	4.0	0.3	2.4	0.6	0.9	0.1	0.2
	대 졸 이 상	935	37.3	25.8	12.5	9.9	9.1	2.1	1.2	0.8	0.9	0.3	0.1	-
주거 형태	동 거	1,525	36.9	21.8	13.4	11.1	9.4	2.2	2.1	0.7	1.2	0.9	0.1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42.8	17.8	11.3	10.9	11.0	3.2	0.2	1.9	0.8	0.2	0.1	-

문35)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에 대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났으며,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8.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에서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6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약화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2,534	18.3	39.1	42.6	0.1
	자	1,315	20.2	36.5	43.2	0.1
성별	여	1,219	16.3	41.8	41.9	-
	자	1,219	16.3	41.8	41.9	-
연령	만 15 ~ 18 세	363	17.0	30.4	52.6	-
	만 19 ~ 29 세	1,073	19.3	40.1	40.5	0.2
	만 30 ~ 39 세	1,098	17.8	41.0	41.3	-
지역	서울	527	16.3	57.0	26.6	-
	인천 / 경기	794	18.7	38.9	42.1	0.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2.5	36.1	51.4	-
	광주/전라/제주	267	14.7	26.8	58.6	-
	부산/울산/경남	382	24.5	31.9	43.6	-
	대구 / 경북	237	23.3	29.4	47.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6.8	28.6	54.6	-
	대학생/대학원생	458	18.4	38.7	42.9	-
	고 졸 이 하	799	18.9	42.8	38.1	0.2
	대 졸 이 상	935	18.3	39.9	41.8	-
주거 형태	동 거	1,525	18.5	37.0	44.4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18.0	42.3	39.7	-

문36)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 2017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해 평균 7,585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최저 임금(7,668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높은 최저 임금(7,645원)을 예상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7,935원)을 예상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최저 임금도 높게 나타남.

표 II-47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전	체	2,534	7,584.7
성별	남 자	1,315	7,667.9
	여 자	1,219	7,494.8
연령	만 15 ~ 18 세	363	7,505.2
	만 19 ~ 29 세	1,073	7,549.9
	만 30 ~ 39 세	1,098	7,644.8
지역	서 울	527	7,369.1
	인 천 / 경 기	794	7,675.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7,935.2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7,774.6
	부 산 / 울 산 / 경남	382	7,284.0
	대 구 / 경 북	237	7,544.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7,535.1
	대학생/대학원생	458	7,508.4
	고 졸 이 하	799	7,598.4
	대 졸 이 상	935	7,628.4
주거 형태	동 거	1,525	7,564.3
	비 동 거 / 독 립	1,009	7,615.4

문37)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 지급에 대해 53.5%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9%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반대의견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

표 II-48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2,534	27.9	53.5	18.7
성별	남 자	1,315	30.7	51.6	17.7
	여 자	1,219	24.8	55.5	19.7
연령	만 15 ~ 18 세	363	40.6	29.0	30.4
	만 19 ~ 29 세	1,073	32.5	46.6	20.9
	만 30 ~ 39 세	1,098	19.2	68.3	12.6
지역	서울	527	20.9	61.2	17.9
	인천 / 경기	794	30.8	53.7	15.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3.2	47.8	19.0
	광주/전라/제주	267	31.4	44.6	24.0
	부산/울산/경남	382	23.5	58.7	17.8
	대구 / 경북	237	29.4	44.9	25.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0.7	28.0	31.3
	대학생/대학원생	458	35.5	42.6	21.9
	고 졸 이 하	799	24.2	60.2	15.6
	대 졸 이 상	935	22.6	62.3	15.0
주거 형태	동 거	1,525	33.7	45.2	21.2
	비 동 거 / 독 립	1,009	19.1	66.0	14.9

문38) 소비생활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

- 소비생활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에 대해 ‘식료품비’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 ‘외식비’가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교통/통신비’가, 여성은 ‘교육비’ 및 ‘의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외식비’와 ‘의류비’가 만 30~39세에서는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교통/통신비’, ‘외식비’가, 비동거/독립에서는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49 소비생활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식료 품비	교통· 통신비 (차량 유지비 포함)	외식 비	교육 비	주거 비	의류 비	문화 여가 비	보건 의료 비	경조 사비	연료비 (전기 · 가스 등)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24.8	16.5	16.3	12.9	9.6	9.4	9.1	0.6	0.4	0.2	0.1	0.1
성별	남	자	1,315	22.7	20.0	18.8	11.3	9.9	4.7	11.4	0.3	0.5	0.2	0.2	—
	여	자	1,219	27.2	12.8	13.7	14.6	9.2	14.4	6.6	0.9	0.3	0.2	0.0	0.1
연령	만 1 5 ~ 1 8 세	363	20.9	14.4	14.9	25.4	0.5	8.9	14.5	0.1	—	0.1	—	—	0.4
	만 1 9 ~ 2 9 세	1,073	18.4	20.0	18.9	9.9	4.8	14.9	12.1	0.8	0.1	0.1	0.0	0.0	0.0
	만 3 0 ~ 3 9 세	1,098	32.4	13.8	14.3	11.7	17.2	4.1	4.4	0.6	0.9	0.4	0.2	—	—
지역	서	울	527	16.1	16.9	15.8	15.7	18.2	7.1	9.2	0.1	0.3	0.4	—	0.2
	인 천 / 경 기	794	23.5	17.6	17.2	11.4	10.8	10.5	7.3	0.8	0.8	—	0.0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5.3	25.4	15.0	9.4	5.1	8.4	9.8	0.1	0.5	0.8	0.1	—	—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32.1	9.2	10.0	15.7	5.6	12.6	11.2	2.6	0.2	—	0.9	—	—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33.3	11.4	21.7	11.4	3.3	11.1	7.2	0.3	0.1	0.2	—	—	—
	대 구 / 경 북	237	26.4	16.2	14.7	15.8	7.1	5.2	14.4	0.2	—	—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1.7	13.2	13.9	26.3	0.3	9.2	15.3	0.2	—	0.1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17.1	18.0	21.3	18.0	1.2	10.3	13.3	0.6	—	—	—	—	0.3
	고 졸 이 하	799	28.9	13.7	14.9	10.6	14.3	9.3	6.5	0.8	0.6	0.3	0.0	—	—
	대 졸 이 상	935	26.4	19.5	16.0	7.4	13.0	9.0	7.0	0.6	0.6	0.3	0.3	0.0	0.0
주거 형태	동	거	1,525	17.3	21.0	19.6	13.0	2.1	12.9	12.8	0.9	0.2	0.1	0.0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36.3	9.7	11.3	12.7	20.8	4.0	3.5	0.2	0.8	0.4	0.2	—	—

문39)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에 대해 ‘문화여가비’가 46.1%로 나타났으며, ‘의류비’가 14.6%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의류비’와 ‘교육비’가, 남성은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의류비’가, 만 30~39세에서는 ‘교육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에서는 ‘교육비’가, 대졸이상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이 높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의류비’가, 비동거/독립에서는 ‘교육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50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문화 여가 비	의류 비	교육 비	외식 비	주거 비	식료 품비	교통· 통신비 (차량 유지비 포함)	보건 의료 비	경조 사비	연료비 (전기· 가스 등)	기타	모름 / 무응 답
전	체	2,534	46.1	14.6	9.1	7.6	7.4	7.1	6.8	0.5	0.2	0.1	0.4	0.2
	남	1,315	48.5	10.9	7.4	8.6	8.6	6.2	8.6	0.3	0.2	0.1	0.4	0.2
	여	1,219	43.5	18.6	10.9	6.6	6.1	8.2	4.9	0.7	0.1	0.0	0.4	0.1
연령	만 15 ~ 18 세	363	47.8	21.8	8.2	6.2	1.6	9.0	4.6	0.5	0.2	0.1	-	-
	만 19 ~ 29 세	1,073	47.4	19.0	4.3	7.6	5.4	5.9	8.8	0.4	0.2	0.1	0.8	0.2
	만 30 ~ 39 세	1,098	44.3	7.9	14.1	8.1	11.2	7.7	5.6	0.5	0.2	0.0	0.1	0.3
지역	서울	527	46.7	16.2	4.9	5.3	7.5	5.6	13.5	-	0.2	-	0.2	-
	인천 / 경기	794	51.3	9.9	11.4	6.3	8.5	6.0	5.8	0.5	0.1	-	0.2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52.2	15.9	9.8	3.4	5.7	5.2	5.9	1.0	0.2	0.3	0.3	0.2
	광주/전라/제주	267	35.1	17.3	12.2	8.1	9.9	8.7	4.1	1.8	0.2	0.4	0.8	1.5
	부산/울산/경남	382	35.5	23.8	5.3	16.3	5.4	8.8	4.6	-	0.3	-	-	-
	대구 / 경북	237	48.4	7.2	12.4	8.6	5.8	12.6	3.2	-	-	-	1.8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7.1	22.1	8.3	6.2	1.7	9.3	4.5	0.5	0.2	0.1	-	-
	대학생/대학원생	458	49.2	22.6	6.1	6.7	2.6	5.2	6.5	0.3	0.1	0.1	0.3	0.3
	고 졸 이 하	799	40.2	12.0	13.2	7.5	8.9	7.7	9.0	0.5	0.3	0.2	0.5	-
	대 졸 이 상	935	49.3	10.2	7.4	8.7	10.4	6.8	5.9	0.5	0.1	-	0.4	0.4
주거 형태	동 거	1,525	50.5	19.1	5.5	7.3	3.6	5.7	7.0	0.5	0.1	0.1	0.5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39.5	7.8	14.6	8.1	13.1	9.2	6.4	0.5	0.3	0.0	0.1	0.3

문40)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에 대해 '집'을 선택한 응답이 59.6%, '자동차'를 선택한 응답이 34.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자동차'를 여성은 '집'을 주로 선택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집'을 선택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만 19~29세에서는 '자동차'를 선택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은 '집'을 주로 선택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는 동거에 비해 '집'을 선택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51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	자동차	잘 모르겠다
전		체 2,534	59.6	34.3	6.2
성별	남	자 1,315	52.0	43.0	5.0
	여	자 1,219	67.7	24.9	7.4
연령	만 15 ~ 18 세	363	52.1	33.3	14.6
	만 19 ~ 29 세	1,073	51.0	42.9	6.1
	만 30 ~ 39 세	1,098	70.3	26.2	3.4
지역	서울	527	57.5	40.0	2.5
	인천 / 경기	794	56.6	35.8	7.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1.2	34.4	4.4
	광주 / 전라 / 제주	267	73.8	20.6	5.6
	부산 / 울산 / 경남	382	53.7	40.1	6.1
	대구 / 경북	237	65.2	22.1	1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2.4	32.7	14.9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46.5	46.3	7.2
	고 졸 이 하	799	63.2	31.8	5.0
	대 졸 이 상	935	65.5	31.1	3.4
주거 형태	동 거	1,525	52.0	40.2	7.8
	비 동 거 / 독 립	1,009	71.1	25.3	3.6

문41) 소득 및 주변 여건 고려 시, 계획적인 소비 정도

- 소득 및 주변 여건 고려 시, 계획적인 소비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계획적으로 소비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적인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계획적인 소비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계획적인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2 소득 및 주변 여건 고려 시, 계획적인 소비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0.7	15.8	43.9	36.7	3.0
	남	1,315	0.6	17.0	48.0	31.8	2.6
	여	1,219	0.7	14.5	39.4	41.9	3.5
연령	만 15 ~ 18 세	363	0.6	24.8	43.2	28.1	3.3
	만 19 ~ 29 세	1,073	1.0	15.3	45.5	35.8	2.4
	만 30 ~ 39 세	1,098	0.4	13.3	42.5	40.4	3.5
지역	서울	527	0.3	11.5	49.9	37.5	0.9
	인천 / 경기	794	0.4	14.7	40.5	38.4	6.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7	18.4	54.7	25.1	1.2
	광주 / 전라 / 제주	267	1.3	19.4	43.1	33.5	2.7
	부산 / 울산 / 경남	382	0.1	18.5	32.0	47.8	1.6
	대구 / 경북	237	2.7	17.3	46.8	30.7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6	24.1	42.8	29.0	3.5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1.4	15.6	49.5	32.3	1.3
	고 졸 이 하	799	0.4	14.6	45.7	36.5	2.7
	대 졸 이 상	935	0.6	13.9	39.9	41.7	3.9
주거 형태	동 거	1,525	0.9	18.1	44.7	33.8	2.5
	비 동 거 / 독 립	1,009	0.3	12.3	42.7	40.9	3.8

문42)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대해 79.8%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20.2%는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채무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응답이 동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3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2,192	20.2	79.8	0.1
	자	1,134	21.1	78.9	—
성별	여	1,059	19.1	80.7	0.1
	자	1,059	19.1	80.7	0.1
연령	만 15 ~ 18 세	21	—	93.2	6.8
	만 19 ~ 29 세	1,073	9.6	90.4	—
	만 30 ~ 39 세	1,098	30.9	69.1	—
지역	서울	467	17.1	82.7	0.3
	인천 / 경기	689	22.3	77.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17.3	82.7	—
	광주 / 전라 / 제주	222	27.0	73.0	—
	부산 / 울산 / 경남	329	13.5	86.5	—
	대구 / 경북	201	27.6	72.4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5.9	93.8	0.3
	고 졸 이 하	799	24.2	75.8	0.0
	대 졸 이 상	935	23.8	76.2	—
주거 형태	동 거	1,185	10.3	89.6	0.1
	비 동 거 / 독 립	1,007	31.8	68.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43)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대해 68.9%는 취업 의향이 있으며, 31.1%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4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34	68.9	31.1
성별	남	자 1,315	68.7	31.3
	여	자 1,219	69.1	30.9
연령	만 15 ~ 18 세	363	63.4	36.6
	만 19 ~ 29 세	1,073	73.4	26.6
	만 30 ~ 39 세	1,098	66.2	33.8
지역	서	울 527	63.6	36.4
	인 천 / 경 기	794	70.9	29.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1.1	38.9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60.1	39.9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87.5	12.5
	대 구 / 경 북	237	64.4	35.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62.5	37.5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70.7	29.3
	고 졸 이 하	799	72.8	27.2
	대 졸 이 상	935	66.9	33.1
주거 형태	동	거 1,525	70.3	29.7
	비 동 거 / 독 립	1,009	66.6	33.4

문43-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8.2%는 '고용불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낮은 급여수준'이 22.6%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낮은급여수준'을 여성은 '고용불안정'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5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불안정	낮은 급여 수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789	28.2	22.6	15.8	11.1	10.1	4.2	1.8	5.7	0.6
성별	남 자	412	25.9	26.2	16.0	11.7	11.8	3.1	1.4	3.6	0.3
	여 자	377	30.7	18.5	15.5	10.4	8.2	5.4	2.3	8.0	1.0
연령	만 15 ~ 18 세	133	20.4	28.6	4.3	22.0	12.5	-	3.4	7.4	1.3
	만 19 ~ 29 세	285	28.5	18.7	21.3	10.4	11.3	4.2	2.1	3.4	-
	만 30 ~ 39 세	372	30.7	23.3	15.6	7.7	8.2	5.7	1.0	6.8	0.9
지역	서울	192	34.4	18.3	10.8	20.2	9.9	2.8	2.0	1.5	-
	인천 / 경기	231	23.1	24.1	22.6	7.6	9.0	1.5	2.1	8.9	1.1
	대전/충청/세종/강원	127	23.4	21.8	16.4	9.8	11.4	7.8	3.7	5.8	-
	광주 / 전라 / 제주	107	22.0	30.7	18.4	5.4	8.9	6.2	0.5	6.3	1.6
	부산 / 울산 / 경남	48	35.9	13.8	12.4	19.8	15.6	1.9	0.7	-	-
	대구 / 경북	84	38.5	23.7	5.9	4.1	9.8	8.3	-	8.6	1.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28	18.4	29.6	4.4	22.8	12.3	-	3.3	7.7	1.3
	대학생 / 대학원생	134	33.9	19.6	15.0	8.6	14.8	4.0	3.6	0.5	-
	고 졸 이 하	217	25.9	22.4	18.1	11.8	5.6	8.1	0.4	6.4	1.1
	대 졸 이 상	310	31.3	21.0	19.1	6.8	10.2	3.3	1.4	6.6	0.3
주거 형태	동 거	453	28.1	22.5	13.8	13.9	11.8	2.7	2.4	4.3	0.5
	비 동 거 / 독 립	337	28.3	22.7	18.4	7.3	7.8	6.3	1.0	7.5	0.7

주)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문44) 창업 고려 여부

- 창업 고려 여부에 대해 70.6%는 창업을 고려하지 않으며, 29.4%는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창업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창업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 및 서울지역에서 창업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창업을 더 고려하고 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창업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6 창업 고려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34	29.4	70.6
성별	남	자 1,315	34.2	65.8
	여	자 1,219	24.2	75.8
연령	만 15 ~ 18 세	363	18.4	81.6
	만 19 ~ 29 세	1,073	27.8	72.2
	만 30 ~ 39 세	1,098	34.6	65.4
지역	서	울 527	30.4	69.6
	인 천 / 경 기	794	26.9	73.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9.7	70.3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38.2	61.8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27.4	72.6
	대 구 / 경 북	237	28.3	71.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9.4	80.6
	대 학생/대 학원생	458	24.0	76.0
	고 졸 이 하	799	37.4	62.6
	대 졸 이 상	935	28.8	71.2
주거 형태	동	거 1,525	26.2	73.8
	비 동 거 / 독 립	1,009	34.3	65.7

문44-1) 창업을 생각한 이유

- 창업을 생각한 이유에 대해 41.1%는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유사한 응답을 보이고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 및 대졸이상에서 유사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유사한 응답을 보임.

표 II-57 창업을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취업이 어려워서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으로 성공하기 위해	나의 전문 영역을 키우기 위해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인이 함께 창업 하자고 권유해서
전	체	745	41.1	15.6	12.1	9.9	9.3	6.9	3.5	1.6
성별	남	450	42.9	13.7	10.8	10.8	11.5	6.1	3.0	1.4
	여	294	38.4	18.7	14.0	8.5	6.0	8.1	4.4	1.9
연령	만 15 ~ 18 세	67	17.5	15.0	13.1	32.8	8.9	10.8	1.9	—
	만 19 ~ 29 세	298	33.0	18.8	15.7	11.3	11.9	5.8	2.3	1.2
	만 30 ~ 39 세	380	51.6	13.3	9.0	4.7	7.4	7.1	4.8	2.2
지역	서울	160	47.0	13.1	10.1	8.4	6.7	8.6	3.3	2.7
	인천 / 경기	214	33.4	13.8	11.6	13.2	11.6	9.3	4.5	2.7
	대전/충청/세종/강원	97	39.8	20.5	7.5	9.4	11.8	6.9	3.3	0.9
	광주 / 전라 / 제주	102	50.0	19.5	6.9	4.7	7.8	7.7	2.8	0.7
	부산 / 울산 / 경남	105	48.7	10.2	25.3	0.4	11.4	1.9	2.2	—
	대구 / 경북	67	27.9	23.3	12.1	26.2	4.0	1.6	4.5	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66	17.1	15.0	13.2	33.0	8.9	10.9	1.9	—
	대학생 / 대학원생	110	25.4	21.0	19.5	13.5	9.8	8.1	0.9	1.9
	고 졸 이 하	299	54.3	13.5	10.6	3.2	8.2	3.6	4.1	2.5
	대 졸 이 상	269	38.8	16.0	10.4	10.1	10.5	9.1	4.3	0.9
주거 형태	동	399	32.2	17.5	14.8	14.4	9.9	8.6	1.1	1.5
	비 동 거 / 독 립	346	51.4	13.5	8.9	4.6	8.7	5.0	6.3	1.7

주)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44-2)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

-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대해 79.7%는 창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창업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창업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창업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창업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8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		745	20.1	79.7	0.2
성별	남	450	21.1	78.6	0.4
	여	294	18.6	81.4	-
연령	만 15 ~ 18 세	67	4.5	95.5	-
	만 19 ~ 29 세	298	8.0	92.0	-
	만 30 ~ 39 세	380	32.3	67.2	0.5
지역	서울	160	13.7	86.3	-
	인천 / 경기	214	29.9	70.1	-
	대전/충청/세종/강원	97	15.0	85.0	-
	광주 / 전라 / 제주	102	22.7	75.5	1.7
	부산 / 울산 / 경남	105	15.8	84.2	-
	대구 / 경북	67	13.8	86.2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66	4.5	95.5	-
	대 학생 / 대 학원 생	110	0.7	99.3	-
	고 졸 이 하	299	26.1	73.3	0.6
	대 졸 이 상	269	25.2	74.8	-
주거 형태	동 거	399	11.7	88.3	-
	비 동 거 / 독 립	346	29.8	69.7	0.5

주)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4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대해 84.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 및 대학생/대학원생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9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534	15.2	84.8
성별	남	1,315	15.4	84.6
	여	1,219	14.9	85.1
연령	만 15 ~ 18 세	363	5.4	94.6
	만 19 ~ 29 세	1,073	16.0	84.0
	만 30 ~ 39 세	1,098	17.6	82.4
지역	서 울	527	10.2	89.8
	인 천 / 경 기	794	18.5	81.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8.4	81.6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8.7	81.3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7.9	92.1
	대 구 / 경 북	237	18.3	81.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7	94.3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12.4	87.6
	고 졸 이 하	799	6.6	93.4
	대 졸 이 상	935	27.3	72.7
주거 형태	동 거	1,525	13.5	86.5
	비 동 거 / 독 립	1,009	17.7	82.3

문45-1)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종류

-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종류에 대해 49.5%는 ‘공무원시험’을, 34.0%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0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무원 시험 (7급, 9급 등)	국가전문 자격시험	교원임용 고시	공단, 공사 시험	고시 (행정, 사법, 외무, 기술) 등	모름/ 무응답
전		384	49.5	34.0	8.9	6.0	1.4	0.3
성별	남	202	56.3	29.5	5.9	7.1	1.1	-
	여	182	41.9	38.9	12.3	4.7	1.7	0.5
연령	만 15 ~ 18 세	19	23.1	74.4	-	2.5	-	-
	만 19 ~ 29 세	171	54.9	28.7	8.9	6.5	0.4	0.6
	만 30 ~ 39 세	193	47.3	34.6	9.9	5.9	2.4	-
지역	서울	54	71.6	12.1	8.2	8.1	-	-
	인천 / 경기	147	26.3	50.8	13.8	7.4	1.7	-
	대전/충청/세종/강원	60	65.3	22.6	3.2	5.0	3.9	-
	광주/전라/제주	50	64.6	25.3	3.8	6.3	-	-
	부산/울산/경남	30	38.5	49.4	4.1	3.2	1.4	3.3
	대구 / 경북	43	68.5	19.3	10.6	1.5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23.1	74.4	-	2.5	-	-
	대학생/대학원생	57	55.9	21.2	14.0	8.9	-	-
	고 졸 이 하	52	38.9	59.9	-	-	1.2	-
	대 졸 이 상	255	52.2	28.4	10.3	6.8	1.8	0.4
주거 형태	동	205	55.5	28.9	7.1	7.8	0.3	0.5
	비 동 거 / 독 립	179	42.5	39.9	11.0	3.9	2.6	-

주)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45-2)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

-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 62.3%는 합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합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합격했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합격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합격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61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		체 384	37.3	62.3	0.4
성별	남	자 202	34.5	64.8	0.8
	여	자 182	40.4	59.6	-
연령	만 15 ~ 18 세	19	47.5	52.5	-
	만 19 ~ 29 세	171	30.9	69.1	-
	만 30 ~ 39 세	193	41.9	57.3	0.8
지역	서	울 54	12.2	87.8	-
	인 천 / 경 기	147	49.3	49.7	1.1
	대전/충청/세종/강원	60	38.2	61.8	-
	광 주 / 전 라 / 제 주	50	49.1	50.9	-
	부 산 / 울 산 / 경 남	30	18.1	81.9	-
	대 구 / 경 북	43	26.4	73.6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47.5	52.5	-
	대 학생/대 학원생	57	11.0	89.0	-
	고 졸 이 하	52	56.9	43.1	-
	대 졸 이 상	255	38.3	61.1	0.6
주거 형태	동	거 205	30.2	69.1	0.8
	비 동 거 / 독 립	179	45.5	54.5	-

주)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46)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분야에 대해 '노동수요(일자리, 경제)'라는 응답이 83.1%로 나타났으며, '노동공급(개인, 교육)'이 16.9%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노동공급'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노동공급'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공급'분야가 중요하다고 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노동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II-6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전	체	2,192	16.9	83.1
	남 자	1,134	15.4	84.6
	여 자	1,059	18.6	81.4
연령	만 15 ~ 18 세	21	20.3	79.7
	만 19 ~ 29 세	1,073	16.7	83.3
	만 30 ~ 39 세	1,098	17.0	83.0
지역	서울	467	11.5	88.5
	인천 / 경기	689	22.4	77.6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13.5	86.5
	광주 / 전라 / 제주	222	12.6	87.4
	부산 / 울산 / 경남	329	16.7	83.3
	대구 / 경북	201	20.5	79.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14.8	85.2
	고 졸 이 하	799	15.6	84.4
	대 졸 이 상	935	19.1	80.9
주거 형태	동 거	1,185	15.2	84.8
	비 동 거 / 독 립	1,007	18.9	81.1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4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해 24.6%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강화’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를 강조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는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억제’를 강조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II-6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고학력 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 출억제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 량 수준 제고	독일이나 스위스식 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대기업과 공공부 문에 대 한 높은 선호도 (청년 눈높이 제고)	미취업 청소년 및 청 년 대 상 수 당, 배 당, 급 여 지 급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192	24.6	17.9	15.5	14.5	12.8	1.7	0.1	0.2
성별	남	자	1,134	26.7	15.7	16.3	13.5	11.8	1.5	0.1	0.3
	여	자	1,059	22.4	20.2	14.6	15.5	14.0	1.9	0.1	0.1
연령	만 15 ~ 18 세		21	23.9	16.6	8.9	15.3	9.1	26.2	—	—
	만 19 ~ 29 세		1,073	26.2	17.4	14.4	14.8	13.4	1.6	0.1	0.1
	만 30 ~ 39 세		1,098	23.1	18.4	16.7	14.1	12.4	1.3	0.1	0.3
지역	서울		467	32.1	15.1	14.0	10.1	13.4	0.7	—	—
	인천 / 경기		689	20.8	16.9	16.5	15.4	12.4	2.5	—	—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6.3	18.9	14.1	13.5	13.7	1.3	0.4	1.3
	광주/전라/제주		222	27.1	12.1	13.8	13.2	20.8	3.6	—	—
	부산/울산/경남		329	23.1	26.3	16.1	16.5	7.7	0.6	—	—
	대구 / 경북		201	17.6	18.6	18.2	20.9	11.7	1.4	0.5	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31.1	16.6	11.3	13.9	13.9	1.4	0.2	0.2
	고 졸 이 하		799	22.3	16.5	22.6	14.0	11.0	2.1	—	—
	대 졸 이 상		935	23.4	19.7	11.5	15.1	13.9	1.4	0.1	0.4
주거 형태	동 거		1,185	26.8	16.4	15.5	13.5	12.7	2.0	0.2	0.3
	비 동 거 / 독 립		1,007	22.0	19.6	15.5	15.6	13.0	1.3	—	0.1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48)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해 27.3%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라고 응답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청년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비동거/독립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6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 부문 채용 확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 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192	27.3	26.6	16.9	14.6	6.5	5.3	2.4	0.2	0.2
성별	남	자 1,134	29.9	26.9	15.5	15.5	5.1	4.9	1.5	0.3	0.4	
	여	자 1,059	24.5	26.3	18.5	13.5	8.0	5.8	3.3	-	-	
연령	만 1 5 ~ 1 8 세		21	10.5	34.7	8.6	44.6	-	1.6	-	-	-
	만 1 9 ~ 2 9 세		1,073	26.6	26.2	16.9	15.4	5.7	5.7	3.2	-	0.2
	만 3 0 ~ 3 9 세		1,098	28.4	26.9	17.1	13.2	7.4	5.0	1.5	0.4	0.2
지역	서 울		467	31.0	32.0	16.3	14.3	3.0	2.6	0.5	-	0.3
	인 천 / 경 기		689	28.0	24.6	17.1	11.4	8.5	6.9	3.5	-	-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22.8	31.0	20.9	10.2	5.9	5.6	1.9	1.4	0.2
	광 주 / 전 라 / 제 주		222	28.9	26.0	15.4	12.9	9.6	4.3	2.4	-	0.5
	부 산 / 울 산 / 경 남		329	22.6	17.0	15.8	28.6	6.7	6.3	2.9	-	-
	대 구 / 경 북		201	28.6	31.8	15.9	10.9	4.9	4.9	2.4	-	0.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27.6	27.3	16.2	16.4	5.4	4.8	2.2	-	-
	고 졸 이 하		799	27.0	29.2	15.2	12.8	7.7	6.2	1.7	-	0.2
	대 졸 이 상		935	27.4	24.2	18.7	15.2	6.1	4.7	3.0	0.4	0.2
주거 형태	동 거		1,185	25.3	27.0	16.5	14.9	6.4	6.9	2.5	0.3	0.2
	비 동 거 / 독 립		1,007	29.6	26.3	17.4	14.2	6.6	3.4	2.2	0.1	0.1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49)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 67.7%는 일했다고 응답했으며, 32.3%는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일한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일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192	67.7	32.3
성별	남	자 1,134	77.3	22.7
	여	자 1,059	57.4	42.6
연령	만 15 ~ 18 세	21	31.6	68.4
	만 19 ~ 29 세	1,073	59.7	40.3
	만 30 ~ 39 세	1,098	76.2	23.8
지역	서울	467	58.6	41.4
	인천 / 경기	689	76.4	23.6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75.6	24.4
	광주 / 전라 / 제주	222	68.8	31.2
	부산 / 울산 / 경남	329	62.1	37.9
	대구 / 경북	201	55.5	44.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31.9	68.1
	고 졸 이 하	799	74.1	25.9
	대 졸 이 상	935	79.8	20.2
주거 형태	동 거	1,185	63.2	36.8
	비 동 거 / 독 립	1,007	72.9	27.1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50) 지난 주 무급가족종사 여부

- 지난 주 무급가족종사 여부에 대해 98.9%는 아니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무급가족종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무급가족종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무급가족종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6 지난 주 무급가족종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	체	708	1.1	98.9	0.1
	남 자	257	0.4	99.3	0.2
	여 자	451	1.4	98.6	-
연령	만 15 ~ 18 세	14	-	100.0	-
	만 19 ~ 29 세	433	0.7	99.2	0.1
	만 30 ~ 39 세	262	1.8	98.2	-
지역	서 울	193	-	100.0	-
	인 천 / 경 기	163	0.4	99.6	-
	대전/충청/세종/강원	69	4.4	95.6	-
	광 주 / 전 라 / 제 주	69	1.6	98.4	-
	부 산 / 울 산 / 경 남	125	0.4	99.1	0.5
	대 구 / 경 북	89	2.5	97.5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생 / 대 학원 생	312	0.6	99.2	0.2
	고 졸 이 하	207	0.7	99.3	-
	대 졸 이 상	189	2.2	97.8	-
주거 형태	동 거	436	1.1	98.8	0.1
	비 동 거 / 독 립	273	1.1	98.9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문51) 지난 주 일시 휴직 여부

- 지난 주 일시 휴직여부에 대해 98.9%는 휴직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지난 주 일시 휴직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휴직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휴직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휴직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휴직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67 지난 주 일시 휴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00	1.1	98.9
	남 자	255	0.6	99.4
	여 자	445	1.4	98.6
연령	만 15 ~ 18 세	14	-	100.0
	만 19 ~ 29 세	429	1.0	99.0
	만 30 ~ 39 세	257	1.4	98.6
지역	서 울	193	0.8	99.2
	인 천 / 경 기	162	1.0	99.0
	대전/충청/세종/강원	66	1.5	98.5
	광 주 / 전 라 / 제 주	68	3.1	96.9
	부 산 / 울 산 / 경 남	124	-	100.0
	대 구 / 경 북	87	1.5	98.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대 학원생	310	0.5	99.5
	고 졸 이 하	206	0.7	99.3
	대 졸 이 상	185	2.4	97.6
주거 형태	동 거	431	0.8	99.2
	비 동 거 / 독 립	270	1.6	98.4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 주 일한 경험(수입 목적 혹은 무급가족 종사자)이 없는 경우만 응답

문52)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에 대해 90.5%는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구직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구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구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구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68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693	9.5	90.5
성별	남 자	254	13.0	87.0
	여 자	439	7.6	92.4
연령	만 15 ~ 18 세	14	5.0	95.0
	만 19 ~ 29 세	425	11.2	88.8
	만 30 ~ 39 세	253	7.0	93.0
지역	서 울	192	2.8	97.2
	인 천 / 경 기	161	12.0	88.0
	대전/충청/세종/강원	65	14.3	85.7
	광 주 / 전 라 / 제 주	66	13.7	86.3
	부 산 / 울 산 / 경 남	124	12.6	87.4
	대 구 / 경 북	86	8.9	91.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308	5.2	94.8
	고 졸 이 하	204	9.2	90.8
	대 졸 이 상	181	17.4	82.6
주거 형태	동 거	427	10.9	89.1
	비 동 거 / 독 립	265	7.4	92.6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52-1) 구직 시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여부

- 구직 시 지난 주 일 시작 가능여부에 대해 87.2%가 가능하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일 시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일 시작 가능하다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 반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일 시작 가능하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음.

표 II-69 구직 시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6	87.2	12.8
	남 자	33	86.2	13.8
	여 자	33	88.1	11.9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
	만 19 ~ 29 세	48	83.7	16.3
	만 30 ~ 39 세	18	96.2	3.8
지역	서 울	5	54.2	45.8
	인 천 / 경 기	19	94.0	6.0
	대전/충청/세종/강원	9	82.3	17.7
	광 주 / 전 라 / 제 주	9	81.0	19.0
	부 산 / 울 산 / 경 남	16	97.1	2.9
	대 구 / 경 북	8	85.7	14.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대 학원생	16	63.4	36.6
	고 졸 이 하	19	98.7	1.3
	대 졸 이 상	31	92.4	7.6
주거 형태	동 거	46	81.7	18.3
	비 동 거 / 독 립	20	100.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53)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에 대해 59.4%는 통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통학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통학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통학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통학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0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693	40.6	59.4
성별	남	254	60.0	40.0
	여	439	29.4	70.6
연령	만 15 ~ 18 세	14	81.8	18.2
	만 19 ~ 29 세	425	63.3	36.7
	만 30 ~ 39 세	253	0.2	99.8
지역	서 울	192	41.4	58.6
	인 천 / 경 기	161	41.7	58.3
	대전/충청/세종/강원	65	38.4	61.6
	광 주 / 전 라 / 제 주	66	24.7	75.3
	부 산 / 울 산 / 경 남	124	43.9	56.1
	대 구 / 경 북	86	46.1	5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308	91.4	8.6
	고 졸 이 하	204	-	100.0
	대 졸 이 상	181	-	100.0
주거 형태	동 거	427	62.8	37.2
	비 동 거 / 독 립	265	5.0	95.0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54)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에 대해 93.9%는 통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통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통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통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 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통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71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411	6.1	93.9
성별	남	102	14.8	85.2
	여	310	3.2	96.8
연령	만 15 ~ 18 세	3	-	100.0
	만 19 ~ 29 세	156	14.7	85.3
	만 30 ~ 39 세	253	0.8	99.2
지역	서울	112	5.9	94.1
	인천 / 경기	94	11.5	88.5
	대전/충청/세종/강원	40	7.7	92.3
	광주/전라/제주	50	4.9	95.1
	부산/울산/경남	69	1.2	98.8
	대구 / 경북	46	2.7	97.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27	-	100.0
	고 졸 이 하	204	7.8	92.2
	대 졸 이 상	181	5.1	94.9
주거 형태	동	159	14.9	85.1
	비 동 거 / 독 립	252	0.5	99.5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문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현재 종사하는 일의 직업 분류에 대해 30.5%는 '사무 종사자', 27.3%는 '서비스직 종사자'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사무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만 30~39세에서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대졸이상에서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7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직업 군인	모름/ 무응답
전		체 1,499	30.5	27.3	17.4	8.3	8.2	3.4	2.4	1.7	0.7	0.1	0.0
성별	남	자 879	25.8	24.3	18.6	12.3	7.9	5.3	2.7	2.0	1.0	0.1	-
	여	자 620	37.1	31.5	15.8	2.6	8.6	0.9	2.0	1.3	0.2	-	0.1
연령	만 15 ~ 18 세	7	-	100.0	-	-	-	-	-	-	-	-	-
	만 19 ~ 29 세	647	27.2	31.2	22.7	5.8	6.1	3.1	1.4	2.1	0.3	0.2	-
	만 30 ~ 39 세	845	33.2	23.8	13.6	10.3	9.8	3.8	3.2	1.3	1.0	-	0.1
지역	서 울	275	40.1	31.1	16.7	2.7	7.4	0.7	1.0	0.4	-	-	-
	인 천 / 경 기	529	26.3	26.5	17.2	6.4	14.1	4.5	2.7	1.7	0.2	0.2	-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34.9	25.1	17.8	7.9	2.6	4.4	2.5	2.8	1.9	-	-
	광 주 / 전 라 / 제 주	156	16.5	38.9	20.0	2.3	8.7	3.6	6.2	2.3	0.9	-	0.5
	부 산 / 울 산 / 경 남	205	33.5	16.5	21.5	20.6	0.5	3.7	0.8	1.6	1.3	-	-
	대 구 / 경 북	115	31.6	29.6	8.6	17.1	6.3	2.7	2.2	1.6	0.3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50	5.5	51.9	33.0	0.7	3.8	0.5	0.6	3.8	-	-	-
	고 졸 이 하	594	16.0	33.7	23.4	13.6	2.2	5.6	1.6	2.4	1.3	0.2	-
	대 졸 이 상	755	46.9	17.4	9.6	5.6	13.7	2.3	3.4	0.7	0.3	-	0.1
주거 형태	동 거	757	29.1	31.2	19.8	7.3	5.7	2.6	1.5	2.2	0.6	-	-
	비 동 거 / 독 립	742	31.9	23.3	15.0	9.3	10.7	4.3	3.3	1.2	0.8	0.2	0.1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에 대해 36.7%가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100~200만원 미만'이 30.8%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300만원 미만'이, 여성은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 비동거/독립에서는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7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1,499	8.7	30.8	36.7	17.5	3.7	2.5	0.1	223.7
성별	남	자 879	6.7	20.1	39.9	24.5	5.2	3.6	—	251.8
	여	자 620	11.7	45.9	32.3	7.4	1.7	0.9	0.2	183.9
연령	만 15 ~ 18세	7	100.0	—	—	—	—	—	—	31.7
	만 19 ~ 29세	647	16.3	44.5	32.2	5.8	0.4	0.6	0.2	172.8
	만 30 ~ 39세	845	2.2	20.5	40.5	26.6	6.3	4.0	—	264.2
지역	서울	275	6.2	17.7	42.5	23.1	6.3	4.2	—	255.7
	인천 / 경기	529	7.9	30.7	38.5	16.9	3.8	2.1	—	229.9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14.2	37.6	26.5	16.3	3.1	1.9	0.3	200.8
	광주 / 전라 / 제주	156	14.4	37.7	33.8	10.4	1.1	2.5	—	192.5
	부산 / 울산 / 경남	205	5.3	33.4	38.3	18.5	3.0	1.3	0.3	217.1
	대구 / 경북	115	6.6	35.5	35.3	16.4	3.1	3.0	—	216.6
학력	중 / 고등학생	—	—	—	—	—	—	—	—	—
	대학생 / 대학원생	150	60.7	32.3	5.8	0.3	—	0.5	0.4	90.5
	고졸 이하	594	3.8	39.6	40.4	10.9	2.8	2.5	—	215.1
	대졸 이상	755	2.3	23.6	39.9	26.0	5.2	2.9	0.1	256.9
주거 형태	동거	757	14.4	38.7	35.8	9.1	1.0	1.0	0.1	188.7
	비동거 / 독립	742	2.9	22.7	37.7	26.0	6.5	4.0	0.1	259.4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에 대해 89.5%는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서울지역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보다는 대졸이상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1,499	89.5	10.5
	성별	남 자	879	88.1	11.9
		여 자	620	91.4	8.6
연령	만 15 ~ 18 세		7	100.0	-
	만 19 ~ 29 세		647	94.2	5.8
	만 30 ~ 39 세		845	85.8	14.2
지역	서 울		275	91.2	8.8
	인 천 / 경 기		529	89.0	11.0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90.0	10.0
	광 주 / 전 라 / 제 주		156	84.8	15.2
	부 산 / 울 산 / 경 남		205	93.1	6.9
	대 구 / 경 북		115	86.3	1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50	95.5	4.5
	고 졸 이 하		594	85.1	14.9
	대 졸 이 상		755	91.7	8.3
주거 형태	동 거		757	93.2	6.8
	비 동 거 / 독 립		742	85.7	14.3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7-1)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근로형태(임금근로자)에 대해 75.0%는 정규직이고, 근로시간형태에 대해 83.9%는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정규직이며 전일제 근무형태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서울지역에서 정규직이며 전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이며 전일제 근무형태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II-75 근로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근로형태		근로시간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341	75.0	25.0	83.9	16.1
성별	남 자	775	76.4	23.6	85.3	14.7
	여 자	566	73.1	26.9	81.9	18.1
연령	만 15 ~ 18 세	7	-	100.0	-	100.0
	만 19 ~ 29 세	610	61.2	38.8	71.8	28.2
	만 30 ~ 39 세	725	87.3	12.7	94.8	5.2
지역	서울	251	84.3	15.7	89.8	10.2
	인천 / 경기	471	71.2	28.8	84.9	15.1
	대전/충청/세종/강원	196	63.7	36.3	71.3	28.7
	광주 / 전라 / 제주	132	71.9	28.1	80.4	19.6
	부산 / 울산 / 경남	191	80.0	20.0	85.6	14.4
	대구 / 경북	99	86.6	13.4	90.2	9.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43	10.2	89.8	16.3	83.7
	고 졸 이 하	506	74.3	25.7	89.5	10.5
	대 졸 이 상	692	88.9	11.1	93.7	6.3
주거 형태	동 거	705	65.9	34.1	75.1	24.9
	비 동 거 / 독 립	636	85.1	14.9	93.6	6.4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문57-2)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에 대해 66.3%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고 응답했으며, 28.9%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서울지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6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58	28.9	66.3	4.8
	자	104	36.4	62.5	1.1
성별	여	54	14.3	73.7	12.0
	자				
연령	만 15 ~ 18 세	-	-	-	-
	만 19 ~ 29 세	38	40.7	51.8	7.5
	만 30 ~ 39 세	120	25.2	70.9	3.9
지역	서 울	24	26.0	74.0	-
	인 천 / 경 기	58	21.9	77.1	1.0
	대전/충청/세종/강원	22	18.8	67.2	14.0
	광 주 / 전 라 / 제 주	24	44.8	50.3	4.8
	부 산 / 울 산 / 경 남	14	40.4	55.8	3.8
	대 구 / 경 북	16	39.1	47.0	1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7	45.2	26.6	28.2
	고 졸 이 하	89	30.3	68.1	1.7
	대 졸 이 상	62	25.3	68.1	6.6
주거 형태	동 거	52	27.1	64.0	8.9
	비 동 거 / 독 립	106	29.8	67.5	2.7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문57-3) 일하는 곳

-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해서 86.1%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라고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특히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대졸이하에서는 ‘정부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7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재단, 사단) 법인단체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연 기관/ 공기업	외국인 회사	기타
전		체 1,499	86.1	4.2	3.4	2.9	2.3	1.1	0.1
성별	남	자 879	86.8	4.4	2.6	3.0	1.8	1.3	0.1
	여	자 620	85.0	3.9	4.6	2.8	3.0	0.7	-
연령	만 15 ~ 18 세	7	100.0	-	-	-	-	-	-
	만 19 ~ 29 세	647	87.4	3.0	3.0	3.4	2.8	0.3	0.2
	만 30 ~ 39 세	845	84.9	5.1	3.8	2.6	1.9	1.7	-
지역	서울	275	86.8	0.8	5.1	3.3	1.9	2.1	-
	인천 / 경기	529	87.6	2.3	3.3	4.3	1.0	1.4	-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72.3	10.9	6.6	2.4	6.8	0.6	0.5
	광주/전라/제주	156	81.0	8.7	1.5	4.6	3.5	0.8	-
	부산/울산/경남	205	99.5	-	-	-	0.3	0.2	-
	대구 / 경북	115	86.1	9.1	2.5	-	2.4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150	83.3	1.0	2.2	8.7	4.8	-	-
	고 졸 이 하	594	92.7	2.0	1.5	2.7	0.7	0.5	-
	대 졸 이 상	755	81.4	6.5	5.1	2.0	3.1	1.8	0.1
주거 형태	동	거 757	87.8	2.9	2.9	3.1	2.6	0.6	-
	비 동 거 / 독 립	742	84.2	5.4	3.9	2.8	1.9	1.6	0.1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7-4)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대해 27.8%는 '1-4인'이라고 응답했으며, '10-29인'이라는 응답이 21.7%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99인'이상 규모의 직장(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도 유사한 응답을 보이고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30-99인'이상 규모의 직장(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8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모름/무응답
전	체	1,393	27.8	15.9	21.7	16.9	10.7	2.8	4.2	0.0
성별	남 자	814	26.5	15.1	20.9	17.0	12.2	3.9	4.3	0.1
	여 자	578	29.5	16.9	22.8	16.8	8.7	1.2	4.2	-
연령	만 15 ~ 18 세	7	19.5	-	80.5	-	-	-	-	-
	만 19 ~ 29 세	606	30.8	20.7	19.7	13.7	10.2	1.0	3.9	0.1
	만 30 ~ 39 세	780	25.5	12.2	22.7	19.5	11.2	4.2	4.5	-
지역	서 울	264	23.3	16.4	30.2	9.4	7.7	5.7	7.3	-
	인 천 / 경 기	494	24.7	16.2	24.4	21.2	9.9	0.8	2.8	-
	대전/충청/세종/강원	189	27.9	15.3	13.3	24.1	11.1	2.1	5.9	0.3
	광 주 / 전라 / 제 주	135	46.4	17.0	16.2	9.7	4.5	0.5	5.8	-
	부 산 / 울 산 / 경남	205	25.8	16.5	14.5	17.8	16.8	5.3	3.3	-
	대 구 / 경 북	105	33.1	11.3	23.7	10.3	17.6	4.0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35	58.6	20.0	12.4	2.2	5.2	-	1.1	0.4
	고 졸 이 하	567	34.4	19.1	22.2	17.0	5.2	0.9	1.3	-
	대 졸 이 상	691	16.3	12.4	23.1	19.8	16.3	4.9	7.2	-
주거 형태	동 거	711	29.5	17.5	23.6	15.6	9.6	1.1	3.0	0.1
	비 동 거 / 독 립	681	26.0	14.1	19.7	18.3	11.9	4.6	5.5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7-5)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에 대해 47.7%는 '3년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20.6%는 '3~5년 미만'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근속년수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에서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79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년)
전		체 1,499	47.7	20.6	15.2	8.4	7.9	0.0	3.7
성별	남 자	879	45.3	19.8	16.2	9.6	9.0	0.0	4.0
	여 자	620	51.2	21.8	13.9	6.8	6.4	-	3.4
연령	만 15 ~ 18 세	7	100.0	-	-	-	-	-	0.3
	만 19 ~ 29 세	647	80.1	14.1	4.4	1.1	0.2	0.0	1.7
	만 30 ~ 39 세	845	22.6	25.8	23.6	14.1	13.9	0.0	5.3
지역	서울	275	46.3	22.5	18.0	8.2	5.0	-	3.8
	인천 / 경기	529	42.7	23.8	16.7	9.4	7.4	0.1	3.9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54.8	15.6	11.2	7.4	11.1	-	3.5
	광주 / 전라 / 제주	156	63.8	12.0	8.3	6.5	9.4	-	3.1
	부산 / 울산 / 경남	205	48.0	24.0	16.5	4.8	6.7	-	3.5
	대구 / 경북	115	38.7	16.8	17.0	15.9	11.6	-	4.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50	96.9	1.6	0.5	0.8	0.2	0.1	0.5
	고 졸 이 하	594	41.1	22.9	17.7	8.7	9.5	0.0	4.2
	대 졸 이 상	755	43.2	22.6	16.2	9.7	8.2	-	4.0
주거 형태	동 거	757	66.1	18.4	8.7	3.9	2.9	0.0	2.5
	비 동 거 / 독 립	742	29.0	22.9	21.9	13.1	13.1	-	5.0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8)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에 대해 33.5%(받고 있는 편이다 + 충분히 받고 있다)는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8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	체	1,499	1.2	14.4	50.9	28.0	5.5
	남	879	1.3	14.7	52.2	27.1	4.7
	여	620	1.0	14.1	49.0	29.2	6.7
연령	만 15 ~ 18 세	7	-	19.5	-	-	80.5
	만 19 ~ 29 세	647	1.5	13.8	54.0	24.2	6.5
	만 30 ~ 39 세	845	1.0	14.9	48.9	31.1	4.2
지역	서울	275	-	12.5	58.0	25.9	3.5
	인천 / 경기	529	1.6	16.5	51.4	23.6	6.8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0.1	12.3	51.4	29.8	6.4
	광주 / 전라 / 제주	156	3.2	14.6	49.4	27.4	5.5
	부산 / 울산 / 경남	205	1.6	15.0	47.4	34.6	1.3
	대구 / 경북	115	0.3	11.9	38.6	38.8	10.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50	3.2	16.2	47.4	23.8	9.5
	고 졸 이 하	594	1.3	14.3	54.1	24.6	5.6
	대 졸 이 상	755	0.6	14.1	49.0	31.5	4.7
주거 형태	동 거	757	1.4	16.3	53.9	22.7	5.7
	비 동 거 / 독 립	742	1.0	12.5	47.8	33.4	5.3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59)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에 대해 40.3%(일치+매우 일치)는 일치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8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일치	불일치	일치	매우 일치
전		체 1,499	10.0	49.7	35.7	4.6
성별	남	자 879	10.2	48.5	38.0	3.3
	여	자 620	9.8	51.5	32.3	6.4
연령	만 15 ~ 18 세	7	19.5	80.5	-	-
	만 19 ~ 29 세	647	13.2	51.3	29.5	6.0
	만 30 ~ 39 세	845	7.5	48.3	40.7	3.5
지역	서	울 275	3.2	51.7	41.3	3.9
	인 천 / 경 기	529	11.1	44.6	38.2	6.1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6.3	54.3	34.0	5.4
	광 주 / 전 라 / 제 주	156	16.9	51.8	27.6	3.7
	부 산 / 울 산 / 경 남	205	15.4	53.1	31.1	0.4
	대 구 / 경 북	115	9.6	51.1	32.8	6.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대 학생 / 대 학원 생	150	32.4	57.1	10.5	-
	고 졸 이 하	594	8.2	58.6	31.2	2.0
	대 졸 이 상	755	7.0	41.3	44.1	7.6
주거 형태	동	거 757	11.9	53.4	30.7	4.0
	비 동 거 / 독 립	742	8.1	46.0	40.8	5.1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6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적정 학력 수준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적정 학력 수준에 대해 75.0%는 '나의 교육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21.1%는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나의 교육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에서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적정 학력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 수준보다 높은 수준	나의 교육 수준과 동일한 수준	나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수준
전	체	1,499	4.0	75.0	21.1
	남 자	879	5.0	73.2	21.8
	여 자	620	2.5	77.5	20.0
연령	만 15 ~ 18 세	7	-	80.5	19.5
	만 19 ~ 29 세	647	2.9	69.0	28.0
	만 30 ~ 39 세	845	4.8	79.5	15.7
지역	서 울	275	6.9	79.4	13.8
	인 천 / 경 기	529	4.3	78.5	17.2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4.2	65.2	30.6
	광 주 / 전 라 / 제 주	156	3.2	75.5	21.3
	부 산 / 울 산 / 경 남	205	0.2	66.9	32.9
	대 구 / 경 북	115	2.8	80.4	16.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50	1.0	36.0	63.1
	고 졸 이 하	594	4.9	80.8	14.3
	대 졸 이 상	755	3.9	78.1	18.0
주거 형태	동 거	757	2.9	69.3	27.8
	비 동 거 / 독 립	742	5.1	80.8	14.2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61) 이직 의향

- 이직 의향에 대해 70.6%는 없다고 응답했으며, 29.4%는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3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1,499	29.4	70.6
성별	남	879	30.5	69.5
	여	620	27.9	72.1
연령	만 15 ~ 18 세	7	100.0	-
	만 19 ~ 29 세	647	40.1	59.9
	만 30 ~ 39 세	845	20.7	79.3
지역	서 울	275	33.3	66.7
	인 천 / 경 기	529	30.6	69.4
	대전/충청/세종/강원	218	31.5	68.5
	광 주 / 전 라 / 제 주	156	23.4	76.6
	부 산 / 울 산 / 경 남	205	28.9	71.1
	대 구 / 경 북	115	20.1	79.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원 생	150	60.8	39.2
	고 졸 이 하	594	27.2	72.8
	대 졸 이 상	755	25.0	75.0
주거 형태	동 거	757	37.5	62.5
	비 동 거 / 독 립	742	21.2	78.8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61-1) 이직 희망 사유

- 이직 희망 사유에 대해 47.6%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17.4%는 '더 나은 근무환경', 13.2%는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더 나은 근무환경'이, 남성은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는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는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4 이직 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개인 발전/승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집안 사정 때문에 (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기타
전	체	441	47.6	17.4	13.2	10.1	4.4	3.7	1.8	0.8	1.0
	남 자	268	46.3	13.4	17.5	11.4	3.3	4.0	3.0	-	1.2
	여 자	173	49.7	23.6	6.4	8.1	6.0	3.3	-	2.0	0.8
연령	만 15 ~ 18 세	7	100.0	-	-	-	-	-	-	-	-
	만 19 ~ 29 세	260	47.9	17.5	14.5	10.7	2.8	3.2	0.9	0.7	1.8
	만 30 ~ 39 세	175	45.2	17.9	11.6	9.6	6.8	4.6	3.2	1.0	-
지역	서울	92	66.4	15.2	4.5	6.9	4.6	2.5	-	-	-
	인천 / 경기	162	45.9	17.5	13.1	13.2	2.4	2.5	3.6	1.5	0.4
	대전/충청/세종/강원	69	27.7	20.1	22.1	15.6	7.7	3.4	2.5	1.0	-
	광주/전라/제주	37	48.7	19.4	6.6	10.3	4.7	6.7	-	1.1	2.6
	부산/울산/경남	59	48.9	18.3	16.7	1.7	1.9	7.3	0.9	-	4.2
	대구 / 경북	23	39.9	11.3	23.1	5.8	13.3	4.3	-	-	2.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91	42.8	14.4	14.2	15.4	4.0	2.6	1.5	-	5.1
	고 졸 이 하	162	46.0	16.4	16.3	10.3	4.0	2.9	3.4	0.7	-
	대 졸 이 상	189	51.3	19.7	10.0	7.4	4.8	4.9	0.6	1.2	-
주거 형태	동 거	284	46.5	17.4	11.6	12.0	4.9	3.0	2.6	0.3	1.6
	비 동 거 / 독 립	158	49.6	17.3	16.0	6.7	3.4	5.0	0.3	1.7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62) 직업 훈련 경험 여부

- 직업 훈련 경험 여부에 대해 92.9%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5 직업 훈련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93	7.1	92.9
	남 자	254	5.7	94.3
	여 자	439	7.9	92.1
연령	만 15 ~ 18 세	14	-	100.0
	만 19 ~ 29 세	425	8.2	91.8
	만 30 ~ 39 세	253	5.7	94.3
지역	서 울	192	5.3	94.7
	인 천 / 경 기	161	5.6	94.4
	대전/충청/세종/강원	65	11.1	88.9
	광 주 / 전 라 / 제 주	66	18.2	81.8
	부 산 / 울 산 / 경 남	124	2.8	97.2
	대 구 / 경 북	86	8.9	91.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원 생	308	3.0	97.0
	고 졸 이 하	204	11.8	88.2
	대 졸 이 상	181	8.9	91.1
주거 형태	동 거	427	8.0	92.0
	비 동 거 / 독 립	265	5.7	94.3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62-1)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

-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에 대해 53.8%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24.7%는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경력개발을 위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및 '경력개발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6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력개발을 위해	창업을 위해	기타
전		체 49	53.8	24.7	13.7	4.2	3.4
성별	남	자 15	43.9	27.6	28.6	-	-
	여	자 35	58.0	23.5	7.5	6.0	4.9
연령	만 15 ~ 18 세	-	-	-	-	-	-
	만 19 ~ 29 세	35	48.0	29.4	17.7	-	4.8
	만 30 ~ 39 세	14	68.1	13.3	4.1	14.6	-
지역	서울	10	82.7	-	6.1	11.2	-
	인천 / 경기	9	54.7	26.8	18.6	-	-
	대전/충청/세종/강원	7	36.9	38.0	11.8	13.3	-
	광주/전라/제주	12	21.0	48.6	30.5	-	-
	부산/울산/경남	3	64.2	35.8	-	-	-
	대구 / 경북	8	77.7	-	-	-	2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9	38.8	36.4	24.8	-	-
	고 졸 이 하	24	59.8	18.8	12.7	8.7	-
	대 졸 이 상	16	53.4	27.0	9.1	-	10.5
주거 형태	동 거	34	44.0	30.0	18.2	2.8	5.0
	비 동 거 / 독 립	15	75.9	12.8	3.8	7.4	-

주)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62-2)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37.6%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으며, 22.1%는 ‘직업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라는 응답이, 만 30~39세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는 ‘직업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대졸이상에서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87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직업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643	37.6	22.1	20.4	16.9	2.2	0.1	0.6
성별	남	자	239	36.9	21.5	21.4	17.7	2.5	—	—
	여	자	404	38.0	22.5	19.8	16.4	2.1	0.2	1.0
연령	만 1 5 ~ 1 8 세	14	48.5	42.5	—	9.0	—	—	—	—
	만 1 9 ~ 2 9 세	390	37.2	21.2	23.3	15.8	1.8	—	0.6	0.6
	만 3 0 ~ 3 9 세	239	37.5	22.4	17.0	19.0	3.0	0.4	0.6	0.6
지역	서 울	181	27.8	25.2	30.1	15.8	0.7	—	—	0.4
	인 천 / 경 기	152	52.6	14.3	21.8	8.7	2.1	0.6	—	—
	대전/충청/세종/강원	58	56.2	17.7	9.5	14.1	2.5	—	—	—
	광 주 / 전 라 / 제 주	54	32.4	21.0	11.5	13.5	15.7	—	—	6.0
	부 산 / 울 산 / 경 남	120	27.4	27.5	17.7	27.4	—	—	—	—
	대 구 / 경 북	78	36.6	26.1	13.7	23.5	—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299	37.8	23.5	20.7	16.2	1.8	—	—	—
	고 졸 이 하	180	30.9	25.4	20.4	19.4	1.8	0.5	1.7	1.7
	대 졸 이 상	165	44.5	16.2	19.9	15.4	3.5	—	—	0.5
주거 형태	동 거	393	38.1	21.7	22.0	16.4	1.7	—	—	—
	비 동 거 / 독 립	250	36.7	22.8	18.0	17.6	3.1	0.3	1.6	1.6

주)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응답

문63)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에 대해 76.9%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3.1%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향후 직업 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향후 직업 훈련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7.0%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별 결과와 유사한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향후 직업 훈련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93	23.1	76.9
성별	남	자	254	23.0	77.0
	여	자	439	23.1	76.9
연령	만 1 5 ~ 1 8 세		14	48.3	51.7
	만 1 9 ~ 2 9 세		425	25.7	74.3
	만 3 0 ~ 3 9 세		253	17.1	82.9
지역	서 울		192	22.9	77.1
	인 천 / 경 기		161	15.0	85.0
	대전/충청/세종/강원		65	24.6	75.4
	광 주 / 전 라 / 제 주		66	31.5	68.5
	부 산 / 울 산 / 경 남		124	26.4	73.6
	대 구 / 경 북		86	25.8	74.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원생		308	26.1	73.9
	고 졸 이 하		204	23.9	76.1
	대 졸 이 상		181	17.0	83.0
주거 형태	동 거		427	25.5	74.5
	비 동 거 / 독 립		265	19.2	80.8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64)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1.2%는 ‘진학을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19.1%는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진학을 위해’, 여성은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진학을 위해’, 만 30~39세에서는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진학을 위해’, 비동거/독립에서는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89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학을 위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가사일 때문에	취업을 위해 준비 중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나지 않아서	당분간 쉬고 싶어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693	21.2	19.1	14.7	9.4	9.3	7.8	4.2	3.6	2.1	2.0	1.8	4.4	0.3
	자	254	36.5	0.6	18.9	11.5	—	10.8	7.1	1.5	0.9	2.7	2.3	6.8	0.3
성별	여	439	12.4	29.9	12.2	8.1	14.7	6.1	2.5	4.8	2.8	1.6	1.6	3.0	0.3
연령	만 15 ~ 18세	14	64.4	—	22.6	12.0	—	—	—	1.1	—	—	—	—	—
	만 19 ~ 29세	425	31.9	2.7	18.1	11.4	2.2	10.8	5.6	4.8	1.7	1.5	1.6	7.1	0.4
	만 30 ~ 39세	253	0.8	47.7	8.5	5.8	21.7	3.2	2.1	1.8	2.9	3.0	2.4	0.1	—
지역	서울	192	31.3	19.8	14.5	2.8	14.9	4.9	4.2	2.3	3.4	—	0.9	1.1	—
	인천 / 경기	161	19.9	19.7	10.8	13.5	8.5	8.1	3.3	6.3	1.6	1.3	2.9	3.1	0.9
	대전/충청/세종/강원	65	27.8	18.9	11.0	5.0	2.2	11.7	2.8	5.2	—	5.8	2.1	6.7	0.6
	광주/전라/제주	66	15.2	28.0	12.9	3.5	6.6	13.8	2.1	7.2	—	3.7	2.2	4.8	—
	부산/울산/경남	124	17.7	14.2	18.7	15.6	10.4	9.1	2.1	—	2.0	2.4	2.9	4.7	—
	대구 / 경북	86	6.0	17.3	20.8	15.1	4.1	4.3	11.8	2.5	3.7	3.1	—	11.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308	41.3	—	16.3	15.1	—	7.8	4.1	3.7	0.8	0.4	1.3	8.8	0.5
	고 졸 이 하	204	8.4	36.1	8.4	8.5	16.4	4.3	1.3	3.2	4.2	5.4	2.2	1.4	0.2
	대 졸 이 상	181	1.5	32.6	19.0	0.7	17.1	11.9	7.8	4.0	2.1	0.9	2.4	0.2	—
주거 형태	동 거	427	32.6	2.4	19.4	11.6	0.5	11.5	5.6	4.2	1.2	2.5	1.5	6.6	0.4
	비 동 거 / 독 립	265	2.9	46.1	7.2	5.8	23.5	1.9	2.0	2.7	3.7	1.2	2.3	0.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65) 현재 취업 준비 여부

-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대해 80.7%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9.3%는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0 현재 취업 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93	19.3	80.7
	남 자	254	27.1	72.9
	여 자	439	14.8	85.2
연령	만 15 ~ 18 세	14	-	100.0
	만 19 ~ 29 세	425	24.8	75.2
	만 30 ~ 39 세	253	11.1	88.9
지역	서 울	192	13.2	86.8
	인 천 / 경 기	161	22.4	77.6
	대전/충청/세종/강원	65	19.1	80.9
	광 주 / 전 라 / 제 주	66	25.6	74.4
	부 산 / 울 산 / 경남	124	20.2	79.8
	대 구 / 경 북	86	21.4	78.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학생/대학원생	308	16.3	83.7
	고 졸 이 하	204	13.4	86.6
	대 졸 이 상	181	31.1	68.9
주거 형태	동 거	427	27.3	72.7
	비 동 거 / 독 립	265	6.5	93.5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문65-1)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

-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에 대해 54.9%는 지원서를 냈으며, 평균 6.2회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이 많으나 평균횟수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지원서를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경험이 더 많았으며, 지원서 제출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91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회)	
전		134	54.9	6.2	45.1
성별	남	69	45.8	8.8	54.2
	여	65	64.6	4.3	35.4
연령	만 15 ~ 18 세	-	-	-	-
	만 19 ~ 29 세	105	49.1	5.9	50.9
	만 30 ~ 39 세	28	76.7	7.0	23.3
지역	서울	25	67.2	4.3	32.8
	인천 / 경기	36	62.9	5.0	37.1
	대전/충청/세종/강원	12	56.4	6.2	43.6
	광주/전라/제주	17	49.0	13.1	51.0
	부산/울산/경남	25	58.1	6.9	41.9
	대구 / 경북	18	22.4	5.1	77.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학생/대학원생	50	36.1	3.8	63.9
	고 졸 이 하	27	53.6	7.9	46.4
	대 졸 이 상	56	72.4	6.7	27.6
주거 형태	동 거	116	53.7	6.3	46.3
	비 동 거 / 독 립	17	63.5	5.9	36.5

주)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65-2) 면접을 본 경험

- 면접을 본 경험에 대해 38.1%는 면접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4.3회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면접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3.0회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4.2회라고 응답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더 많은 면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3.7회라고 응답함.

표 II-92 면접을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회)	
전		134	38.1	4.3	61.9
성별	남 자	69	31.9	6.1	68.1
	여 자	65	44.7	3.0	55.3
연령	만 15 ~ 18 세	-	-	-	-
	만 19 ~ 29 세	105	33.0	4.4	67.0
	만 30 ~ 39 세	28	57.1	4.2	42.9
지역	서울	25	41.1	3.6	58.9
	인천 / 경기	36	27.8	3.8	72.2
	대전/충청/세종/강원	12	50.5	3.7	49.5
	광주/전라/제주	17	43.1	8.7	56.9
	부산/울산/경남	25	56.8	3.8	43.2
	대구 / 경북	18	15.9	2.0	84.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대학생/대학원생	50	15.2	3.8	84.8
	고 졸 이 하	27	35.5	7.2	64.5
	대 졸 이 상	56	59.9	3.7	40.1
주거 형태	동 거	116	38.3	4.5	61.7
	비 동 거 / 독 립	17	36.5	2.9	63.5

주)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66)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해 34.8%는 '향후 10-20년 이내'라고 응답했으며, 17.8%는 '향후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향후 10-20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만 30~39세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서울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남.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제외하면 '향후 10-20년 이내'라는 응답은 서울지역이 높게 나타남.

표 II-93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3년 이내	향후 3년 -5년 이내	향후 5년 -7년 이내	향후 7년 -10년 이내	향후 10년 -20년 이내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	체	2,534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남	1,315	11.6	0.4	0.7	6.0	7.6	13.4	35.9	18.8	5.5
	여	1,219	15.8	0.4	1.1	4.8	8.8	11.5	33.7	16.7	7.3
연령	만 15 ~ 18 세	363	-	-	0.0	0.3	1.1	7.1	40.2	42.6	8.7
	만 19 ~ 29 세	1,073	2.3	-	0.4	2.9	7.8	13.0	43.6	22.2	7.8
	만 30 ~ 39 세	1,098	29.1	0.9	1.7	9.6	10.9	13.7	24.6	5.3	4.1
지역	서울	527	7.5	-	1.1	3.1	12.3	10.7	39.9	18.5	7.0
	인천 / 경기	794	11.0	0.3	0.9	4.3	7.6	12.5	35.6	20.9	6.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5.4	-	1.1	5.0	7.2	16.0	27.6	20.5	7.1
	광주 / 전라 / 제주	267	22.5	2.0	0.8	11.7	5.5	10.5	27.6	12.1	7.4
	부산 / 울산 / 경남	382	14.7	0.3	-	7.1	6.4	13.8	41.5	11.4	4.8
	대구 / 경북	237	21.7	0.5	1.7	5.2	8.2	11.6	28.4	19.4	3.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	-	0.0	0.3	1.2	7.3	40.9	41.7	8.6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0.6	-	-	0.5	5.9	11.6	44.2	30.0	7.1
	고 졸 이 하	799	19.4	0.3	0.8	6.3	10.5	13.0	29.2	12.4	8.1
	대 졸 이 상	935	20.0	0.8	1.8	9.0	9.9	14.4	32.9	7.7	3.6
주거 형태	동	1,525	1.4	-	0.9	2.5	5.1	11.1	43.8	27.2	8.0
	비 동 거 / 독 립	1,009	32.0	1.0	1.0	9.9	12.8	14.6	21.3	3.7	3.9

문67)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 공동주거 경험에 대해 90.9%는 경험이 없으며, 향후 의향에 대해 92.4%는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공동주거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향후 공동주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4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향후 공동주거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534	9.1	90.9	7.6	92.4
성별	남 자	1,315	9.4	90.6	8.0	92.0
	여 자	1,219	8.7	91.3	7.2	92.8
연령	만 15 ~ 18 세	363	7.3	92.7	14.7	85.3
	만 19 ~ 29 세	1,073	11.2	88.8	9.6	90.4
	만 30 ~ 39 세	1,098	7.6	92.4	3.4	96.6
지역	서울	527	5.4	94.6	4.4	95.6
	인천 / 경기	794	10.3	89.7	6.4	93.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4.9	85.1	16.1	83.9
	광주 / 전라 / 제주	267	16.8	83.2	13.9	86.1
	부산 / 울산 / 경남	382	1.6	98.4	1.6	98.4
	대구 / 경북	237	8.4	91.6	9.8	90.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7.7	92.3	15.4	84.6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8.6	91.4	12.6	87.4
	고 졸 이 하	799	9.6	90.4	4.8	95.2
	대 졸 이 상	935	9.3	90.7	4.8	95.2
주거 형태	동 거	1,525	8.6	91.4	10.2	89.8
	비 동 거 / 독 립	1,009	9.8	90.2	3.7	96.3

문68-1) 집에 대한 생각1_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61.8%(그렇다+매우 그렇다)는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자기 집 소유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집 소유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주고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에서 자기 집 소유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줌.

표 II-95 집에 대한 생각1_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1.0	12.1	25.2	48.5	13.3
성별	남 자	1,315	1.0	11.1	28.1	46.5	13.3
	여 자	1,219	1.0	13.1	22.2	50.5	13.3
연령	만 15 ~ 18 세	363	0.8	14.1	33.9	41.5	9.7
	만 19 ~ 29 세	1,073	1.1	14.1	27.2	47.6	10.0
	만 30 ~ 39 세	1,098	0.9	9.4	20.5	51.6	17.6
지역	서울	527	1.0	11.7	26.9	54.1	6.3
	인천 / 경기	794	0.1	13.9	25.1	42.1	18.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5	12.8	29.9	45.5	8.4
	광주 / 전라 / 제주	267	1.8	9.7	17.3	55.8	15.4
	부산 / 울산 / 경남	382	0.2	8.3	23.6	53.5	14.4
	대구 / 경북	237	0.6	14.2	27.3	45.2	1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9	15.0	32.8	41.0	10.3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1.0	16.3	30.4	46.0	6.3
	고 졸 이 하	799	0.9	11.7	25.2	49.4	12.8
	대 졸 이 상	935	1.1	9.2	20.0	51.6	18.2
주거 형태	동 거	1,525	1.1	14.9	28.7	45.5	9.8
	비 동 거 / 독 립	1,009	0.7	7.8	20.0	52.9	18.6

문68-2) 집에 대한 생각2_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에 대해 69.4%(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서울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비동거/독립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6 집에 대한 생각2_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27.4	42.0	21.6	8.0	1.0
성별	남 자	1,315	27.9	41.6	20.9	8.3	1.3
	여 자	1,219	26.8	42.5	22.3	7.7	0.7
연령	만 15 ~ 18 세	363	20.7	46.8	23.6	8.0	0.9
	만 19 ~ 29 세	1,073	27.8	40.8	21.9	8.5	0.9
	만 30 ~ 39 세	1,098	29.2	41.6	20.6	7.5	1.1
지역	서 울	527	25.0	47.0	23.1	4.7	0.2
	인 천 / 경 기	794	31.5	45.2	16.9	5.7	0.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5.4	39.8	24.5	8.9	1.4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6.2	35.9	23.6	12.6	1.8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28.8	34.6	23.7	11.0	1.9
	대 구 / 경 북	237	20.6	42.2	24.2	12.1	0.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1.5	46.9	22.8	7.8	1.0
	대학생/대학원생	458	22.6	43.6	24.1	7.7	2.0
	고 졸 이 하	799	29.8	40.8	21.0	7.3	1.0
	대 졸 이 상	935	29.8	40.4	20.4	8.9	0.5
주거 형태	동 거	1,525	27.4	43.6	21.2	7.0	0.9
	비 동 거 / 독 립	1,009	27.4	39.7	22.2	9.6	1.2

문68-3) 집에 대한 생각3_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보통을 제외하면 31.7%(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II-97 집에 대한 생각3_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5.6	22.8	39.9	27.8	3.9
	자	1,315	5.2	20.8	41.0	28.6	4.5
성별	여	1,219	6.1	24.9	38.8	27.0	3.2
	자	1,219	6.1	24.9	38.8	27.0	3.2
연령	만 15 ~ 18 세	363	5.6	20.7	43.6	27.9	2.3
	만 19 ~ 29 세	1,073	5.4	22.9	41.7	26.1	3.9
	만 30 ~ 39 세	1,098	5.9	23.3	37.0	29.4	4.4
지역	서울	527	6.3	30.9	36.8	24.6	1.4
	인천 / 경기	794	6.4	23.6	36.2	27.5	6.3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5.1	15.7	48.1	28.3	2.8
	광주/전라/제주	267	7.8	19.8	37.1	30.4	5.0
	부산/울산/경남	382	3.0	23.5	43.9	28.2	1.4
	대구 / 경북	237	3.9	14.1	45.0	31.7	5.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9	18.1	44.9	28.6	2.4
	대학생/대학원생	458	3.8	22.4	42.2	28.3	3.3
	고 졸 이 하	799	7.7	22.8	37.8	28.4	3.3
	대 졸 이 상	935	4.7	24.7	38.7	26.8	5.2
주거 형태	동 거	1,525	5.2	23.1	42.6	26.2	2.9
	비 동 거 / 독 립	1,009	6.2	22.3	35.9	30.2	5.4

문68-4) 집에 대한 생각4_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 보통을 제외하면 31.4%(그렇다+매우 그렇다)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즉, 가능하다)이 동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II-98 집에 대한 생각4_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6.5	20.5	41.6	26.7	4.7
성별	남 자	1,315	7.2	20.7	42.5	24.5	5.1
	여 자	1,219	5.8	20.2	40.6	29.1	4.2
연령	만 15 ~ 18 세	363	4.2	22.2	45.7	21.4	6.6
	만 19 ~ 29 세	1,073	5.4	20.8	40.1	29.4	4.3
	만 30 ~ 39 세	1,098	8.4	19.6	41.7	25.9	4.4
지역	서 울	527	2.5	15.6	41.2	39.6	1.1
	인 천 / 경 기	794	10.2	18.0	40.9	25.5	5.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4.3	24.5	50.0	16.6	4.6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0.5	31.9	28.6	20.5	8.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3.4	19.6	48.4	24.4	4.1
	대 구 / 경 북	237	6.7	22.5	36.8	26.9	7.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5	23.0	44.0	21.6	7.0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4.8	19.2	42.3	31.3	2.4
	고 졸 이 하	799	7.2	20.4	41.4	26.9	4.1
	대 졸 이 상	935	7.6	20.3	40.5	26.2	5.4
주거 형태	동 거	1,525	4.8	20.9	42.7	26.7	4.9
	비 동 거 / 독 립	1,009	9.1	19.9	39.9	26.7	4.3

문69)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해 54.8%가 자가(부모님 명의의 집)이라고 응답했고 23.7%는 전세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가(본인 명의의 집)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자가(본인 명의의 집)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자가(본인 명의의 집), 전체 및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9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가 (본인 명의의 집)	자가 (부모님 명의의 집)	전세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무상 및 기타 (기숙사 등)
전	체	2,534	13.0	54.8	23.7	7.7	0.8
	남 자	1,315	10.9	56.8	22.7	8.7	0.9
	여 자	1,219	15.2	52.7	24.8	6.7	0.7
연령	만 1 5 ~ 1 8 세	363	-	87.5	8.5	3.7	0.3
	만 1 9 ~ 2 9 세	1,073	2.0	78.6	10.4	8.0	1.0
	만 3 0 ~ 3 9 세	1,098	28.0	20.8	41.8	8.7	0.7
지역	서 울	527	7.3	50.3	37.7	4.8	-
	인 천 / 경 기	794	10.3	54.5	27.3	6.6	1.3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3.9	57.5	19.1	7.1	2.4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1.3	55.3	10.2	13.1	0.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14.4	56.4	15.4	13.5	0.4
	대 구 / 경 북	237	21.7	59.2	15.8	3.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	88.0	8.0	3.7	0.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0.5	88.5	6.7	3.9	0.5
	고 졸 이 하	799	19.0	35.6	33.4	10.7	1.3
	대 졸 이 상	935	18.7	42.6	29.5	8.5	0.6
주거 형태	동 거	1,525	0.9	88.7	7.0	3.2	0.2
	비 동 거 / 독 립	1,009	31.2	3.6	49.1	14.5	1.6

문70) 향후 부모님과 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 향후 부모님과 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 69.7%는 ‘결혼 전까지 동거’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취업 전까지 동거’하겠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취업 전까지 동거’라는 응답이, 여성은 ‘결혼 전까지 동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취업 전까지 동거’라는 응답이, 만 30~39세에서는 ‘내 집 마련까지 동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결혼 전까지 동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00 향후 부모님과 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취업 전까지 동거	결혼 전까지 동거	결혼 후에도 동거	출산 후에도 동거	내 집 마련 까지 동거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1,525	3.3	17.6	69.7	2.7	1.1	3.9	1.4	0.3
	남	834	4.2	20.0	66.7	3.1	1.0	3.4	1.3	0.3
	여	691	2.1	14.6	73.3	2.2	1.3	4.6	1.6	0.4
연령	만 15 ~ 18 세	361	13.8	29.8	52.9	1.2	0.2	1.9	—	0.2
	만 19 ~ 29 세	902	—	17.4	77.0	1.9	0.3	2.5	0.7	0.3
	만 30 ~ 39 세	262	—	1.2	67.7	7.3	5.5	11.7	5.9	0.8
지역	서 울	287	1.3	9.3	85.1	2.4	0.6	1.1	—	0.2
	인 천 / 경 기	489	3.1	13.4	74.1	2.2	2.5	2.7	1.7	0.4
	대전/충청/세종/강원	208	4.1	31.0	56.3	1.4	0.5	3.6	2.3	0.8
	광 주 / 전 라 / 제 주	153	4.9	26.2	50.9	5.5	0.7	10.9	—	0.8
	부 산 / 울 산 / 경 남	234	1.2	22.5	70.8	2.2	0.5	2.7	—	—
	대 구 / 경 북	153	8.1	11.9	61.9	4.2	—	8.3	5.5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0	14.7	27.9	53.8	1.3	0.2	2.0	—	0.2
	대 학생 / 대 학원 생	432	—	30.6	64.8	2.1	0.3	0.9	0.8	0.4
	고 졸 이 하	332	—	8.6	76.3	3.5	3.7	6.1	1.4	0.4
	대 졸 이 상	421	—	2.9	82.3	3.7	0.8	6.8	3.1	0.3
주거 형태	동 거	1,525	3.3	17.6	69.7	2.7	1.1	3.9	1.4	0.3
	비 동 거 / 독 립	—	—	—	—	—	—	—	—	—

주)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응답

문71)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에 대해 85.1%는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14.9%는 1인 가구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이 뒤를 이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1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07	14.9	85.1
성별	남 자	480	21.5	78.5
	여 자	527	8.9	91.1
연령	만 15 ~ 18 세	-	-	-
	만 19 ~ 29 세	171	42.4	57.6
	만 30 ~ 39 세	837	9.3	90.7
지역	서 울	239	15.9	84.1
	인 천 / 경 기	305	15.6	84.4
	대전/충청/세종/강원	119	21.1	78.9
	광 주 / 전 라 / 제 주	112	13.1	86.9
	부 산 / 울 산 / 경 남	147	13.3	86.7
	대 구 / 경 북	84	6.1	9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27	55.1	44.9
	고 졸 이 하	467	12.5	87.5
	대 졸 이 상	514	15.0	85.0
주거 형태	동 거	-	-	-
	비 동 거 / 독 립	1,007	14.9	85.1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문71-1) 현재 주거 형태

- 현재 주거 형태에 대해 '원룸(다가구)'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라는 응답이 33.6%로 뒤를 이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원룸(다가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원룸(다가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아파트'라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2 현재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하숙	기타
전	체	150	35.2	33.6	23.7	4.7	0.6	2.2
	남 자	103	35.3	31.8	24.3	4.8	0.9	2.9
	여 자	47	35.2	37.4	22.5	4.5	-	0.4
연령	만 15 ~ 18 세	-	-	-	-	-	-	-
	만 19 ~ 29 세	72	40.6	33.9	17.9	4.6	1.3	1.8
	만 30 ~ 39 세	78	30.3	33.3	29.2	4.8	-	2.5
지역	서 울	38	19.0	27.2	51.0	2.8	-	-
	인 천 / 경 기	47	27.5	43.7	19.5	9.3	-	-
	대전/충청/세종/강원	25	57.0	25.1	8.4	-	3.6	6.0
	광 주 / 전 라 / 제 주	15	30.9	57.6	8.8	2.7	-	-
	부 산 / 울 산 / 경 남	20	56.0	23.1	6.0	6.0	-	8.8
	대 구 / 경 북	5	54.0	-	46.0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5	56.6	37.1	-	-	6.3	-
	고 졸 이 하	59	24.5	38.1	31.3	3.6	-	2.6
	대 졸 이 상	77	39.4	29.5	22.5	6.4	-	2.2
주거 형태	동 거	-	-	-	-	-	-	-
	비 동 거 / 독 립	150	35.2	33.6	23.7	4.7	0.6	2.2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문71-2)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여부

-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 75.2%가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입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 19~29세의 경우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를 하지 안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현재거주 기준 전입신고를 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전입신고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03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50	75.2	24.8
	남 자	103	74.8	25.2
	여 자	47	76.1	23.9
연령	만 15 ~ 18 세	-	-	-
	만 19 ~ 29 세	72	64.5	35.5
	만 30 ~ 39 세	78	85.2	14.8
지역	서울	38	88.3	11.7
	인천 / 경기	47	76.8	23.2
	대전/충청/세종/강원	25	63.5	36.5
	광주 / 전라 / 제주	15	70.3	29.7
	부산 / 울산 / 경남	20	74.1	25.9
	대구 / 경북	5	39.6	6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대 학생 / 대 학원생	15	39.4	60.6
	고 졸 이 하	59	77.7	22.3
	대 졸 이 상	77	80.2	19.8
주거 형태	동 거	-	-	-
	비 동 거 / 독 립	150	75.2	24.8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문72) 키 및 몸무게(남성)

- 키 및 몸무게(남성)의 경우 평균키가 175.0cm로 측정 되었으며, 평균 몸무게의 경우 71.1kg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평균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상대적으로 평균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104 키 및 몸무게(남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키(cm)	평균 몸무게(kg)
전	체	1,315	175.0	71.1
	남 자	1,315	175.0	71.1
	여 자	-	-	-
연령	만 1 5 ~ 1 8 세	189	173.2	65.7
	만 1 9 ~ 2 9 세	565	175.4	70.7
	만 3 0 ~ 3 9 세	561	175.2	73.3
지역	서 울	265	175.4	70.3
	인 천 / 경 기	409	175.4	71.5
	대전/충청/세종/강원	174	174.2	71.2
	광 주 / 전 라 / 제 주	140	174.3	74.4
	부 산 / 울 산 / 경 남	202	175.4	69.6
	대 구 / 경 북	126	174.0	69.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82	173.2	65.8
	대 학생 / 대 학 원 생	267	175.6	69.4
	고 졸 이 하	390	174.8	72.4
	대 졸 이 상	477	175.5	73.0
주거 형태	동 거	834	174.7	70.0
	비 동 거 / 독 립	481	175.4	73.0

문72-1) 키 및 몸무게(여성)

- 키 및 몸무게(여성)의 경우 평균 키는 162.2cm로 나타났으며, 평균 몸무게는 54.8kg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에서 상대적으로 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평균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05 키 및 몸무게(여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키(cm)	평균 몸무게(kg)
전	체	1,219	162.2	54.8
	남 자	-	-	-
	여 자	1,219	162.2	54.8
연령	만 15 ~ 18 세	173	161.6	54.0
	만 19 ~ 29 세	508	162.5	53.8
	만 30 ~ 39 세	537	162.1	56.0
지역	서울	262	162.5	54.9
	인천 / 경기	384	163.0	54.1
	대전/충청/세종/강원	154	161.8	54.7
	광주 / 전라 / 제주	128	161.3	56.0
	부산 / 울산 / 경남	180	161.8	55.6
	대구 / 경북	111	161.1	54.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0	161.5	54.0
	대 학생 / 대 학원생	192	162.1	53.2
	고 졸 이 하	409	162.1	56.4
	대 졸 이 상	458	162.6	54.3
주거 형태	동 거	691	162.3	54.0
	비 동 거 / 독 립	528	162.0	55.8

문7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에 대해 비만이다(약간 비만이다+매우 비만이다)라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으며, 마른 편이다(약간 마른편이다+ 매우 마른편이다)라는 응답이 16.0%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에서 '비만이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마른편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비만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전		체 2,534	1.4	14.6	61.1	20.4	2.5
성별	남	자 1,315	2.2	13.8	62.3	19.4	2.4
	여	자 1,219	0.6	15.4	59.9	21.4	2.7
연령	만 15 ~ 18 세	363	2.4	19.2	56.9	17.4	4.1
	만 19 ~ 29 세	1,073	1.6	18.1	61.2	17.1	2.0
	만 30 ~ 39 세	1,098	0.9	9.5	62.5	24.5	2.6
지역	서	울 527	1.2	13.7	64.4	19.5	1.1
	인 천 / 경 기	794	1.6	15.2	62.1	19.7	1.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0	16.5	58.3	18.5	5.6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1	12.6	51.3	26.2	7.7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9	14.4	65.1	18.4	1.2
	대 구 / 경 북	237	2.0	14.2	59.0	23.5	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5	18.3	57.9	16.9	4.3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1.9	23.4	59.8	13.5	1.5
	고 졸 이 하	799	1.2	9.1	62.6	24.2	2.9
	대 졸 이 상	935	1.0	13.5	61.7	21.8	2.0
주거 형태	동	거 1,525	1.9	17.4	59.9	18.1	2.7
	비 동 거 / 독 립	1,009	0.7	10.3	63.0	23.8	2.2

문74)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대해 76.4%가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했으며, 4.5%가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생(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7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	체	2,534	0.6	3.9	19.1	58.7	17.7
성별	남 자	1,315	0.4	2.8	17.3	58.9	20.6
	여 자	1,219	0.9	5.0	21.0	58.5	14.6
연령	만 15 ~ 18 세	363	0.2	2.5	12.3	61.5	23.6
	만 19 ~ 29 세	1,073	0.7	4.2	16.8	59.1	19.2
	만 30 ~ 39 세	1,098	0.7	4.0	23.6	57.5	14.3
지역	서울	527	-	1.5	19.0	68.4	11.1
	인천 / 경기	794	0.6	3.8	18.5	56.8	20.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7	7.6	27.6	57.0	7.2
	광주 / 전라 / 제주	267	2.3	9.4	24.7	44.5	19.0
	부산 / 울산 / 경남	382	-	0.7	6.1	59.0	34.1
	대구 / 경북	237	1.1	3.3	24.0	61.6	10.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2	2.6	11.5	61.7	23.9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0.4	3.0	16.4	57.3	22.9
	고 졸 이 하	799	0.5	3.9	21.7	60.0	13.9
	대 졸 이 상	935	1.0	4.7	20.9	57.2	16.1
주거 형태	동 거	1,525	0.9	3.1	17.5	59.1	19.5
	비 동 거 / 독 립	1,009	0.3	5.0	21.5	58.2	15.1

문75)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67.2%가 느끼는 편이다(약간 느끼는 편이다+매우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5% 느끼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08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느끼는 편이다	매우 많이 느낀다
전	체	2,534	0.3	7.2	25.3	57.9	9.3
	남 자	1,315	0.4	7.6	24.5	58.0	9.4
	여 자	1,219	0.1	6.7	26.3	57.9	9.1
연령	만 15 ~ 18 세	363	0.7	10.2	22.3	57.3	9.5
	만 19 ~ 29 세	1,073	0.1	7.7	27.3	54.9	9.9
	만 30 ~ 39 세	1,098	0.3	5.7	24.4	61.1	8.5
지역	서 울	527	0.3	9.5	27.8	58.4	4.0
	인 천 / 경 기	794	0.0	4.8	26.0	57.1	12.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8	7.6	24.5	58.7	8.3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0.2	11.7	23.7	53.7	10.7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2	6.9	23.1	63.0	6.8
	대 구 / 경 북	237	0.3	5.2	24.3	55.3	14.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7	10.5	21.5	57.1	10.1
	대학생/대학원생	458	0.1	11.6	30.9	49.5	7.8
	고 졸 이 하	799	0.2	6.1	27.6	56.5	9.6
	대 졸 이 상	935	0.2	4.8	22.1	63.6	9.3
주거 형태	동 거	1,525	0.2	7.5	25.5	56.4	10.4
	비 동 거 / 독 립	1,009	0.3	6.7	25.1	60.3	7.6

문76) 평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및 규칙적인 운동 여부

- 평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 평균 6.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여부에 대해 72.4%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생(만 15세~18세)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평일 수면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생(중/고등학생)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09 평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및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일 수면 시간	규칙적인 운동 여부	
			평균(시간)	예	아니오
전 체		2,534	6.9	27.6	72.4
성별	남 자	1,315	6.9	34.4	65.6
	여 자	1,219	6.9	20.3	79.7
연령	만 1 5 ~ 1 8 세	363	6.7	18.0	82.0
	만 1 9 ~ 2 9 세	1,073	7.0	30.3	69.7
	만 3 0 ~ 3 9 세	1,098	6.9	28.1	71.9
지역	서 울	527	6.8	21.7	78.3
	인 천 / 경 기	794	7.0	30.2	69.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7	33.0	67.0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7.0	35.2	64.8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6.9	21.3	78.7
	대 구 / 경 북	237	7.3	25.8	74.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6.7	18.3	81.7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7.0	36.6	63.4
	고 졸 이 하	799	7.0	25.3	74.7
	대 졸 이 상	935	6.9	28.6	71.4
주거 형태	동 거	1,525	6.9	27.4	72.6
	비 동 거 / 독 립	1,009	6.9	27.9	72.1

문76-1) 규칙적인 운동 빈도

- 규칙적인 운동 빈도에 대해 ‘일주일에 3번’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2번’이라는 응답이 20.0%로 뒤를 이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일주일에 3번’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일주일에 3번’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의 경우, ‘일주일에 4번’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운동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10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전	체	699	7.3	20.0	27.9	17.3	15.4	2.9	9.2
	남	452	7.2	20.4	27.0	17.4	15.1	3.1	9.7
	여	247	7.7	19.2	29.5	16.9	15.9	2.6	8.2
연령	만 15 ~ 18 세	65	14.6	12.8	28.3	5.5	15.8	1.9	21.1
	만 19 ~ 29 세	325	3.5	20.3	25.1	20.7	14.8	4.9	10.6
	만 30 ~ 39 세	309	9.9	21.2	30.7	16.1	15.8	1.0	5.2
지역	서 울	114	6.5	27.2	36.8	16.7	11.9	0.5	0.5
	인 천 / 경 기	240	9.1	19.3	28.3	11.9	15.2	1.8	14.4
	대전/충청/세종/강원	108	3.1	25.1	25.8	19.2	17.4	1.3	8.2
	광 주 / 전 라 / 제 주	94	7.1	10.1	17.2	28.8	19.8	5.0	12.0
	부 산 / 울 산 / 경 남	81	13.2	13.7	26.8	21.6	14.2	5.8	4.7
	대 구 / 경 북	61	2.3	24.0	31.5	12.2	13.7	7.9	8.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62	15.3	13.4	27.4	3.3	16.6	2.0	22.1
	대학생/대학원생	168	2.2	22.9	20.7	21.1	17.3	4.2	11.6
	고 졸 이 하	202	5.9	14.2	29.3	22.2	17.1	3.4	7.9
	대 졸 이 상	267	9.8	24.1	31.4	14.3	12.6	2.0	5.7
주거 형태	동 거	417	5.3	19.5	28.1	17.6	15.1	4.7	9.6
	비 동 거 / 독 립	282	10.4	20.7	27.5	16.8	15.7	0.2	8.6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문77)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인생에서 외모도의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81.5%로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2.7%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II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 체			2,534	0.3	2.4	15.7	66.8	14.7
성별	남	자	1,315	0.4	3.3	18.4	68.3	9.6
	여	자	1,219	0.3	1.5	12.9	65.2	20.1
연령	만 15 ~ 18 세		363	0.3	4.0	10.5	64.2	20.9
	만 19 ~ 29 세		1,073	0.0	1.8	14.5	68.2	15.4
	만 30 ~ 39 세		1,098	0.6	2.5	18.6	66.4	11.9
지역	서 울		527	—	1.3	13.0	77.5	8.2
	인 천 / 경 기		794	0.3	1.8	17.5	62.5	17.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3	4.5	21.8	64.4	9.0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4	5.6	15.0	65.9	12.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3	0.7	9.7	63.8	25.4
	대 구 / 경 북		237	—	3.3	18.0	66.9	11.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4	4.2	10.8	63.1	21.6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	0.9	11.8	70.9	16.4
	고 졸 이 하		799	0.4	2.8	19.5	65.6	11.7
	대 졸 이 상		935	0.4	2.3	16.2	67.3	13.8
주거 형태	동 거		1,525	0.1	2.5	14.4	66.2	16.8
	비 동 거 / 독 립		1,009	0.6	2.3	17.7	67.8	11.5

문78) 성형수술 경험

- 성형수술 경험에 대해 87.3%가 성형수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2.7%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2 성형수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34	12.7	87.3
	자			
성별	남	1,315	2.7	97.3
	여	1,219	23.5	76.5
연령	만 15 ~ 18 세	363	5.6	94.4
	만 19 ~ 29 세	1,073	16.9	83.1
	만 30 ~ 39 세	1,098	10.9	89.1
지역	서 울	527	12.7	87.3
	인 천 / 경 기	794	15.1	84.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8.0	92.0
	광주/전라/제주	267	15.2	84.8
	부산/울산/경남	382	9.0	91.0
	대 구 / 경 북	237	13.9	8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3.6	96.4
	대학생/대학원생	458	15.0	85.0
	고 졸 이 하	799	13.0	87.0
	대 졸 이 상	935	14.5	85.5
주거 형태	동 거	1,525	13.1	86.9
	비 동 거 / 독 립	1,009	12.0	88.0

문78-1) 성형수술 목적

- 성형수술 목적에 대해 ‘미용’이라는 응답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의료’목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의료’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3 성형수술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	체	321	10.0	90.0
	남 자	35	26.1	73.9
	여 자	286	8.0	92.0
연령	만 15 ~ 18 세	20	5.8	94.2
	만 19 ~ 29 세	181	10.0	90.0
	만 30 ~ 39 세	120	10.7	89.3
지역	서 울	67	5.6	94.4
	인 천 / 경 기	120	11.3	88.7
	대전/충청/세종/강원	26	10.3	89.7
	광 주 / 전 라 / 제 주	41	12.2	87.8
	부 산 / 울 산 / 경 남	34	-	100.0
	대 구 / 경 북	33	21.4	78.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2	9.4	90.6
	대학생/대학원생	69	16.4	83.6
	고 졸 이 하	104	6.5	93.5
	대 졸 이 상	136	9.5	90.5
주거 형태	동 거	200	11.5	88.5
	비 동 거 / 독 립	121	7.6	92.4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78-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4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89	53.8	31.4	9.1	3.2	1.6	0.9
성별	남	자 26	62.7	11.3	23.7	2.3	—	—
	여	자 263	53.0	33.4	7.6	3.3	1.7	1.0
연령	만 15 ~ 18 세	19	60.2	27.3	12.4	—	—	—
	만 19 ~ 29 세	163	53.3	30.5	11.7	1.5	1.3	1.5
	만 30 ~ 39 세	107	53.5	33.6	4.4	6.3	2.2	—
지역	서 울	63	55.8	27.4	13.3	3.5	—	—
	인 천 / 경 기	106	42.8	37.8	10.4	4.1	4.3	0.7
	대전/충청/세종/강원	23	59.1	27.6	10.7	2.5	—	—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56.0	37.3	—	1.6	—	5.1
	부 산 / 울 산 / 경 남	34	81.1	8.7	10.2	—	—	—
	대 구 / 경 북	26	50.8	40.2	3.2	5.8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1	32.8	46.2	21.0	—	—	—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7	57.6	32.4	6.4	0.4	—	3.1
	고 졸 이 하	97	46.2	36.4	12.0	3.0	2.4	—
	대 졸 이 상	123	60.1	25.7	6.9	5.0	1.8	0.6
주거 형태	동 거	177	54.1	29.9	12.3	1.5	1.2	1.0
	비 동 거 / 독 립	112	53.4	33.8	4.1	6.0	2.1	0.6

주)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문79)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경우 47.7%라 관심 있다(관심 있음+매우 관심 있음)라고 응답하였으며, 16.8%가 관심 없음(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서 관심 없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5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보통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전	체	2,534	1.7	15.1	35.5	43.9	3.8
성별	남 자	1,315	2.1	19.6	37.1	38.1	3.1
	여 자	1,219	1.3	10.3	33.8	50.1	4.6
연령	만 15 ~ 18 세	363	2.2	18.7	32.8	43.1	3.1
	만 19 ~ 29 세	1,073	0.9	12.0	33.2	48.7	5.2
	만 30 ~ 39 세	1,098	2.3	16.9	38.7	39.3	2.7
지역	서울	527	0.1	14.8	44.4	39.4	1.2
	인천 / 경기	794	3.6	15.2	38.0	37.9	5.3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7	14.9	25.2	51.1	7.1
	광주/전라/제주	267	1.3	13.8	32.4	47.6	4.8
	부산/울산/경남	382	-	16.9	32.3	49.3	1.6
	대구 / 경북	237	1.8	14.2	30.7	50.5	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4	19.1	33.1	42.8	2.6
	대학생/대학원생	458	1.0	8.2	29.0	57.9	3.9
	고 졸 이 하	799	2.2	19.5	44.5	31.6	2.2
	대 졸 이 상	935	1.4	13.2	31.9	47.8	5.6
주거 형태	동 거	1,525	1.9	14.4	32.6	47.2	4.0
	비 동 거 / 독 립	1,009	1.4	16.2	40.0	38.9	3.6

문80) 지난 1년간 독서 여부

- 지난 1년간 독서 여부에 대해 54.3%가 독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6.6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독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평균 6.5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지난 1년간 독서를 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의 독서 경험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독서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116 지난 1년간 독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읽음		읽지 않음
			%	평균(권)	
전		2,534	54.3	6.6	45.7
성별	남 자	1,315	48.8	6.8	51.2
	여 자	1,219	60.2	6.5	39.8
연령	만 15 ~ 18 세	363	63.4	9.2	36.6
	만 19 ~ 29 세	1,073	58.8	6.1	41.2
	만 30 ~ 39 세	1,098	46.9	6.1	53.1
지역	서울	527	58.1	5.4	41.9
	인천 / 경기	794	56.4	7.4	43.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2.6	8.4	37.4
	광주/전라/제주	267	49.3	7.7	50.7
	부산/울산/경남	382	44.5	4.6	55.5
	대구 / 경북	237	48.6	5.3	51.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62.3	9.2	37.7
	대학생/대학원생	458	71.5	6.4	28.5
	고 졸 이 하	799	36.0	5.2	64.0
	대 졸 이 상	935	58.5	6.5	41.5
주거 형태	동 거	1,525	60.1	6.8	39.9
	비 동 거 / 독 립	1,009	45.6	6.2	54.4

문81)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친구’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자녀’가 28.7%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친구’라는 응답이 여성은 ‘배우자/자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친구’, 만 30~39세에서는 ‘배우자/자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친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 형태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배우자/자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7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	배우자/ 자녀	혼자	연인	그 외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50.7	28.7	7.7	6.9	3.0	2.0	0.9	0.0
성별	남	자 1,315	53.5	23.7	8.4	7.8	2.4	2.7	1.4	-
	여	자 1,219	47.6	34.1	7.0	5.9	3.6	1.3	0.4	0.1
연령	만 15 ~ 18 세	363	85.0	-	6.0	3.8	5.2	-	-	-
	만 19 ~ 29 세	1,073	67.6	6.8	9.6	10.4	3.0	1.6	1.0	-
	만 30 ~ 39 세	1,098	22.9	59.6	6.4	4.4	2.3	3.1	1.2	0.1
지역	서울	527	57.6	29.1	3.3	6.0	2.1	1.7	0.2	-
	인천 / 경기	794	47.9	28.7	7.1	8.7	2.6	3.6	1.4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47.3	23.1	15.3	7.4	5.0	0.7	0.9	0.4
	광주/전라/제주	267	46.1	28.0	10.9	7.2	4.6	3.0	0.2	-
	부산/울산/경남	382	53.4	30.5	7.6	4.9	2.3	0.8	0.6	-
	대구 / 경북	237	50.4	33.6	5.4	4.9	3.1	0.3	2.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85.7	-	6.4	2.4	5.5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76.9	0.0	10.9	10.4	1.1	-	0.7	-
	고 졸 이 하	799	36.8	41.8	5.9	7.2	3.6	2.9	1.7	-
	대 졸 이 상	935	36.9	42.0	8.2	6.5	2.6	3.0	0.8	0.1
주거 형태	동 거	1,525	73.1	2.5	9.2	8.4	3.7	2.1	1.0	-
	비 동 거 / 독 립	1,009	16.8	68.3	5.5	4.5	2.0	1.9	0.9	0.1

문82)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의 경우 88.1%가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가 동호회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서 동호회를 가입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동호회를 가입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연령대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8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34	11.9	88.1
	자			
성별	남	1,315	15.3	84.7
	여	1,219	8.2	91.8
연령	만 15 ~ 18 세	363	5.6	94.4
	만 19 ~ 29 세	1,073	13.3	86.7
	만 30 ~ 39 세	1,098	12.7	87.3
지역	서 울	527	9.4	90.6
	인 천 / 경 기	794	17.7	82.3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8.5	91.5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6.6	93.4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9.1	90.9
	대 구 / 경 북	237	13.5	86.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6	94.4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14.0	86.0
	고 졸 이 하	799	12.0	88.0
	대 졸 이 상	935	13.2	86.8
주거 형태	동 거	1,525	11.6	88.4
	비 동 거 / 독 립	1,009	12.3	87.7

문83)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순위)

-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순위)의 경우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 ‘텔레비전’ 및 ‘SNS 등 소셜미디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이라는 응답이, 비동거/독립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9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	텔레비전	SNS 등 소셜 미디어	종이신문	라디오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59.0	21.4	15.0	3.7	0.8	0.1	0.0
성별	남 자	1,315	62.0	18.8	13.7	4.5	0.9	0.1	0.1
	여 자	1,219	55.7	24.2	16.4	2.9	0.7	0.1	—
연령	만 15 ~ 18 세	363	55.3	18.7	23.5	1.8	—	0.4	0.3
	만 19 ~ 29 세	1,073	62.1	14.3	19.5	3.1	0.9	0.1	—
	만 30 ~ 39 세	1,098	57.1	29.2	7.8	5.0	0.9	—	—
지역	서울	527	59.4	23.9	12.0	3.8	0.7	—	0.2
	인천 / 경기	794	59.8	20.8	12.2	6.3	0.8	—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68.1	15.8	11.9	3.1	0.7	0.4	—
	광주/전라/제주	267	60.3	21.8	17.0	0.3	—	0.6	—
	부산/울산/경남	382	44.7	25.2	26.2	2.1	1.8	—	—
	대구 / 경북	237	63.8	19.0	14.6	2.6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55.6	19.7	22.0	1.9	—	0.4	0.3
	대학생/대학원생	458	67.3	7.9	21.9	2.6	0.4	—	—
	고 졸 이 하	799	55.4	27.8	12.5	2.2	1.8	0.2	—
	대 졸 이 상	935	59.1	23.2	11.1	6.2	0.3	—	—
주거 형태	동 거	1,525	61.6	15.4	19.2	3.1	0.5	0.2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55.0	30.5	8.6	4.8	1.1	—	—

문83-1)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2순위)

-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2순위)에 대해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이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텔레비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SNS 등 소셜미디어’가, 비동거/독립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0 지난 한 달 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 신문 또는 포털	텔레 비전	SNS 등 소셜 미디어	종이 신문	라디오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85.2	61.7	42.5	5.7	3.5	0.1	0.0
성별	남	자 1,315	85.5	59.9	41.8	7.2	4.2	0.1	0.1
	여	자 1,219	84.8	63.6	43.2	4.1	2.9	0.1	-
연령	만 15 ~ 18 세	363	83.1	52.3	58.5	2.9	0.7	0.4	0.3
	만 19 ~ 29 세	1,073	87.1	52.7	51.8	4.2	2.8	0.1	-
	만 30 ~ 39 세	1,098	84.0	73.5	28.1	8.1	5.3	-	-
지역	서울	527	84.9	62.3	43.9	4.7	2.6	-	0.2
	인천 / 경기	794	88.5	62.8	35.3	8.5	4.5	-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85.0	64.5	37.2	4.8	5.4	0.4	-
	광주 / 전라 / 제주	267	82.9	69.1	39.6	1.8	2.7	0.6	-
	부산 / 울산 / 경남	382	81.6	56.0	54.8	5.1	2.0	-	-
	대구 / 경북	237	82.9	53.3	53.9	5.4	3.3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82.2	53.3	58.0	3.1	0.7	0.4	0.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88.8	46.7	58.7	3.5	1.3	-	-
	고 졸 이 하	799	83.9	70.4	33.8	4.1	6.5	0.2	-
	대 졸 이 상	935	85.5	64.7	36.2	9.1	3.2	-	-
주거 형태	동	거 1,525	86.2	54.5	50.8	4.5	2.3	0.2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83.6	72.5	29.9	7.5	5.5	-	-

문84-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일 중시 VS 여가 중시에 대해 40.6%가 여가중시(⑤+⑥+⑦)를 중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5%가 일 중시(①+②+③)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여가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일 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는 여가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만 30~39세에서는 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서 여가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2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일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전		체	2,534	3.1	13.0	18.4	24.8	22.3	16.2	2.1
성별	남	자	1,315	4.1	15.5	20.8	23.0	19.5	14.7	2.4
	여	자	1,219	2.1	10.3	15.8	26.8	25.3	17.8	1.8
연령	만 1 5 ~ 1 8 세		363	2.7	5.4	11.4	28.6	23.6	25.2	3.0
	만 1 9 ~ 2 9 세		1,073	2.8	11.7	17.0	24.4	23.9	18.3	1.9
	만 3 0 ~ 3 9 세		1,098	3.6	16.8	22.1	23.9	20.3	11.2	2.1
지역	서 울		527	0.6	11.0	20.9	23.0	27.6	16.8	0.1
	인 천 / 경 기		794	3.4	13.8	18.1	26.8	19.1	15.7	3.0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6	8.8	16.3	24.9	25.7	17.6	3.2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4.8	11.9	16.4	34.2	20.1	9.0	3.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1.6	19.3	19.1	15.9	19.8	23.2	1.1
	대 구 / 경 북		237	7.6	11.7	17.8	25.7	23.0	11.6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9	5.8	11.6	29.3	22.1	25.2	3.2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1.5	10.0	15.5	25.4	25.7	20.4	1.4
	고 졸 이 하		799	5.2	15.0	19.8	23.6	22.3	13.1	1.0
	대 졸 이 상		935	2.3	15.4	21.1	24.0	20.7	13.5	3.1
주거 형태	동 거		1,525	2.6	11.1	16.7	25.6	22.1	19.7	2.3
	비 동 거 / 독 립		1,009	4.0	15.9	20.9	23.7	22.6	10.9	1.9

문84-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에 대해 68%가 현실이 중시(①+②+③)라고 응답하였으며, 14%가 이상 중시(⑤+⑥+⑦)라고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현실이 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상 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현실이 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현실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전	체	2,534	12.4	28.8	26.8	18.0	9.6	4.0	0.4
	남	1,315	12.9	27.8	25.8	19.7	9.2	4.1	0.5
	여	1,219	11.9	29.9	27.8	16.2	10.1	3.8	0.3
연령	만 15 ~ 18 세	363	12.4	23.7	26.8	18.1	11.7	6.9	0.5
	만 19 ~ 29 세	1,073	11.1	27.9	26.3	19.1	11.1	4.1	0.5
	만 30 ~ 39 세	1,098	13.7	31.4	27.3	17.0	7.5	2.8	0.3
지역	서울	527	1.9	34.4	36.3	15.9	8.6	2.9	-
	인천 / 경기	794	21.9	23.9	23.0	16.7	10.5	3.7	0.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7.7	19.8	25.7	29.9	9.7	5.7	1.4
	광주 / 전라 / 제주	267	13.4	27.5	25.4	19.7	11.2	2.5	0.3
	부산 / 울산 / 경남	382	8.1	37.0	23.5	15.0	9.3	6.6	0.5
	대구 / 경북	237	16.5	33.7	26.3	13.8	7.7	2.1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3.1	22.9	27.3	17.3	11.5	7.4	0.5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8.3	28.0	26.8	17.7	13.9	4.8	0.6
	고 졸 이 하	799	13.2	31.2	26.0	18.4	7.9	2.9	0.3
	대 졸 이 상	935	13.5	29.3	27.2	18.2	8.3	3.2	0.4
주거 형태	동 거	1,525	12.1	26.8	25.8	19.8	10.5	4.6	0.4
	비 동 거 / 독 립	1,009	12.9	31.9	28.2	15.4	8.2	3.1	0.4

문84-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의 경우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①+②+③)이 53.6%로 나타났으며,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⑤+⑥+⑦)이 21.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①+②+③)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①+②+③)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①+②+③)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①+②+③)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2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결과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전	체	2,534	9.7	21.1	22.8	25.3	14.5	5.4	1.2
	자	1,315	10.3	22.0	23.4	24.1	13.8	5.0	1.4
성별	여	1,219	9.1	20.2	22.2	26.5	15.2	5.7	1.0
	자	1,219	9.1	20.2	22.2	26.5	15.2	5.7	1.0
연령	만 15 ~ 18 세	363	11.0	16.0	20.6	23.5	18.4	8.8	1.8
	만 19 ~ 29 세	1,073	9.0	21.2	23.7	25.1	15.6	4.2	1.1
	만 30 ~ 39 세	1,098	10.0	22.8	22.8	26.0	12.0	5.3	1.2
지역	서울	527	0.7	21.3	31.7	27.5	14.5	3.9	0.3
	인천 / 경기	794	20.1	21.7	15.9	23.6	14.4	3.9	0.4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1	14.3	24.1	32.5	17.1	5.7	3.2
	광주 / 전라 / 제주	267	9.5	19.2	23.2	25.6	10.9	8.8	2.9
	부산 / 울산 / 경남	382	5.1	24.9	22.6	23.2	15.4	7.7	1.2
	대구 / 경북	237	11.9	24.5	24.7	18.8	13.6	5.3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1.6	17.0	19.5	23.4	17.4	9.2	1.9
	대학생 / 대학원생	458	5.5	20.1	25.4	23.9	20.5	3.9	0.7
	고 졸 이 하	799	12.5	22.3	21.2	25.9	11.9	4.9	1.3
	대 졸 이 상	935	8.8	22.1	24.2	26.0	12.7	5.0	1.2
주거 형태	동 거	1,525	9.5	19.4	22.8	26.0	15.6	5.4	1.3
	비 동 거 / 독 립	1,009	10.1	23.7	22.8	24.2	12.8	5.3	1.1

문84-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에 대해 개인 중시라는 응답(①+②+③)이 41.4%로 나타났으며, 집단 중시라는 응답(⑤+⑥+⑦)이 21.2%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개인 중시라는 응답(①+②+③)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개인 중시라는 응답(①+②+③)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개인 중시라는 응답(①+②+③)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개인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전	체	2,534	6.3	13.0	22.1	37.4	14.6	5.6	1.0
	남	1,315	7.5	12.4	21.4	37.8	13.8	5.7	1.4
	여	1,219	4.9	13.8	22.8	36.9	15.4	5.5	0.6
연령	만 15 ~ 18 세	363	9.5	13.9	23.8	30.8	14.8	5.3	1.9
	만 19 ~ 29 세	1,073	5.6	13.1	20.9	39.0	14.4	6.0	1.0
	만 30 ~ 39 세	1,098	5.9	12.7	22.7	37.9	14.7	5.4	0.8
지역	서울	527	0.9	13.5	22.5	47.9	12.8	2.5	-
	인천 / 경기	794	11.3	13.9	17.9	35.0	15.7	5.1	0.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4	11.1	22.9	42.8	13.5	4.7	1.6
	광주 / 전라 / 제주	267	7.0	10.6	22.8	31.9	17.1	7.4	3.3
	부산 / 울산 / 경남	382	2.3	14.0	23.0	34.5	16.2	9.8	0.3
	대구 / 경북	237	11.1	13.0	31.9	25.0	10.9	6.9	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0.1	14.8	24.9	29.4	13.2	5.6	2.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4.6	10.6	21.8	38.1	14.7	9.2	1.0
	고 졸 이 하	799	8.1	13.8	21.4	35.3	16.1	4.7	0.6
	대 졸 이 상	935	4.2	13.0	21.8	41.6	13.7	4.7	1.0
주거 형태	동 거	1,525	7.0	14.1	21.6	37.6	13.0	5.8	1.0
	비 동 거 / 독 립	1,009	5.2	11.4	23.0	37.0	17.0	5.3	1.1

문85-1)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1. 즐거운

-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즐거움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느꼈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라는 응답이 75.9%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즐거운 감정을 자주 느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5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1. 즐거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전	체	2,534	0.4	0.8	3.9	18.9	47.4	26.0	2.5
	남	1,315	0.4	0.5	3.9	20.2	49.3	23.8	2.0
	여	1,219	0.3	1.1	4.0	17.6	45.4	28.5	3.1
연령	만 15 ~ 18 세	363	0.1	—	4.7	17.2	49.6	26.1	2.3
	만 19 ~ 29 세	1,073	0.4	1.1	4.9	19.0	45.6	26.7	2.3
	만 30 ~ 39 세	1,098	0.4	0.8	2.7	19.5	48.5	25.4	2.8
지역	서울	527	0.8	0.2	3.0	13.8	50.4	31.7	—
	인천 / 경기	794	0.0	0.3	3.6	21.0	46.9	24.8	3.3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	1.5	4.7	20.5	46.5	25.9	0.9
	광주 / 전라 / 제주	267	1.2	2.2	6.8	19.5	44.2	22.7	3.4
	부산 / 울산 / 경남	382	—	0.2	2.1	16.4	48.5	26.5	6.2
	대구 / 경북	237	0.7	1.7	5.5	24.9	45.5	20.9	0.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1	—	5.0	17.7	49.1	25.7	2.5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0.4	0.2	2.4	18.2	49.5	26.7	2.6
	고 졸 이 하	799	0.5	1.3	4.1	21.4	49.0	22.4	1.3
	대 졸 이 상	935	0.4	1.0	4.1	17.7	44.5	28.9	3.6
주거 형태	동 거	1,525	0.4	1.0	4.8	18.6	48.6	24.4	2.2
	비 동 거 / 독 립	1,009	0.4	0.5	2.6	19.5	45.6	28.6	3.0

문85-2)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2. 행복한

-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행복함의 경우 69.7%가 행복함을 느꼈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26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2. 행복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전 체		2,534	0.4	0.7	6.0	23.0	42.5	24.1	3.1
성별	남 자	1,315	0.4	0.7	6.8	23.5	45.4	20.4	2.7
	여 자	1,219	0.5	0.8	5.2	22.5	39.5	28.1	3.6
연령	만 1 5 ~ 1 8 세	363	0.2	0.2	8.2	23.2	40.4	23.8	4.0
	만 1 9 ~ 2 9 세	1,073	0.5	1.0	7.0	24.5	41.0	23.4	2.6
	만 3 0 ~ 3 9 세	1,098	0.5	0.6	4.3	21.5	44.8	24.9	3.3
지역	서 울	527	0.7	0.2	6.0	22.9	38.7	31.5	-
	인 천 / 경 기	794	0.0	0.3	6.0	24.8	41.1	23.8	4.0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4	0.8	5.4	28.4	40.0	23.2	1.7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4	3.2	9.3	19.1	41.6	22.1	3.4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	0.2	4.3	18.2	50.4	18.7	8.2
	대 구 / 경 북	237	1.0	1.4	6.1	22.1	47.8	21.1	0.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2	0.2	8.7	23.0	40.5	23.1	4.2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0.4	0.4	5.1	24.5	43.1	23.6	2.9
	고 졸 이 하	799	0.5	1.4	6.3	23.6	45.2	21.4	1.6
	대 졸 이 상	935	0.5	0.5	5.3	21.7	40.8	27.0	4.1
주거 형태	동 거	1,525	0.6	0.9	7.6	25.3	41.3	21.6	2.8
	비 동 거 / 독 립	1,009	0.3	0.5	3.6	19.6	44.4	27.9	3.7

문85-3)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3. 짜증나는

-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짜증남의 경우 짜증이 났다는 응답(가끔 느꼈다+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이 56.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짜증이 났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짜증이 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짜증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7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3. 짜증나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전 체		2,534	0.4	5.0	10.1	28.1	38.8	15.8	1.8
성별	남 자	1,315	0.5	4.9	10.7	28.0	38.8	15.2	1.9
	여 자	1,219	0.3	5.1	9.4	28.2	38.9	16.3	1.7
연령	만 1 5 ~ 1 8 세	363	0.6	4.9	8.8	18.6	42.1	23.3	1.7
	만 1 9 ~ 2 9 세	1,073	0.2	5.4	10.9	29.9	36.5	14.4	2.6
	만 3 0 ~ 3 9 세	1,098	0.5	4.6	9.7	29.4	40.0	14.6	1.2
지역	서 울	527	0.1	4.4	6.0	32.0	44.2	13.3	－
	인 천 / 경 기	794	0.2	1.3	5.4	24.7	48.0	18.3	2.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0.3	6.0	14.2	32.1	28.3	18.0	1.1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0.9	12.2	11.8	26.5	27.5	17.7	3.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1.2	9.0	18.0	30.0	28.8	12.7	0.3
	대 구 / 경 북	237	－	2.7	14.4	24.0	39.8	12.4	6.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6	5.1	8.4	18.5	41.5	24.1	1.8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	6.3	14.9	30.1	35.9	10.1	2.7
	고 졸 이 하	799	0.1	2.5	9.0	27.7	41.0	17.3	2.3
	대 졸 이 상	935	0.7	6.4	9.2	31.0	37.5	14.2	1.0
주거 형태	동 거	1,525	0.3	5.1	10.6	26.5	37.9	17.3	2.2
	비 동 거 / 독 립	1,009	0.5	4.8	9.3	30.6	40.2	13.4	1.3

문85-4)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4. 무기력한

-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무기력감의 경우 33.6%가 느끼지 않았다(별로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느꼈다(가끔 느꼈다+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라는 응답은 31.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력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28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_4. 무기력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성별	전 체	2,534	4.6	9.6	19.4	35.0	22.1	7.8	1.4
	남 자	1,315	4.9	9.7	18.2	37.3	21.7	7.4	0.9
	여 자	1,219	4.2	9.4	20.8	32.6	22.6	8.2	2.1
연령	만 15 ~ 18 세	363	5.8	9.0	18.9	30.6	25.4	9.4	0.9
	만 19 ~ 29 세	1,073	3.3	10.7	19.6	34.8	21.6	8.3	1.8
	만 30 ~ 39 세	1,098	5.4	8.7	19.5	36.7	21.6	6.8	1.3
지역	서울	527	1.0	9.7	22.7	40.4	21.9	3.8	0.4
	인천 / 경기	794	6.3	7.8	17.5	35.1	20.9	10.3	2.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5	7.8	21.9	28.8	26.6	11.3	1.0
	광주 / 전라 / 제주	267	6.3	15.6	13.9	24.5	22.0	14.8	2.9
	부산 / 울산 / 경남	382	6.0	13.4	19.3	40.8	18.4	2.2	-
	대구 / 경북	237	5.2	5.0	21.8	34.2	26.7	4.3	3.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6.2	9.5	18.0	29.5	26.1	9.7	0.9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3.4	10.0	23.6	34.4	20.0	6.4	2.2
	고 졸 이 하	799	3.3	8.0	18.6	38.1	21.9	8.4	1.7
	대 졸 이 상	935	5.7	10.7	18.7	34.7	22.0	7.3	1.0
주거 형태	동 거	1,525	4.2	9.7	19.5	33.4	22.1	9.1	2.0
	비 동 거 / 독 립	1,009	5.1	9.3	19.4	37.5	22.2	5.9	0.6

문86)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4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의 경우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12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2,534	0.8	11.2	43.5	43.2	1.2
성별	남 자	1,315	1.0	11.1	44.5	42.2	1.3
	여 자	1,219	0.6	11.4	42.5	44.4	1.1
연령	만 1 5 ~ 1 8 세	363	0.6	12.7	45.9	39.2	1.6
	만 1 9 ~ 2 9 세	1,073	1.3	12.4	41.6	43.4	1.5
	만 3 0 ~ 3 9 세	1,098	0.4	9.7	44.7	44.4	0.8
지역	서 울	527	—	8.4	47.7	43.9	—
	인 천 / 경 기	794	1.3	13.0	45.4	38.3	2.0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4	13.0	48.1	36.6	1.0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6	19.1	38.1	39.7	1.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2	4.2	35.9	59.4	0.4
	대 구 / 경 북	237	0.3	11.8	40.3	45.2	2.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6	11.8	45.8	40.1	1.7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0.6	10.2	40.3	47.3	1.6
	고 졸 이 하	799	1.4	12.9	49.1	35.6	1.0
	대 졸 이 상	935	0.5	10.2	39.5	48.9	1.0
주거 형태	동 거	1,525	1.1	13.0	44.5	40.5	0.9
	비 동 거 / 독 립	1,009	0.3	8.7	42.2	47.3	1.6

문87)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해 27.1%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하였고 24.3%가 '재산·경제력'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재산·경제력' 및 '직업·직장'을 여성은 '화목한 가정'을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9세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재산·경제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3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화목한 가정	재산· 경제력	자아 성취	직업· 직장	건강	친구· 대인 관계	감사· 긍정적 태도	꿈· 목표 의식	연인 (이성 관계 등)	종교 생활	가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27.1	24.3	12.3	11.4	8.0	5.0	4.9	4.9	1.4	0.6	0.0	0.0
성별	남 자	1,315	23.2	25.9	11.8	12.4	8.9	5.8	4.8	4.9	1.7	0.5	0.0	0.0
	여 자	1,219	31.3	22.6	12.8	10.4	7.0	4.1	5.1	4.8	1.1	0.7	-	0.1
연령	만 15 ~ 18 세	363	19.1	19.5	18.5	8.4	9.8	7.6	5.6	9.8	1.0	0.6	-	0.0
	만 19 ~ 29 세	1,073	18.5	22.4	16.0	14.8	7.3	6.8	5.7	6.0	1.8	0.5	-	0.1
	만 30 ~ 39 세	1,098	38.1	27.7	6.6	9.1	8.0	2.4	3.9	2.1	1.1	0.7	0.0	-
지역	서 울	527	27.2	20.8	22.6	9.1	6.4	1.2	4.8	6.0	1.1	0.9	-	-
	인 천 / 경 기	794	22.4	23.1	10.2	18.4	9.3	5.8	3.6	4.8	1.9	0.6	-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9.7	22.2	11.6	6.5	5.1	8.8	8.0	4.5	1.8	1.4	0.1	0.3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34.7	26.8	8.9	6.9	6.8	6.5	3.4	4.8	1.0	0.2	-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25.1	32.2	7.9	8.3	9.5	5.8	4.8	4.6	1.3	0.4	-	-
	대 구 / 경 북	237	33.5	23.8	8.3	10.2	10.1	2.4	7.2	3.7	0.8	-	-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9.5	20.5	18.8	6.9	10.3	7.2	5.7	10.0	0.4	0.6	-	0.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15.8	24.3	18.5	9.3	6.2	8.4	7.1	6.9	2.7	0.6	-	0.2
	고 졸 이 하	799	29.2	30.0	9.7	10.2	8.8	3.8	3.2	3.7	1.0	0.5	-	-
	대 졸 이 상	935	33.6	20.9	9.2	15.2	7.3	3.5	5.0	3.0	1.5	0.7	0.0	-
주거 형태	동 거	1,525	16.9	23.2	15.5	14.2	8.1	7.0	6.0	6.6	1.8	0.5	0.0	0.1
	비 동 거 / 독 립	1,009	42.4	26.0	7.5	7.3	7.8	2.0	3.2	2.3	0.8	0.8	-	-

문88)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4.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0.9%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3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3.2	17.7	44.6	32.3	2.1
	남 자	1,315	3.6	18.3	45.9	30.1	2.1
	여 자	1,219	2.8	17.0	43.3	34.8	2.2
연령	만 15 ~ 18 세	363	3.8	22.9	39.5	30.9	3.0
	만 19 ~ 29 세	1,073	4.2	18.4	45.1	30.2	2.2
	만 30 ~ 39 세	1,098	2.0	15.3	45.9	34.9	1.8
지역	서울	527	0.4	16.7	51.6	31.2	0.1
	인천 / 경기	794	5.0	16.9	48.2	26.7	3.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6	17.1	46.0	34.3	1.1
	광주 / 전라 / 제주	267	4.7	23.7	36.2	32.9	2.5
	부산 / 울산 / 경남	382	3.8	18.4	32.7	42.8	2.4
	대구 / 경북	237	2.8	15.7	44.3	33.2	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0	22.7	38.4	31.8	3.1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3.4	19.1	44.2	31.6	1.7
	고 졸 이 하	799	3.9	19.7	50.2	24.5	1.8
	대 졸 이 상	935	2.2	13.5	42.4	39.6	2.3
주거 형태	동 거	1,525	4.6	20.4	43.5	29.8	1.7
	비 동 거 / 독 립	1,009	1.0	13.7	46.4	36.2	2.7

문89)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의 경우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여성은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132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삶의 주관적 만족감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사회적 지위나 권력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전	체	2,534	42.1	27.1	12.3	11.5	6.9
	자	1,315	40.3	27.5	11.5	13.9	6.8
성별	여	1,219	44.0	26.7	13.2	9.0	7.0
연령	만 15 ~ 18 세	363	42.2	20.7	19.1	12.8	5.3
	만 19 ~ 29 세	1,073	44.6	24.9	13.0	11.2	6.4
	만 30 ~ 39 세	1,098	39.7	31.5	9.4	11.5	8.0
지역	서울	527	39.4	27.8	12.9	12.6	7.2
	인천 / 경기	794	33.6	32.7	13.0	13.4	7.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53.3	17.5	14.1	6.8	8.3
	광주 / 전라 / 제주	267	52.6	22.3	13.9	6.8	4.4
	부산 / 울산 / 경남	382	42.9	28.3	8.1	14.7	6.0
	대구 / 경북	237	47.9	23.8	11.1	9.4	7.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1.7	21.6	18.6	13.0	5.1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51.3	19.4	11.9	11.0	6.4
	고 졸 이 하	799	34.7	35.3	10.5	10.8	8.7
	대 졸 이 상	935	44.0	26.0	11.7	11.9	6.3
주거 형태	동 거	1,525	42.5	24.8	14.2	11.9	6.6
	비 동 거 / 독 립	1,009	41.5	30.6	9.4	11.0	7.4

문90)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노력 · 성실성’이라는 응답이 22.7%였으며, ‘인맥’이 18.6%로 뒤를 이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타고난 자질 · 끼’ ‘학벌 · 학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력 · 성실성’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는 ‘타고난 자질 · 끼’라는 응답이, 비동거/독립에서는 ‘재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3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력 · 성실성	인맥 (학연 · 지연 · 혈연 등)	타고난 자질 · 끼	재력	학벌 · 학력	집안 배경	운	외모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534	22.7	18.6	16.8	14.6	8.1	1.9	0.8	0.1	0.0
성별	남	자	1,315	23.5	20.2	16.2	16.8	13.7	7.8	1.2	0.5	0.2
	여	자	1,219	21.9	17.0	17.4	16.0	15.6	8.5	2.6	1.1	0.0
연령	만 15 ~ 18 세		363	18.4	14.0	22.1	11.0	22.4	8.5	1.8	1.1	0.6
	만 19 ~ 29 세		1,073	22.2	18.4	17.8	14.8	14.8	8.7	2.2	1.0	0.1
	만 30 ~ 39 세		1,098	24.5	20.4	14.0	19.8	11.8	7.4	1.5	0.5	—
지역	서울		527	18.2	18.6	19.3	16.9	15.6	9.6	1.5	0.3	—
	인천 / 경기		794	18.0	17.8	13.2	22.5	17.7	8.6	1.7	0.6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34.7	15.7	19.9	8.5	11.4	6.7	1.7	1.3	0.2
	광주/전라/제주		267	33.5	13.4	17.4	12.2	10.2	8.2	2.8	1.6	0.8
	부산/울산/경남		382	19.1	29.4	13.2	15.6	12.3	7.8	1.9	0.5	—
	대구 / 경북		237	25.4	14.2	23.7	12.2	15.1	5.9	2.3	1.3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8.4	13.6	22.5	11.4	21.9	8.6	1.8	1.1	0.6
	대학생/대학원생		458	17.2	20.4	19.2	12.2	18.4	9.8	1.6	1.2	0.1
	고 졸 이 하		799	22.8	19.0	14.4	22.5	10.8	7.9	2.0	0.5	—
	대 졸 이 상		935	26.9	19.3	15.5	15.2	13.3	7.3	1.9	0.7	—
주거 형태	동	거	1,525	20.5	17.7	18.1	14.6	16.7	9.2	2.2	0.9	0.2
	비 동 거 / 독 립		1,009	26.0	20.1	14.7	19.3	11.4	6.5	1.4	0.7	—

문91) 본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

- 본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⑥+⑦+⑧+⑨+⑩)라는 응답이 72.8%로 나타났으며, 가능성이 없다(①+②+③+④+⑤)라는 응답이 27.3%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134 본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 (전혀 없다)	2	3	4	5	6	7	8	9	10 (매우 많다)
전 체		2,534	0.3	0.7	2.5	6.9	16.9	24.3	29.6	14.4	2.9	1.6
성별	남 자	1,315	0.3	0.7	2.7	6.7	17.4	24.4	29.1	13.9	2.9	1.8
	여 자	1,219	0.2	0.6	2.2	7.2	16.3	24.2	30.0	14.9	3.0	1.3
연령	만 15 ~ 18 세	363	—	0.8	2.3	6.8	20.1	21.6	30.0	13.6	2.5	2.3
	만 19 ~ 29 세	1,073	0.1	0.8	2.0	7.1	13.7	24.8	31.2	15.9	3.2	1.3
	만 30 ~ 39 세	1,098	0.5	0.5	3.0	6.8	18.9	24.7	27.8	13.2	2.9	1.6
지역	서 울	527	—	—	2.4	9.2	13.5	24.0	40.4	8.9	1.1	0.4
	인 천 / 경 기	794	0.2	0.6	2.7	8.0	23.0	25.9	26.4	9.5	2.3	1.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3	0.3	0.8	4.7	17.4	28.7	24.4	17.7	3.2	1.4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0.1	0.5	3.4	5.1	15.3	20.1	20.0	24.2	5.7	5.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	2.7	3.6	5.4	12.6	17.6	26.4	25.3	6.3	0.2
	대 구 / 경 북	237	0.3	—	1.2	6.1	11.9	29.0	39.0	9.9	0.3	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	0.9	2.4	5.3	21.1	21.2	30.2	13.8	2.6	2.4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0.2	0.8	0.5	4.0	12.9	25.8	32.4	18.9	3.5	1.1
	고 졸 이 하	799	0.3	0.9	3.9	11.3	18.6	25.1	27.1	9.9	1.9	1.0
	대 졸 이 상	935	0.4	0.4	2.2	5.3	15.9	23.9	30.1	16.4	3.6	1.9
주거 형태	동 거	1,525	0.2	0.9	2.6	7.0	15.8	24.9	29.9	14.1	3.0	1.6
	비 동 거 / 독 립	1,009	0.4	0.3	2.3	6.9	18.4	23.4	29.1	14.9	2.9	1.4

문92) 친한 친구

- 친한 친구 유무에 대해 91.3%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평균 3.2명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친한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인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친한 친구가 있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6명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함.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친한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35 친한 친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	평균(명)	
전	체	2,534	91.3	3.2	8.7
성별	남 자	1,315	90.6	3.5	9.4
	여 자	1,219	92.1	2.9	7.9
연령	만 15 ~ 18 세	363	94.6	3.7	5.4
	만 19 ~ 29 세	1,073	93.4	3.2	6.6
	만 30 ~ 39 세	1,098	88.1	2.9	11.9
지역	서 울	527	94.6	3.6	5.4
	인 천 / 경 기	794	91.9	2.8	8.1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88.5	3.4	11.5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91.1	3.6	8.9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89.4	3.0	10.6
	대 구 / 경 북	237	89.1	3.1	10.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94.7	3.7	5.3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94.1	3.5	5.9
	고 졸 이 하	799	87.7	2.9	12.3
	대 졸 이 상	935	91.8	3.0	8.2
주거 형태	동 거	1,525	93.1	3.3	6.9
	비 동 거 / 독 립	1,009	88.6	3.0	11.4

문93-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6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0.6	9.7	31.9	50.3	7.5
	남 자	1,315	1.0	10.2	31.6	48.7	8.5
	여 자	1,219	0.2	9.1	32.2	52.0	6.5
연령	만 15 ~ 18 세	363	0.9	7.8	28.5	52.8	9.9
	만 19 ~ 29 세	1,073	0.6	10.4	33.1	48.8	7.2
	만 30 ~ 39 세	1,098	0.6	9.6	31.8	50.9	7.1
지역	서 울	527	-	12.4	38.8	47.5	1.3
	인 천 / 경 기	794	0.3	12.3	27.4	44.8	15.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1	5.7	33.1	54.6	5.5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3	10.0	35.4	48.6	3.8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6	3.8	29.7	60.6	5.3
	대 구 / 경 북	237	0.5	9.5	29.3	54.5	6.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0	7.9	28.1	52.8	10.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0.4	5.9	32.6	52.4	8.7
	고 졸 이 하	799	0.6	11.9	35.5	45.8	6.2
	대 졸 이 상	935	0.6	10.3	29.9	52.1	7.1
주거 형태	동 거	1,525	0.6	9.8	30.7	50.3	8.6
	비 동 거 / 독 립	1,009	0.7	9.6	33.6	50.3	5.9

문93-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8.9%,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37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2.4	26.5	42.7	25.6	2.8
성별	남 자	1,315	2.5	26.1	41.5	27.0	2.9
	여 자	1,219	2.3	27.0	44.0	24.1	2.6
연령	만 1 5 ~ 1 8 세	363	4.2	24.1	44.0	25.3	2.3
	만 1 9 ~ 2 9 세	1,073	2.2	26.0	42.2	26.8	2.8
	만 3 0 ~ 3 9 세	1,098	1.9	27.8	42.8	24.6	2.9
지역	서 울	527	1.6	30.0	39.2	27.2	2.0
	인 천 / 경 기	794	2.3	25.3	47.1	23.1	2.2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1	25.4	46.9	21.0	5.7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4	29.2	42.4	25.1	1.9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1.8	23.7	41.2	29.6	3.6
	대 구 / 경 북	237	8.0	25.7	33.0	31.2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4.1	23.3	44.2	26.0	2.5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2.3	25.0	38.1	31.0	3.7
	고 졸 이 하	799	1.1	25.4	48.8	22.9	1.9
	대 졸 이 상	935	2.8	29.4	39.3	25.2	3.2
주거 형태	동 거	1,525	2.7	25.6	42.2	26.7	2.7
	비 동 거 / 독 립	1,009	1.8	27.9	43.5	24.0	2.9

문93-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31.6%로 나타났으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9.4%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138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1.8	29.8	39.0	26.1	3.3
	남 자	1,315	2.0	28.0	39.8	27.0	3.3
	여 자	1,219	1.7	31.7	38.3	25.1	3.3
연령	만 1 5 ~ 1 8 세	363	1.6	26.8	43.4	24.5	3.8
	만 1 9 ~ 2 9 세	1,073	1.4	31.3	37.3	27.2	2.8
	만 3 0 ~ 3 9 세	1,098	2.3	29.3	39.3	25.5	3.5
지역	서 울	527	1.4	38.0	33.2	26.9	0.5
	인 천 / 경 기	794	3.2	24.7	38.1	29.1	4.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	24.8	48.3	21.3	5.5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4	25.9	44.9	23.7	4.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8	37.6	40.8	20.2	0.6
	대 구 / 경 북	237	2.8	27.3	33.1	32.9	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7	27.3	42.2	24.9	4.0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0.9	32.6	35.9	27.0	3.6
	고 졸 이 하	799	1.2	28.8	41.1	26.1	2.8
	대 졸 이 상	935	2.9	30.1	37.7	26.1	3.2
주거 형태	동 거	1,525	1.3	28.7	39.8	26.4	3.8
	비 동 거 / 독 립	1,009	2.7	31.4	37.9	25.5	2.4

문94-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노인들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에 대해 38.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 18세 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9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2.2	18.5	41.0	33.4	5.0
	남 자	1,315	2.9	18.1	42.7	32.1	4.2
	여 자	1,219	1.5	18.9	39.1	34.7	5.8
연령	만 1 5 ~ 1 8 세	363	1.2	13.6	41.2	35.9	8.1
	만 1 9 ~ 2 9 세	1,073	2.2	18.2	41.7	33.0	4.9
	만 3 0 ~ 3 9 세	1,098	2.6	20.3	40.2	32.9	4.0
지역	서 울	527	0.3	29.6	46.0	23.3	0.8
	인 천 / 경 기	794	2.5	17.2	41.0	33.4	5.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7	16.7	42.3	34.4	3.9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5.2	14.8	39.0	31.8	9.3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0.8	12.0	39.0	43.2	5.0
	대 구 / 경 북	237	3.5	14.8	33.7	40.2	7.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3	14.1	41.3	36.3	7.0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0.7	21.4	37.9	35.3	4.7
	고 졸 이 하	799	3.9	18.8	42.2	32.3	2.9
	대 졸 이 상	935	1.8	18.4	41.3	32.2	6.2
주거 형태	동 거	1,525	1.6	17.8	41.2	33.9	5.6
	비 동 거 / 독 립	1,009	3.1	19.6	40.7	32.6	4.1

문94-2)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노인은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에 대해 40.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생(만 15~18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40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34	1.1	20.0	38.5	36.7	3.7
	자	1,315	1.0	20.7	37.0	38.1	3.2
성별	여	1,219	1.1	19.3	40.1	35.1	4.3
연령	만 15 ~ 18 세	363	1.0	18.8	37.6	39.5	3.1
	만 19 ~ 29 세	1,073	0.9	21.0	38.1	36.2	3.8
	만 30 ~ 39 세	1,098	1.2	19.5	39.3	36.2	3.8
지역	서울	527	-	24.5	45.4	29.5	0.6
	인천 / 경기	794	1.8	18.1	35.3	41.1	3.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1	12.9	37.8	43.5	4.7
	광주/전라/제주	267	1.4	16.2	37.5	35.9	9.1
	부산/울산/경남	382	0.6	25.1	40.7	30.6	3.0
	대구 / 경북	237	1.4	22.7	33.1	38.9	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1	19.0	35.8	40.9	3.3
	대학생/대학원생	458	1.0	18.8	41.1	34.4	4.7
	고 졸 이 하	799	1.1	20.7	39.8	35.3	3.1
	대 졸 이 상	935	1.1	20.4	37.2	37.5	3.9
주거 형태	동	1,525	0.8	19.4	37.6	38.1	4.0
	비 동 거 / 독 립	1,009	1.4	21.0	39.9	34.5	3.2

문94-3)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의 경우 34.7%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8%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1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1.3	21.5	42.5	31.1	3.6
	남 자	1,315	1.7	22.5	43.0	28.3	4.5
	여 자	1,219	0.9	20.3	41.9	34.2	2.6
연령	만 15 ~ 18 세	363	0.8	19.7	44.0	31.9	3.6
	만 19 ~ 29 세	1,073	1.0	21.2	42.2	31.7	3.9
	만 30 ~ 39 세	1,098	1.8	22.4	42.3	30.3	3.2
지역	서울	527	0.9	26.9	35.3	35.4	1.5
	인천 / 경기	794	1.6	25.7	48.6	21.1	3.0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2	16.2	41.5	37.1	4.0
	광주 / 전라 / 제주	267	2.4	18.7	38.4	32.2	8.4
	부산 / 울산 / 경남	382	0.2	12.9	49.0	33.8	4.1
	대구 / 경북	237	2.0	19.6	33.6	41.6	3.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0.4	20.7	44.8	30.2	3.8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58	1.6	20.7	39.4	34.5	3.8
	고 졸 이 하	799	0.9	20.7	42.8	31.8	3.7
	대 졸 이 상	935	1.9	22.8	42.9	29.2	3.2
주거 형태	동 거	1,525	1.1	21.7	42.2	31.3	3.7
	비 동 거 / 독 립	1,009	1.6	21.1	42.9	30.8	3.5

문94-4)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7.3%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II-142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534	4.0	23.3	43.5	24.6	4.5
	남 자	1,315	4.8	23.3	42.4	24.0	5.5
	여 자	1,219	3.2	23.3	44.7	25.3	3.5
연령	만 15 ~ 18 세	363	3.7	26.1	40.3	27.1	2.8
	만 19 ~ 29 세	1,073	3.9	23.3	42.6	25.1	5.2
	만 30 ~ 39 세	1,098	4.3	22.4	45.5	23.3	4.5
지역	서울	527	0.1	22.1	50.5	26.3	0.9
	인천 / 경기	794	9.6	26.8	37.9	21.0	4.7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8	13.8	47.1	31.5	5.7
	광주 / 전라 / 제주	267	4.3	21.7	38.6	26.6	8.7
	부산 / 울산 / 경남	382	0.4	20.6	50.7	23.7	4.7
	대구 / 경북	237	2.7	33.6	35.8	22.4	5.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3.9	27.2	40.1	25.7	3.0
	대학생 / 대학원생	458	3.0	22.3	44.3	26.0	4.3
	고 졸 이 하	799	5.6	23.3	45.0	21.9	4.2
	대 졸 이 상	935	3.2	22.4	43.1	25.8	5.5
주거 형태	동 거	1,525	4.2	24.4	41.6	25.2	4.6
	비 동 거 / 독 립	1,009	3.8	21.7	46.4	23.6	4.5

문95-1)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의 경우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가 38.7%로 나타났으며,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3.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534	14.3	24.4	27.8	30.5	3.0
성별	남	자	1,315	12.9	24.4	30.7	29.8	2.2
	여	자	1,219	15.8	24.4	24.6	31.3	3.8
연령	만 1 5 ~ 1 8 세		363	10.1	19.6	24.0	40.8	5.5
	만 1 9 ~ 2 9 세		1,073	12.4	21.7	30.7	31.9	3.3
	만 3 0 ~ 3 9 세		1,098	17.6	28.6	26.2	25.8	1.8
지역	서 울		527	11.6	19.0	27.1	40.4	1.9
	인 천 / 경 기		794	16.8	28.6	24.9	26.2	3.5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6.0	18.5	28.7	34.0	2.8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22.1	25.5	30.3	20.6	1.5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6.3	23.6	30.8	35.2	4.1
	대 구 / 경 북		237	13.5	30.3	30.2	22.2	3.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0.7	19.5	24.4	40.0	5.4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11.5	17.3	28.0	38.8	4.5
	고 졸 이 하		799	17.3	32.1	27.2	22.1	1.4
	대 졸 이 상		935	14.5	23.0	29.5	30.3	2.7
주거 형태	동 거		1,525	11.9	23.3	27.2	33.9	3.7
	비 동 거 / 독 립		1,009	17.9	26.0	28.7	25.5	1.9

문95-2)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의 경우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41.7%,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4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534	16.5	25.2	25.3	28.4	4.6
성별	남	자 1,315	17.4	26.2	26.3	26.7	3.5
	여	자 1,219	15.5	24.1	24.3	30.3	5.9
연령	만 15 ~ 18 세	363	15.0	19.9	20.5	38.8	5.9
	만 19 ~ 29 세	1,073	14.6	23.9	26.0	29.7	5.8
	만 30 ~ 39 세	1,098	18.8	28.2	26.2	23.7	3.1
지역	서울	527	15.1	28.6	22.9	32.1	1.4
	인천 / 경기	794	23.0	20.3	24.5	25.3	6.8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6.1	22.8	28.4	29.4	3.3
	광주 / 전라 / 제주	267	7.9	19.1	34.6	35.1	3.2
	부산 / 울산 / 경남	382	11.3	32.8	23.8	23.9	8.2
	대구 / 경북	237	16.3	31.6	20.8	28.8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5.9	20.0	21.2	37.4	5.4
	대 학생 / 대 학원생	458	14.2	22.6	22.0	36.9	4.4
	고 졸 이 하	799	19.2	27.9	26.2	23.4	3.3
	대 졸 이 상	935	15.5	26.0	27.6	25.2	5.6
주거 형태	동	거 1,525	15.6	23.7	23.9	31.8	5.0
	비 동 거 / 독 립	1,009	17.9	27.4	27.4	23.2	4.1

문95-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3. 서명에 참여하기

- 서명에 참여하기에 대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34.8%,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4.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 -14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3.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534	14.9	19.9	31.0	28.2	6.0
	남	1,315	14.1	19.8	33.2	28.1	4.7
	여	1,219	15.8	20.0	28.6	28.2	7.3
연령	만 15 ~ 18 세	363	11.2	19.7	31.3	28.0	9.7
	만 19 ~ 29 세	1,073	13.5	19.3	32.4	29.1	5.7
	만 30 ~ 39 세	1,098	17.5	20.6	29.6	27.3	5.0
지역	서울	527	15.9	26.4	30.6	24.9	2.3
	인천 / 경기	794	21.5	15.9	29.1	25.6	7.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13.4	18.9	29.6	34.1	3.9
	광주 / 전라 / 제주	267	6.6	14.5	37.2	36.7	5.0
	부산 / 울산 / 경남	382	7.3	25.4	30.3	26.7	10.3
	대구 / 경북	237	14.7	17.5	34.6	28.6	4.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11.9	20.0	31.5	28.6	7.9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11.1	15.8	31.7	34.5	7.0
	고 졸 이 하	799	20.1	20.8	31.6	21.5	6.0
	대 졸 이 상	935	13.5	21.1	30.1	30.5	4.8
주거 형태	동 거	1,525	13.0	19.1	32.6	28.5	6.9
	비 동 거 / 독 립	1,009	17.9	21.1	28.7	27.7	4.6

문95-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 대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57.9%,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12.7%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서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146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534	24.4	33.5	29.5	11.2	1.5
	자	1,315	23.8	32.6	30.4	12.2	1.0
성별	여	1,219	25.1	34.5	28.4	10.0	2.0
	만 15 ~ 18 세	363	21.0	36.3	27.8	11.7	3.1
연령	만 19 ~ 29 세	1,073	23.2	32.0	32.3	10.5	2.1
	만 30 ~ 39 세	1,098	26.7	34.0	27.3	11.6	0.4
지역	서울	527	23.4	32.3	31.7	11.6	1.0
	인천 / 경기	794	30.8	31.0	24.7	10.5	2.9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20.3	30.0	36.1	12.6	1.0
	광주 / 전라 / 제주	267	26.6	33.5	28.3	10.7	0.8
	부산 / 울산 / 경남	382	14.0	35.2	34.8	15.2	0.9
	대구 / 경북	237	25.4	46.4	23.8	4.4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20.4	37.4	27.9	12.1	2.1
	대 학생 / 대 학원 생	458	19.9	32.5	32.0	12.8	2.9
	고 졸 이 하	799	29.7	34.0	27.3	7.9	1.2
	대 졸 이 상	935	23.5	32.1	30.7	12.9	0.8
주거 형태	동 거	1,525	22.6	33.3	30.6	11.4	2.2
	비 동 거 / 독 립	1,009	27.1	33.8	27.8	10.8	0.3

문96)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불공정+매우 불공정) 56.0%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공정+매우 공정)은 9.9%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불공정+매우 불공정)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불공정+매우 불공정)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생(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불공정+매우 불공정)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7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공정	불공정	보통	공정	매우 공정	
전		체	2,534	8.7	47.3	34.2	9.8	0.1
성별	남	자	1,315	9.1	49.6	32.2	9.0	0.1
	여	자	1,219	8.3	44.8	36.3	10.6	－
연령	만 1 5 ~ 1 8 세	363	8.3	49.6	35.0	7.1	0.0	
	만 1 9 ~ 2 9 세	1,073	9.2	45.5	33.3	11.9	0.1	
	만 3 0 ~ 3 9 세	1,098	8.3	48.3	34.7	8.6	－	
지역	서	울	527	3.0	55.3	32.3	9.5	－
	인 천 / 경 기	794	12.5	47.4	34.5	5.7	－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7.9	40.5	44.4	7.0	0.3	
	광 주 / 전 라 / 제 주	267	13.9	49.3	24.7	11.9	0.1	
	부 산 / 울 산 / 경 남	382	7.3	39.0	33.5	20.2	－	
	대 구 / 경 북	237	6.2	49.9	34.8	9.1	－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42	8.8	49.2	35.1	6.9	0.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58	7.7	48.9	32.9	10.3	0.2	
	고 졸 이 하	799	10.5	46.3	35.2	7.9	－	
	대 졸 이 상	935	7.6	46.7	33.5	12.2	0.0	
주거 형태	동	거	1,525	8.7	47.6	33.1	10.5	0.0
	비 동 거 / 독 립	1,009	8.7	46.8	35.7	8.7	0.1	

문97) 정치적 성향

- 정치적 성향에 대해 65.8%가 진보(①+②+③+④+⑤)라고 응답하였고, 34.2%가 보수(⑥+⑦+⑧+⑨+⑩)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진보(①+②+③+④+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진보(①+②+③+④+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보수(⑥+⑦+⑧+⑨+⑩)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서 진보(①+②+③+④+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8 정치적 성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 (매우 진보)	2	3	4	5	6	7	8	9	10 (매우 보수)
전	체	2,192	1.7	5.6	12.9	16.9	28.7	16.8	10.7	5.7	0.4	0.6
	남 자	1,134	1.3	6.8	13.7	18.8	26.2	17.4	9.5	5.5	0.3	0.6
	여 자	1,059	2.1	4.4	12.1	14.9	31.4	16.2	12.0	6.0	0.4	0.5
연령	만 15 ~ 18 세	21	-	-	4.8	40.4	20.5	30.4	4.0	-	-	-
	만 19 ~ 29 세	1,073	2.2	6.6	13.1	17.0	29.3	15.8	10.0	5.3	0.0	0.6
	만 30 ~ 39 세	1,098	1.2	4.7	12.9	16.4	28.3	17.5	11.5	6.2	0.7	0.5
지역	서울	467	0.4	3.7	17.6	22.7	23.5	18.1	9.2	4.6	-	0.2
	인천 / 경기	689	3.1	8.1	11.3	16.3	33.6	12.0	10.4	4.2	0.4	0.4
	대전/충청/세종/강원	283	0.7	4.9	11.9	13.9	32.4	21.3	10.9	3.2	0.7	0.2
	광주/전라/제주	222	0.9	3.3	10.4	20.1	36.3	14.6	8.2	4.7	-	1.6
	부산/울산/경남	329	0.8	6.8	17.7	14.9	17.0	14.3	14.3	14.2	-	-
	대구 / 경북	201	3.2	2.7	4.2	9.8	29.8	30.3	12.1	4.3	1.5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	-	-	-	-	-	-	-	-	-	-
	대학생/대학원생	458	0.6	5.5	13.6	17.3	29.0	19.2	10.0	4.7	0.1	0.0
	고 졸 이 하	799	2.0	5.6	11.5	17.1	30.6	15.1	12.7	4.1	0.5	0.9
	대 졸 이 상	935	1.9	5.7	13.8	16.6	27.0	17.1	9.4	7.6	0.4	0.5
주거 형태	동 거	1,185	0.8	6.7	12.5	18.4	28.6	16.4	10.3	5.6	0.5	0.3
	비 동 거 / 독 립	1,007	2.7	4.3	13.5	15.2	28.8	17.3	11.3	5.9	0.2	0.9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제 III 장



부 록

1. FGI 참여 대상자
2. FGI 질문표
3. 조사 참여 안내문
4. 조사 동의서
5. 설문지

제 III 장

부 록

1. FGI 참여 대상자

부록표 1-1 FGI 참여 대상자

구분	번호	이름	나이	성별	거주지	직장/학교명
만15-18세 설문지	1	△△△	15	여	인천 △△구	△△중학교
	2	◎◎◎	17	여	서울 ◎◎구	◎◎고등학교
	3	▲▲▲	18	남	서울 ▲▲구	▲▲고등학교
만19-39세 설문지	1	□□□	21	여	서울 □□구	□□대학교
	2	▣▣▣	25	남	서울 ▣▣구	▣▣대학교
	3	●●●	27	여	서울 ●●구	●●초등학교
	4	▽▽▽	30	남	서울 ▽▽구	▽▽자동차
	5	●●●	34	여	서울 ●●구	●●공단
	6	◎◎◎	37	남	서울 ◎◎구	◎◎연구원

2. FGI 질문표

「청년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FGI 체크리스트(A그룹)

학년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	연령	()세	성명	
----	-------------------------	----	------	----	--

·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학생이 느꼈던 점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1	조사표에서 <u>표현 방법</u> 이 <u>잘못된 문항</u> 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2	<u>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보기</u> 가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3	<u>문항 순서가 이상한 부분</u> 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4	자세한 <u>조사지침</u> 이 <u>필요한 문항이나 보기가</u> 있었습니까? (예 : 용어 설명 등)	1. 있음 2. 없음			
5	응답하기 <u>기분 나쁜</u> 문항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6	학생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감 사 합 니 다 ◎

「청년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FGI 체크리스트(B그룹)

연령	()세	성명	
----	------	----	--

·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1	조사표에서 표현 방법이 잘못된 문항 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2	<u>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u> <u>보기</u>가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3	<u>문항 순서가 이상한 부분</u> 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4	자세한 <u>조사지침</u> 이 <u>필요한 문항</u> 이나 보기가 있었습니까? (예 : 용어 설명 등)	1. 있음 2. 없음			
5	응답하기 <u>기분 나쁜</u> <u>문항</u> 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NO	항 목	해당 여부	내 용		
			페이지 번호	문항 번호	내용
6	본인의 <u>상황과 맞지 않는</u> 문항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감 사 합 니 다 ◎

3. 조사 참여 안내문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 참여 안내문

연구과제명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안내문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가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문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원 또는 "9. 조사관련 문의"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 요인들을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2.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나요?

- 이 조사에는 전국의 만 15세 ~ 39세 2,500명의 청년이 참여합니다.

3. 조사참여 방법

- 귀하가 이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배부해 드린 조사동의서를 작성한 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조사 시간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5. 조사 불참 또는 중단 시의 불이익

- 귀하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중단하고 싶다면 조사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6. 조사내용과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

- 이 조사는 귀하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응답 내용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 조사 참여에 따른 이득

- 귀하가 이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간단한 선물 이외에는 어떠한 직접적 이득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나라 청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의 보장

- 조사를 통해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는 이 조사의 연구진에 의해서 다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

- 1)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2)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통계분석을 할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 변환하여 처리됩니다.
-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조사결과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4) 이 조사의 연구진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위원은, 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과정과 절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가 조사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조사 관련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사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234 / kihuns@nypi.re.kr
 - 조사담당자 : 이성화(한국갤럽조사연구소), 02-3702-2198 / shalee@gallup.co.kr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실사 사무실
 - (서울) 윤지은 과장 02-3702-2669 (대전) 이소희 과장 042-224-9500
 - (부산) 장은정 대리 051-816-5332 (광주) 남수현 대리 062-222-4997
 - (대구) 양지연 차장 053-255-4605
- 만일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 연락처 : 044-415-2100 / yiwon@nypi.re.kr

10. 담당 조사원 연락처

조사원 성명	연락처
--------	-----

4. 조사 동의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 동의서

(만15-18세)

연구과제명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서명일 : 2016년 _____월 _____일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 동의서

(만19-39세)

연구과제명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서명일 : 2016년 _____월 _____일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5.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81

Gallup 2016-163-00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만15-18세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5세에서 만 18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또는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만 19세 ~ 만 39세용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집계구/가구/가구원 번호	집계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집계구 주소(구/동)	/		
상세 주소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미진행 가구원 사유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이성화 차장 || ☎ 02-3702-2198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e-book 포함)을 읽으셨습니까?

① 읽지 않음

② 읽음 : 1 5 권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X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182

문19) 만약 귀하의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늘리시겠습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료품비 | ⑦ 보건의료비 |
| ② 외식비 |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
| ③ 의류비 | ⑨ 경조사비 |
| ④ 교육비 | ⑩ 주거비 |
| ⑤ 교통·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문화여가비 | |

문20)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21) 소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⑤ 낮은 급여 수준 |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③ 고용 불안정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3)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 24로 이동

문23-1)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③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④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⑦ 지인이 함께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⑧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2)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주거」영역(문25)으로 이동

문24-1) 준비하거나 하셨던 주된 시험 종류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시(행정, 사법, 외무, 기술 등)
 ② 공무원 시험(7급, 9급 등)
 ③ 교원임용고시
 ④ 공단, 공사 시험
 ⑤ 국가전문자격시험(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2) 준비하거나 하셨던 주된 시험에 합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3년 이내
 ④ 향후 3년~5년 이내
 ⑤ 향후 5년~7년 이내
 ⑥ 향후 7년~10년 이내
 ⑦ 향후 10년~20년 이내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 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8)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 ① 자가(본인 명의의 집) ④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② 자가(부모님 명의의 집) ⑤ 무상 및 기타(기숙사 등)
③ 전세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31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건강, 영역(문32)으로 이동**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건강, 영역(문32)으로 이동**

- ①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② 취업 전까지 동거
③ 결혼 전까지 동거
④ 결혼 후에도 동거
⑤ 출산 후에도 동거
⑥ 내 집 마련까지 동거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키 :

--	--	--

 cm, 몸무게 :

--	--	--

 kg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느낀다

 학생인 경우 학기 중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 분

문37)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38로 이동

문3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⑤ 일주일에 5번

② 일주일에 2번

⑥ 일주일에 6번

③ 일주일에 3번

⑦ 매일

④ 일주일에 4번

문38)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39)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 「문화와 가치관」영역(문40)으로 이동

문39-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화와 가치관」영역(문40)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 39-2로 이동

문39-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문화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0) 귀하는 평소 문화예술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문4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e-book 포함)을 읽으셨습니까? (강의교재, 수험서, 교과서, 만화책, 잡지 제외)

① 읽지 않음

② 읽음 : 권

문4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⑦ 직업·직장 |
| ② 화목한 가정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③ 자아성취 | ⑨ 친구·대인관계 |
| ④ 건강 | ⑩ 꿈·목표의식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종교생활 | |

문4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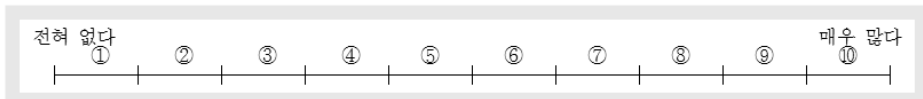
문50)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 ④ 삶의 주관적 만족감 |
|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 ⑤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
| ③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문5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타고난 자질·끼 | ⑥ 인맥(학연·지연·혈연 등) |
| ② 학벌·학력 | ⑦ 외모 |
| ③ 집안 배경 | ⑧ 운 |
| ④ 재력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⑤ 노력·성실성 | |

문52) 귀하가 답한 '성공의 평가기준'과 '성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귀하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많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3)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5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55)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목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56) 귀하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공정 ② 불공정 ③ 보통 ④ 공정 ⑤ 매우 공정

VIII. 다음은 「지속 가능한 발전」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환경 문제(폐적한 환경 유지, 자연 보호, 오염 예방, 기후변화 대처 등)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이 없다
② 별로 관련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련이 있다
⑤ 매우 관련이 있다

문58)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문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①	②	③	④	⑤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양질의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①	②	③	④	⑤
(9)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①	②	③	④	⑤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①	②	③	④	⑤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①	②	③	④	⑤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①	②	③	④	⑤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①	②	③	④	⑤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문60)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귀하 스스로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①	②	③	④	⑤

문61) 다음의 각 사회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계층 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연금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함	①	②	③	④	⑤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①	②	③	④	⑤

문62) 귀하의 토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② 계층 간 불평등
 ③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④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⑤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⑥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⑦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⑧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⑩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63) 귀하는 귀하의 또래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63-1) (문63에서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응답자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②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③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④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⑤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⑥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64)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귀하 또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력이 없다
② 별로 영향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영향력이 있다
⑤ 매우 영향력이 있다

문65)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IX.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연령]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일

배경문항 3) [지역] 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배경문항4) [가족배경]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상

배경문항5)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6) 부모님 중 외국 출신인 분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배경문항7) 북한에서 이탈한 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전 화 번 호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 짜	2016년 ()월 ()일
응답	시 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총()분간 응답

에디팅(editing) 기록표

조 사 원	성 명				
	I D				
	1차(현장) 에 디 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 감독원	성 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 명				
	I 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일련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82

Gallup 2016-163-00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만19-39세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9세에서 만 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신 분은 만 15세 ~ 만 18세용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가원이 기입합니다.

집계구/가구/가구원 번호	집계구 번호					·	가구 번호					·	가구원 번호				
집계구 주소(구/동)	/																
상세 주소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미전행 가구원 사유	
------------	--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이성화 차장 || ☎ 02-3702-2198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귀하는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습니까?

만

3	1
---	---

 세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등,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등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⑤ 가구의 소득 중대 |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⑥ 가구의 소득 중대 |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④ 아동수당 신설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문7)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8)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9로 이동

문8-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문9) 미취업이나 직업(직장)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11로 이동

문10-1) 결혼비용(혼수,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11)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 문 13으로 이동

문11-1) 귀하는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습니까?

만 세

문19)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재 학생이신 분은 현재 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재학	휴학	중퇴	졸업
(1) 중학교	①	②	③	④
(2) 고등학교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 ③ 자율고 ④ 특수목적고 ⑤ 기타 ()	①	②	③	④
(구 실업/전문계고 (외고/과학고 등)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중학교 재학/휴학/중퇴/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졸업)는 **문 35로 이동**

구 분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3) 2-3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⑤
(4) 4년제 대학교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원 석사	①	②	③	④	⑤
(6) 대학원 박사	①	②	③	④	⑤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문 20으로 이동**

문20) 귀하가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최종적으로 다니신 대학은 어디입니까? 소재지와 학교명을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대학원이 아닌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_____ 소재 (17개 시도 기준) _____ 대학교/대학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_____ 캠퍼스)

문21)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최종적으로 다니신 대학을 언제 입학하여 언제 졸업하셨습니다?

■ 입학 : _____ 년 _____ 월

■ 졸업 : ① 졸업하지 않았다(재학, 휴학, 중퇴, 수료 등) ② _____ 년 _____ 월

문22) 귀하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대학원 휴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23으로 이동**

문22-1) 휴학을 하신 기간은 몇 학기입니까? (휴학한 학기 수를 모두 합해서 적어주십시오)

■ 휴학기간: _____ 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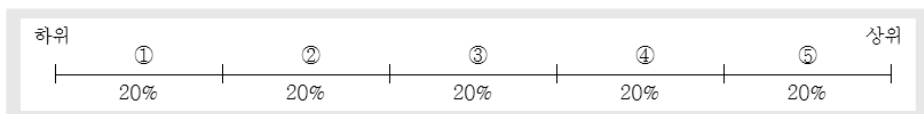
문22-2) 귀하가 휴학을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어학연수/해외여행 | ⑥ 아르바이트 |
| ② 편입학 및 재수준비 | ⑦ 경제적인 이유로(학비가 없어서) |
| ③ 자격증 및 고시준비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 ④ 대학원(유학) 준비 | ⑨ 인턴 등 대외활동 |
| ⑤ 취업 및 취업준비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 ① 예 ② 아니요

- ① 인문계열
 - ② 사회계열 (경상계열 제외)
 - ③ 경상계열
 - ④ 자연계열
 - ⑤ 공학계열
 - ⑥ 의/약학계열
 - ⑦ 교육계열
 - ⑧ 예체능계열
 - ⑨ 사관학교, 경찰대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27) 다음은 대학 시절 경험한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경험 여부	
	받음	받지 않음
(1)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①	②
(2) 영어 사교육	①	②
(3)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①	②
(4)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①	②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 ① 있다 ② 없다 → 문 29로 이동

문28-1) 실제로 해외유학을 다녀오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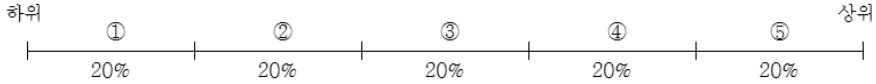
- [illegible]

문29) 귀하는 대학 시절 토익, 토플, 텡스 등 영어 능력 시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30으로 이동

문29-1)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귀하의 영어 실력은 대체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문30) 귀하는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1) 귀하는 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2) 대학(학부) 관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제외합니다)

① 학자금 대출 받았음

② 학자금 대출 받지 않음 ➡ 문 33으로 이동

문32-1) 귀하가 받은 학자금 대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한국장학재단 | ⑤ 본인 직장 |
| ② 제1금융권(은행, 농협 등) | ⑥ 부모 또는 친지 직장 |
| ③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④ 제3금융권(사채업 등) | |

문33) 귀하는 대학 재학 중(휴학, 방학기간 포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34로 이동

문33-1)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 ⑥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 ② 학비를 벌려고 | ⑦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
| ③ 생활비(용돈)가 필요해서 | ⑧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
| ④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⑤ 사회 경험을 위해서 | |

문34) 귀하는 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가?

① 예

② 아니오 → 문 34-2로 이동

문34-1) 대학원에 진학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경제」 영역(문37)으로 이동

- | | |
|-------------------------|--------------------|
| 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 ⑦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 ②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 ⑧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
| ③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 ⑨ 유학가기 위해 |
| ④ 학벌 상승을 위해(지명도 있는 대학) | ⑩ 취업이 안 돼서 |
| ⑤ 학력 상승을 위해(석·박사 학위 취득)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 |

문34-2) 귀하는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응답 후 「경제」 영역(문37)으로 이동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문35, 문36)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35)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Ⅲ. 다음은 「경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7)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 ④ 안정적인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8) 귀하는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공 | ⑦ 외모 |
| ② 학벌(출신학교의 명성) | ⑧ 개인 능력 |
| ③ 어학점수 | ⑨ 인턴(아르바이트) 경험 |
| ④ 수상경력 | ⑩ 가족 배경 |
| ⑤ 자격증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인성 | |

문39)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악화될 것이다 ② 유지될 것이다 ③ 강화될 것이다

문40) 귀하는 2017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입니다.

시간급

--	--	--	--	--

 원

문41)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42)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료품비 | ⑦ 보건의료비 |
| ② 외식비 |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
| ③ 의류비 | ⑨ 경조사비 |
| ④ 교육비 | ⑩ 주거비 |
| ⑤ 교통·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문화여가비 | |

문43) 만약 귀하의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늘리시겠습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료품비 | ⑦ 보건의료비 |
| ② 외식비 |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
| ③ 의류비 | ⑨ 경조사비 |
| ④ 교육비 | ⑩ 주거비 |
| ⑤ 교통·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문화여가비 | |

문44)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45) 소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46)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47)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48로 이동** ② 아니오

문47-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⑤ 낮은 급여 수준 |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③ 고용 불안정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48)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 49로 이동**

문48-1)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 ⑥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
|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 ⑦ 지인이 함께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
| ③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 ⑧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
| ④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

문48-2)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문 50으로 이동**

문49-1) 준비하거나 하였던 주된 시험 종류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시(행정, 사법, 외무, 기술 등)
 ② 공무원 시험(7급, 9급 등)
 ③ 교원임용고시
 ④ 공단, 공사 시험
 ⑤ 국가전문자격시험(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49-2) 준비하거나 하였던 주된 시험에 합격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50)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 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 문50의 응답 결과와 상관 없이 문50-1과 문50-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0-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비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50-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편향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51) 귀하는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

① 예 ➡ 문 55로 이동

② 아니오

문51-1)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

① 예 ➡ 문 5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51-2로 이동

문51-2) 지난 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예 ➡ 문 5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52로 이동

문52)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 취업예정자나 발령대기자는 '① 예' 에 응답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 경우도 '① 예' 에 응답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53으로 이동

문52-1) 귀하는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53) 귀하는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 ☞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 62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54로 이동

문54) 귀하는 지난 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 ☞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 62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62로 이동

※ 다음(문55~문6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문51, 문51-1, 문51-2 중 하나라도 '① 예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55)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⑩ 직업군인

문5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세금 / 인센티브 / 성과급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월 평균

--	--	--	--

만원

문5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 문 57-3으로 이동

문57-1) 임금 근로자로 다음 중 근로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 등)

문57-2) 임금 근로자로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응답 후 문 57-4로 이동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57-3) 비임금 근로자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응답 후 문 57-4로 이동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문57-4) 일하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문 57-6으로 이동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57-5로 이동

문57-5)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4인

⑤ 100-299인

② 5-9인

⑥ 300-499인

③ 10-29인

⑦ 500인 이상

④ 30-99인

문57-6) 현재 종사하는 곳(일)에서의 근속년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문58)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62-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문 63으로 이동**

- ①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 ③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 ④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3) 귀하는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4)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②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 ③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④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⑤ 취업을 위해 준비 중
- ⑥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⑦ 가사일 때문에
- ⑧ 건강상 이유로
- ⑨ 당분간 쉬고 싶어서
- ⑩ 진학을 위해
- ⑪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나지 않아서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문65) 귀하는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주거」 영역(문66)으로 이동**

문65-1) 입사지원서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몇 회 내셨습니까?

- ① 예 (_____ 회 냈다)
- ② 아니오

문65-2) 면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몇 회 보셨습니까?

- ① 예 (_____ 회 봤다)
- ② 아니오

문72) (문71에서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인 경우에만 응답)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응답 후 '건강' 영역(문74)으로 이동

- ① 취업 전까지 동거
- ② 결혼 전까지 동거
- ③ 결혼 후에도 동거
- ④ 출산 후에도 동거
- ⑤ 내 집 마련까지 동거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문73)은 부모님으로부터 분가(비동거, 독립)하신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73)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74)으로 이동

문73-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문73-2) 귀하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4)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 cm, 몸무게 : kg

문75)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76)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문77)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느낀다

문78) 귀하는 평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인 경우 학기 중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 분

문79)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문 80으로 이동

문79-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⑤ 일주일에 5번
② 일주일에 2번 ⑥ 일주일에 6번
③ 일주일에 3번 ⑦ 매일
④ 일주일에 4번

문80)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81)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 ① 예 ② 아니오 ➡ 「문화와 가치관」 영역(문82)으로 이동

문81-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화와 가치관」 영역(문82)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 81-2로 이동

문81-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문88)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한 후에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 에서부터 '항상 느꼈다(7점)' 까지의 보기 중에서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짜증나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무기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9)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9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산·경제력 ⑦ 직업·직장
 ② 화목한 가정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③ 자아성취 ⑨ 친구·대인관계
 ④ 건강 ⑩ 꿈·목표의식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⑪ 기타(적을 것 : _____)
 ⑥ 종교생활

문9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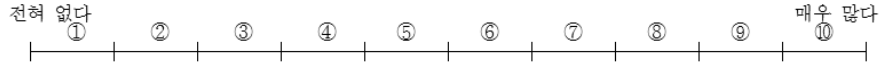
문92)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④ 삶의 주관적 만족감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⑤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③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9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타고난 자질·끼 ⑥ 인맥(학연·지연·혈연 등)
 ② 학벌·학력 ⑦ 외모
 ③ 집안 배경 ⑧ 운
 ④ 재력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⑤ 노력·성실성

문94) 귀하가 답한 '성공의 평가기준'과 '성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귀하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많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5)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명)

문96)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97)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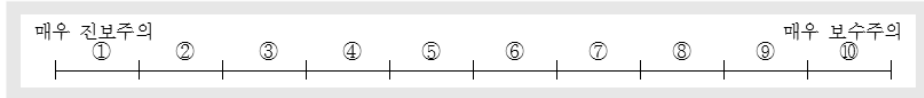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밋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98) 귀하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공정 ② 불공정 ③ 보통 ④ 공정 ⑤ 매우 공정

문99) 귀하의 정치적 성향을 1(매우 진보주의)부터 10(매우 보수주의)까지의 숫자로 표시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다음 **VIII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양력 기준 1991년 6월 24일 이후 출생자(만 24세까지)만** 응답해 주세요.
※ 그 이전 출생자(만 25세 ~ 만 39세)는 「배경문항1」(25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VIII. 다음은 「지속 가능한 발전」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00)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 을 유지하는 데 환경 문제(폐적한 환경 유지, 자연 보호, 오염 예방, 기후변화 대처 등)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이 없다 ② 별로 관련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련이 있다 ⑤ 매우 관련이 있다

문101)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기필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02)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문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①	②	③	④	⑤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양질의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①	②	③	④	⑤
(9)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①	②	③	④	⑤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①	②	③	④	⑤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①	②	③	④	⑤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①	②	③	④	⑤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①	②	③	④	⑤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문103)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귀하 스스로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①	②	③	④	⑤

문104) 다음의 각 사회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계층 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연금' 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	①	②	③	④	⑤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①	②	③	④	⑤

문105) 귀하의 토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② 계층 간 불평등
 ③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④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⑤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⑥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⑦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⑧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⑩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6) 귀하는 귀하의 또래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106-1) (문106에서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응답자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⑤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②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⑥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③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문107)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귀하 또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력이 없다 ② 별로 영향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영향력이 있다 ⑤ 매우 영향력이 있다

문10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등·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년 대표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연령]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일

배경문항 3) [지역] 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배경문항4) [가족배경]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5)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6) 부모님 중 외국 출신인 분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배경문항7) 북한에서 이탈한 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전화번호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짜	2016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총()분간 응답	

에디팅(editing) 기록표

조 사 원	성 명				
	I D				
	1차(현장) 에 디 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 감독원	성 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 명				
	I 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1 관리자		225	내무관리원	2462	방사선사	2714	관세사	2881	경리총장 및 조서	
공공 및 기업 관리(1)		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2463	차량기사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882	직업 문명사수	
1110	의회관리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술자	2464	차량운행사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2883	경리심판 및 경리특원	
1120	기업고위임원	228	웹 개발자	2465	외장보조기사	2723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88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12)		229	정보 시스템 운영자	2466	물리 및 직업 치료사	2724	증권 및 외환 딜러	2889	가타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201	정부행정 관리자	230	통신 및 방송방송 장비 기사	2468	임상 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2725	손해사정인	2891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1202	경영지원 관리자	공학 전문가 및 기술자(2)		2469	응급구조사	2729	기타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899	미술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209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462	위생사	2731	상물기학 전문가	3 사무 종사자		
전문직(3)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463	인명사	2732	여행상품 개발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		
3111	연구 관리자	2313	조경 기술자	2464	의무기록사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3111	조직행정 사무원	임용예측 및 의료조사 서비스직(4)
3112	교육 관리자	2314	도시 및 교통계획 전문가	2465	간호조무사	2734	조사 전문가	3112	관계행정 사무원	
3113	법률경찰·수사 및 고문 관리자	2315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466	안마사	2735	형사수학자	3113	법률행정 사무원	
3120	보험 및 금융 관리자	2316	건설관리 기술원	2471	사회복지사	2741	2차산업 전문가	3114	국·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3311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2	보육 교사	2742	전원 영양원	3121	가족 및 마케팅 사무원	임용 및 기타 서비스직(5)
332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2322	화학공학 기술원	2473	직업심리학자 및 취업 알선원	2743	기술 영양원	3122	인사 및 교육 행정 사무원	
3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2331	금속재료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474	산림관리 및 환경조사	2744	상품중개인 및 중개사	3123	재무관리 사무원	
335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2332	금속재료공학 기술원	2475	시민 단체 활동가	2745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3124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3360	기타 전문직(3)	23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6	기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2749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125	무역 사무원	판매 및 영업 서비스직(6)
건설 전문가 및 생산 관리(4)		2342	화학공학 기술원	2481	상조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4)		3126	예술 사무원	
4111	건설 및 설계 관련 관리자	2351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8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3127	출판 사무원	
4112	전자·기술 및 수도 관련 관리자	235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교육연구 및 관련직(5)		2812	번역가	3131	회계 사무원	
4113	제품 생산 관리 관리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11	대학 교수	2813	통역가	3132	경영 사무원	판매 및 영업 서비스직(7)
4401	기타 건설·전문가 및 생산 관리 관리자	2354	전자·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원	2812	대학 사교계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3141	비서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5)		2361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2821	중·고등학교 교사	2815	출판물 전문가	3142	전산 자료 입력 및 사무 보조원	
511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2362	보건·위생 및 환경 감시원	2822	초등학교 교사	2821	라이터 및 문화 보조원	금융 및 회계 서비스직(2)		
5112	운송 관련 관리자	2363	비밀감시원	2823	특수교육 교사	2822	사서 및 기록관리사	3201	출판장 사무원	5 판매 종사자
5211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2371	항공 조종사	2830	유치원 교사	2831	검록 및 기술검록	3202	보험 심판 및 사무원	
522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237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2841	문리 및 어학 강사	2832	배우 및 모델	3203	금융 관련 사무원	
5301	유통·창조 및 기타 관련 관리자	2373	관세사	2842	컴퓨터 강사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3204	신용 추심원	
5302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38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3	기술 및 기능자 강사	2834	촬영기사	3209	법률 감사(사무직)	5 판매 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2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4	예능 강사	2835	출판 및 녹음 기사	3210	법률 관련 사무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		2383	기초-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2845	학술지 및 전문 교사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	3212	간사 사무원	
2111	생화학 연구원	2384	소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9	기타 물리·기술 및 예술 강사	2837	조각가 및 양각가	상업·판매 및 기타 서비스직(3)		
2112	자연과학 연구원	2385	식품·생물공학 및 에너지 기술원	2838	장학·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838	기타연구·영양 및 영상 관련 종사자	3210	통계 관련 사무원	임용예측 및 의료조사 서비스직(4)
2121	인문학 연구원	2386	화학	2832	대학 교육연구	2841	화가 및 조각가	3221	여행 사무원	
2122	사회과학 연구원	2389	기타공학 관련 기술자 및 기술원	283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2842	사진가 및 사진가	3222	인사·장수 사무원 및 전화 교환원	
2131	생화학 기술원	보건·서비스 및 종교 관련직(4)		법률 및 행정 전문직(4)		2843	인화가 및 인쇄화학자	3223	고대 상담 및 코치 요원	
2132	생화학 기술원	2411	전문 의사	2811	판사 및 검사	2844	음악 및 전통예술인	3229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2133	자연과학 기술원	2412	일반 의사	2812	변호사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4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자(2)		2413	한방사	2813	법무사 및 집행관	2846	가수 및 성악가	경영·서비스 및 보건 관련 서비스직(4)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414	치과 의사	2814	변리사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4111	경영관리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15	수의사	2820	장부 및 금융 행정 전문가	2851	제품 디자이너	4112	소셜미디어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420	약사 및 한방사	경영·금융·서비스 및 관련직(2)		2852	패션 디자이너	4113	신선보조관 및 고문관	임용예측 및 의료조사 서비스직(5)
2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430	간호사	271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2853	실용성 디자이너	4121	경영지원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440	영양사	2712	회계사	2854	시각 디자이너	4122	경영경찰	
2224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451	임상병리사	2713	세무사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4123	무인 경비원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8 농업·임업·축산업		7490	농업원	기타 기능 관련 기계		8494	광석 및 석제품 가공 조직원
농축산 숙련직(8)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7)	7911	금예원	8499	기타 비금속 제품 관련 생산 조직원
8111	곡식작물 재배원	7610	자동차 정비원	791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직원(8)	
81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7821	항공기 정비원	7821	건설 배관공	8610	금속공작기계 조직원
8113	과수작물 재배원	7822	선박 정비원	7822	금업 배관공	8620	냉·난방 관련 설비 조직원
8121	원예작물 재배원	7823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7829	기타 배관공	8630	자동차·비행기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
8122	조경원	78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7991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8641	자동차 조립원
8131	낙농업 관련 종사원	7931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9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64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32	기축 사육 종사원	7932	송진기 설치 및 정비원	8 장·기계 조직 및 직조 종사		8643	운송장비 조립원
8139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7933	물류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섬유 가공 관련 기계 조직원(8)		8644	일반기계 조립원
임업 숙련직(8)		7934	농·산경작·공작기 설치 및 정비원	8111	저분 및 도장 관련 기계 조직원	8650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201	조림·영양 및 벌목원	7935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8112	국유·공작기계 조직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직원(8)	
8209	임산물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7936	건설 및 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8113	목부·어메류 및 낙농용 가공 기계조직원	8610	발전 및 배전장비 조직원
어업 숙련직(8)		7939	농·임업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8114	과실 및 채소 관련 기계조직원	8620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직원
8301	양식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7)	8120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직원	8631	전기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직원
8302	어부 및 해녀	7811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8190	기타 섬유 가공 관련 기계조직원	8632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직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7812	기계장비를 설치 및 수리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직원(8)		8640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섬유 가공 관련 기능직(7)		7819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8211	섬유제조 기계조직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7)	
7101	제빵원 및 제미원	7821	산악산공	8212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직원	8710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7102	떡제조원	7822	내산산공	8221	직조기 및 편직기 조직원	8720	화물열차 차량 및 관련 종사원
7103	장죽원 및 도축원	7823	외산산공	8222	신발 제조기 조직원 및 조립원	8731	택시 운전원
7104	식품 및 밀·발효제품 종사원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7)		8229	기타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8732	버스 운전원
7106	김치 및 밀·발효제품 종사원	7711	간·조식 가공원 및 조립원	8230	세탁 관련 기계조직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7109	기타 식품가공 관련 종사원	7712	경량 철골공	화학 관련 기계 조직원(8)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섬유·염색 및 가공 관련 기능직(7)		7721	철근공	8311	섬유 및 천연·인조섬 관련 제어장치 조직원	8740	물류이동 장비 조직원
7211	패턴사	7722	콘크리트공	8312	화학 가공 장치 조직원	8750	건설 및 건설 기계 운전원
7212	재단사	7723	건축 석공	8319	기타 섬유 및 화학 가공장치 조직원	8760	선박 건설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7213	재봉사	7724	건축 목공	8321	화학 제품 생산기 조직원	상하수도 및 폐물처리 관련 기계 조직원(8)	
7214	제화원	7725	조각 및 석재 부설원	8322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직원	8810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직원
7219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7729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8323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직원	8820	폐물처리 및 소각로 조직원
7221	한복제조원	7731	미장공	83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직원(8)	
7222	양장 및 양복제조원	7732	방수공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직원(8)		8911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직원
7223	모피 및 가죽의류 제조원	7733	단열공	8411	주조기 조직원	8912	기타 조립원
7224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7734	바닥재 시공원	8412	단조기 조직원	8913	필드 및 종이 제조장치 조직원
7229	기타 의복 제조원	773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8413	용접기 조직원	8914	종이 제품 생산기 조직원
목재·가구·인쇄 및 기타 관련 기능직(7)		7736	건축 도장공	8414	금속·금 관련 제어장치 조직원	8919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직원
7301	목재를 제조 관련 종사원	7737	색시 조립 및 설치원	8415	금속·금 기계조직원	8921	인쇄기 조직원
7302	가구 제조 및 수리원	7739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8416	제강기조직원	8922	사진인쇄 및 현상기 조직원
7303	악기제조 및 조율사	7741	광학·채색원 및 석재 절단원	8417	관공기 조직원	8990	기타 제조 관련 기계조직원
7304	간판 제작 및 설치원	7742	철로 설치 및 보수원	8421	도장기 조직원	8 단조·무 종사	
금속·기계 관련 기능직(7)		7749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8422	도금 및 금속무기 조직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조·무직(8)	
7411	금형원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7)	8431	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직원	운송 관련 단조·무직(8)	
7412	주조원	7801	영상 및 통신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32	절토제품 생산기 조직원	9210	하역 및 적재 단조 종사원
7413	단조원	7802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33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직원	9221	운반물 정비원
7421	제관원	7803	통신 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7422	관공원						

Abstract

To resolve the growing problems of the youth and establish suppor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and figure out the phenomena and events that young people generally experience in their lives. While it is estimated that rapid changes in the conditions around young people seem very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lives, there is not in fact sufficient data to precisely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A 2016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was conducted to collect the basic data that will enable policymakers to take measures to tackle the serious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The survey consists of seven parts: ① population and family ② education ③ economy ④ housing ⑤ health ⑥ culture and values ⑦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The first part, population and family, was composed of age range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 opinions about having a child, marriage, and independence; policy on children and parenting, which needs to be expanded first and foremost; and the expected birth rate in 2025.

Second, "education" mainly asked about opinions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in 2025, and opinions about educational practice in our society.

Third, "economy" was designed to survey job preference;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looking for a job; thoughts about competition among youth for jobs in 2025; the adequate minimum wage in 2017; opinions about unemployment benefits, payment to unemployed young people; what respondents spend the majority of money on; and which area the respondents would expand their spending on first if their financial conditions were improved.

Fourth, the main questions that "housing" included were "when the respondents expect to be able to buy a house"; "whether they have experience living in a shared house or they would choose to live in a shared house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thoughts about houses"; "the tenure status of the house where the respondents currently live"; and "whether the respondents live with their parents."

Fifth, the questions on "health" consisted of "how the respondents think about their own figure"; "what the respondents think about their health"; "level of stress in everyday life"; and "sleeping hours on average."

Sixth, "culture and values" are designed to survey "level of interest in culture and art"; "whether the respondents read any books over the past year"; "whom respondents often go out with for leisure"; "whether they join any clubs for leisure"; "which news media the respondents often encounter"; and "preference regarding values."

Last,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asked about "the friend that respondents could rely on in a difficult situation"; "what the respondents think about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elderly"; "how to express a dissenting opin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xpressing it"; "opinions about the level of fairness in Korean society"; and "political orientation." The 2016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wa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of the youth policies and agenda.

A special module is planned to be conducted for four years starting from 2017 along with the main module by developing additional items, targeting ① NEETs and social misfits, ② new graduates or graduates-to-be, ③ underprivileged youth, and ④ young women.

Keywords: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economy, living, health, culture and values,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 탁 과 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14-1 94330

979-11-5654-097-7 (세트)



연구보고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141
ISBN 979-11-5654-114-1
ISBN 979-11-5654-097-7 (세트)